현대불교

행복 만들기 캠페인
부처인 당신을 공경합니다

제 727 호 구독신청 02)2004-8200 Buddhanews.com 불기 2553년 4월 15일(음력 3월 20일) 수요일(주간)

복지포교 일꾼 뭉쳤다

최초 불교사회복지법인연합회 출범

불교계 사회복지법인 대표자와 산하기관 및 시설대표자들이 처음으로 사회복지법인연합회를 발족, 복지포교의 새 전기가 마련됐다.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 바라밀복지재단, 감천복지재단 등 40여개 불교계 복지법인이 소속된 한국불교사회복지법인연합회(이하 연합회)가 4월 8일 대전 유성관광호텔에서 창립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조계종 포교원장 혜총 스님(사회복지법인 불국토 대표이사)을 비롯해, 지현 스님(늘기쁜마음 대표이사), 현기 스님(통도사 자비원 상임이사) 등 불교계 사회복지법인 대표자 15명이 참석했다.

스님들은 이사회에서 초대회장에 혜총 스님을, 수석부회장에는 각현 스님(연꽃마을 이사장)을, 상임이사는 현고 스님(바라밀복지재단 대표이사)을 추대했다

혜총 스님은 "교계에서 각 종단과 원력 있는 분들이 법인을 설립해 운영해왔다. 그 취지와 목적 등을 집약할 단체가 결성되기를 오래전부터 바래왔다"며 "각 단체가 연합해 복지서비스를 공유하고 자질을 향상시켜 불교복지서비스를 한 단계 향상시킨다면 불국토건설이 앞당겨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관 개정 등 안건이 통과된 창립이사회에서 스님들은 △회원 정체성 확립과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사회 · 불교계 요구의 맞춤 적용 △불교사회복지 저변확대를 위한 인재양성 등에 힘쓸 계획이다.

이날 참가자들은 "이번 연합회 출범은 정부의 복지정책에 불교계의 참여를 넓히고 이웃종교에 비해 열세했던 사회적 위치를 확고히 해 나갈 전기"며 "교계 복지사업을 활성화시켜 사회복지사와 시설관계업무자 등 일자리 창출과 자연적 포교가 가능해 질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번 불교계 사회복지법인연합의 출범은 이웃종교의 활동을 벤치마킹한 것이기도 하다. 현재까지 국내 사회복지시설이나 봉사현황에서 개신교의 활약은 압도적이다. 종교별 사회복지시설수에서 개신교가 종교계시설의 60%를 차지한다. 가톨릭도 전국 15교구에서 1000여 개소의 사회복지시설을 운영 중이다. 이에 비해 현재 불교계는 700여개소를 운영 중이다. 뿐만 아니라 종교계 복지단체를 아우른 협의회 결성도 불교계가 가장 늦다. 개신교는 지난 2001년 한국기독교사회복지협의회(대표회장 손인웅 목사)가 설립됐다. 이보다 앞선 1975년 가톨릭에서는 한국카리타스 총괄협의기구(위원장 안명옥 주교)를 설립해 국내외의 어려운 이들에게 봉사하는 일을 전국차원에서 총괄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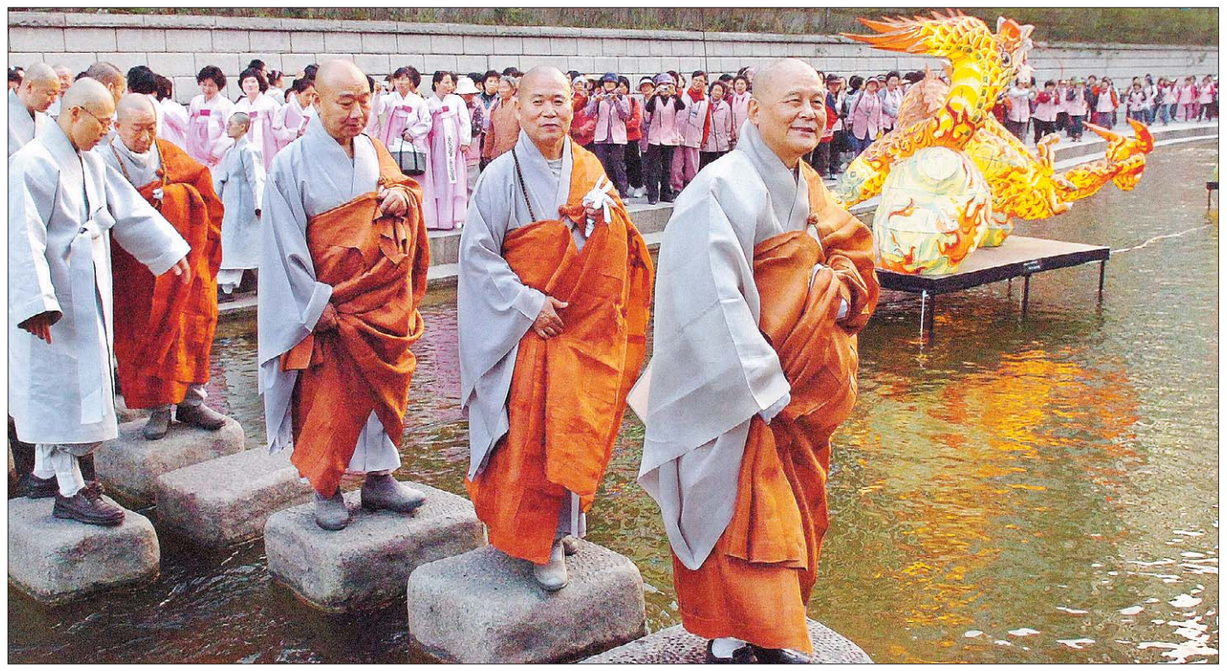
문화와 복지는 비불자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불교를 접하게 하는 효과를 지닌다. 자비심과 자비행이 포교의 원동력이라면 문화와 복지는 포교의 수레바퀴다.

예를 들어, 대만은 인구의 95%이상이 불교신자다. 대만불교가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종교로 자리 잡은 것은 문화 · 복지적 접근에 주력했던 자제공덕회와 불광산 등 대만불교계의 숨은 노력 때문이었다.

다행히 이번 연합회 출범으로 한국불교도 대만불교 등을 모델로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게 됐다.

부처님탄신일을 뜻하는 4월 8일 출범한 한국불교사회복지법인연합회가 복지포교의 신기원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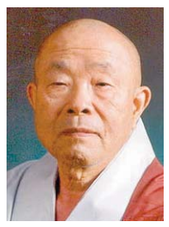
이나은 기자 bohyung@buddhapia.com



등 밝힌 청계천 선묵혜자 스님과 마음으로 찾아가는 108산사 순례 기도회는 불기 2553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4월 9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청계천 전통등 전시 및 자비운동 실천법회'를 봉행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 2000 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행사는 서울의 명소인 청계천에 오색 팔각 가로연등과 전통등 전시를 통하여 봉축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자비나눔 행사를 통해 소외된 이웃과 함께 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재완 기자

"모든 생명 부처로 태어나"

조계종 종정 법전 스님 봉축법어



불기 2553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조계종 종정 법전 스님(사진)이 4월 8일 봉축법어를 발표했다.

법전 스님은 법어에서 "오늘은 미혹도 깨달음도 다 버리고 부처와 범부(凡夫)의 얽매임에서 벗어난 분이 우리 곁에 오신 날"이라며 "비록 그 모습은 텅 비고 고요해 볼 수가 없지만 찾고 부르는 곳에 현응(玄應)함이 일지 않은 곳이 없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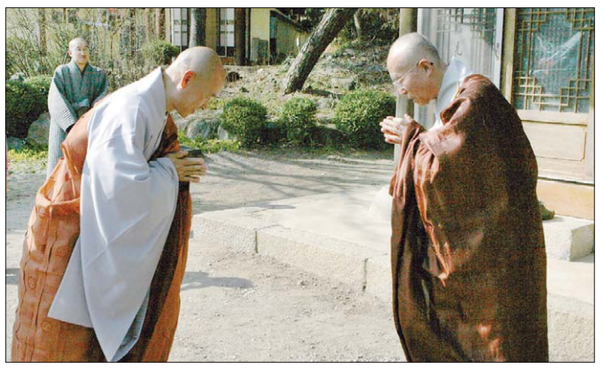
이어 스님은 "무명(無明)속에서 걸림 없는 지혜를 얻은 이는 곳곳에서 살아있는 부처를 만날 것이요, 타오르는 분노 속에서 대비심(大悲心)을 잃은 이는 이르는 곳마다 삼악도(三惡道)를 이룰 것"이라며 쉼 없는 정진과 수행을 당부했다.

한편, 조계종은 9일 오후 7시 청계천에서 '가로연등 설치 · 전통등 전시 및 자비나눔 행사'를 시작으로 '자비의 손길' 행사 등 다양한 봉축행사를 전개한다. 14일 오후 7시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점등식에는 미륵사지탑(국보 제11호)을 형상화한 높이 22m의 장엄등을 통해 경제난 극복과 사회통합을 기원할 예정이다.

26일에는 전국에서 연등축제가, 5월 2일에는 전국 사찰에서 법요식이 봉행된다. 조동섭 기자

"동국역경원 독립운영"

東大 영배 이사장, 월운 스님에 참회



동국대 이사장 영배 스님(왼쪽)이 4월 6일 봉선사를 방문 월운 스님에게 역경원장 해임 등에 대해 사죄했다.

동국대 이사장 영배 스님이 동국역경원장에서 일방해임됐던 월운 스님(봉선사 조실)을 찾아가 참회했다.

동국역경원장일방해임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초격, 이하 동진위)는 "영배 스님이 4월 6일 봉선사 다경실로 월운 스님을 찾아 삼배를 올리고 사죄했다"고 7일 밝혔다.

영배 스님은 "12월 1일 (영담 스님에게) 직무대행을 지명한 뒤 월운 큰스님에 대한 일련의 사태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며 "총장을 잘 관리하지 못했음은 물론, 동국역경원에 대한 학교법인의 관심부족 등 모든 것이 큰스님을 제대로 모시지 못한 본인의 책임이다. 참회드린다"고 말했다.

월운 스님은 "그렇게 배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라고 화답했다.

이 자리에서 영배 스님은 동국역경원의 존치 및 동국역경원의 독립적인 운영에 대해 강조했다. 월운 스님에게는 '명예역경원장직' 제의와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할 뜻도 내비쳤다. 한편, 이번 영배 스님의 방문은 3월 31일 초격 스님(동진위 위원장)이 영배 스님을 면담해 성사됐다. 조동섭 기자

선지식을 찾아서 ▶14 자광 스님
도반의 향기 ▶9 배광식 권수형 부부
지상강의 ▶23 원학 스님

법구경

마음이 확고하지 않고
진리의 길 모른다면
지혜의 완성에 이를 수 없다


신상품 LED인등 LED전구
찬덕 031)792-6288
연등 031)794-40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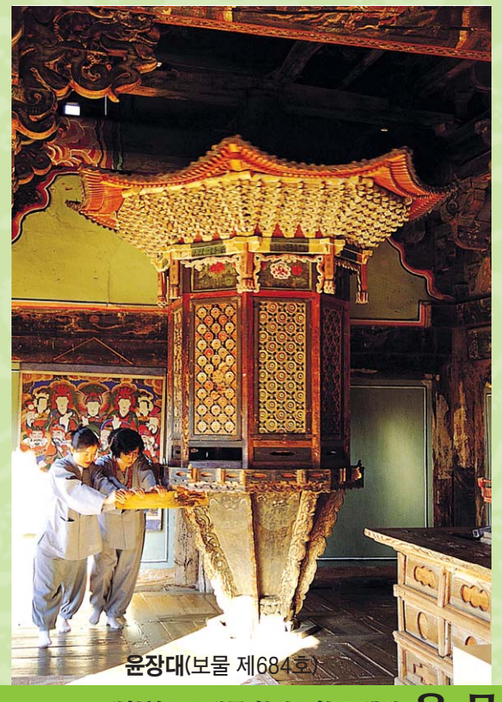

올곧은 마음으로 참된 공양물만을 만드는
능인향당
향 · 조각 · 공양물
본사 02)3663-6777
(조계사 맞은편 02-730-6888 직영매장)

<PR> 불경금책 소장용으로 인기리에 보급중!!!

복장의식 및 소장용으로 휴대가 가능하며 큰스님 법어, 법구경도 맞춤식 주문제작이 가능합니다
실물크기(3.5×5cm) 금강경 23매
용도:복장의식, 상량식,봉사영가천도
문의 (02)722-1850

"법률사무소 서안(瑞安)은 스님, 불자님의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법률사무소 서안
취급업무 : 민사 · 형사 · 가사 · 행정
강영화 변호사
031)436-3054
010-7504-4521

열대과일 두리안 전문
보이茶, 각종 茶器, 생활 도자기
창다원
031)882-1357
전국 직접 배송

용문사 윤장대 윤전으로 모든 액을 소멸하자!

윤장대(보물 제684호)

용문사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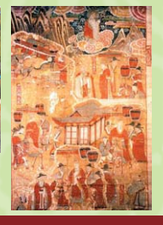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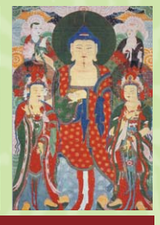
용문사 교지(보물 제729호)

용문사 천불전

목각좌상 및 목각탱(보물 제989호)

용문사 만등불사

성보박물관

팔상탱(보물 제1330호)

영산회 괘불탱(보물제145호)


기축년(윤년)! 삼사순례와 방생법회는 윤장대가 있는 용문사에서!

윤장대를 돌려 업장을 소멸하고 소원을 성취하자

소백산 용문사는 신라시대에 창건된 천년고찰로서 한국불교 중흥과 호국에 앞장서온 대표적인 사찰입니다.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용문사에는 우리나라 유일의 회전식 장경각인 윤장대 및 대장전, 목각탱 · 목각 삼존불, 세조의 교지, 괘불탱, 팔상탱 등 약 315점의 문화재가 있습니다.
특히 호국을 기원하기 위하여 조성된 윤장대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읽고 배우고 싶어도 그럴 수 없었던 이 땅의 수많은 중생들에게 복덕과 지혜의 길을 열어 주시는 자비롭고 영험하신 부처님 말씀이었습니다.
요즘에는 심각한 경제난과 사회 불안으로 점점 살기가 힘듭니다.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 건강을 기원하시는 분, 그리고 집안에 수험생이 있는 분, 새로 이사하는 분들 모두 윤장대를 돌리시어 업장소멸 하시고 사업성취, 병자쾌차, 학업성취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용문사에서는 5분거리에 방생할 수 있는 전용 저수지가 있으며, 삼사순례를 할 수 있는 대승사, 김용사, 보문사, 장안사, 부석사, 청량사, 봉정사, 명봉사 등 전통있는 사찰들이 1시간 이내의 거리에 있습니다.
방생과 삼사순례로 한량없는 공덕 쌓으시고, 운장대를 돌리시어 각자 지은 업장을 소멸하고 바라는 바 모든소원을 성취하시길 다시한번 기원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용문사 주지 벽담 청안 합장

용문사 오시는 길
버 스 : 동서울터미널 출발(06:10~6:30, 30분 간격) 3시간 소요 ⇒ 예천 하차 ⇒ 택시(용문사)20분
승용차(서울) : ① 중부고속도로 ⇒ 영동고속도로 ⇒ 중앙고속도로 ⇒ 예천 IC
② 영동고속도로 ⇒ 여주 JC ⇒ 중부내륙고속도로(충주김천방향) ⇒ 점촌 · 함창 IC
승용차(부산) : 경부고속도로 ⇒ 중앙고속도로 ⇒ 예천 IC
승용차(대구) : 중앙고속도로 ⇒ 안동 ⇒ 예천 IC



삼사순례도


• 용문사에서 5분 거리에 방생할 수 있는 방생전용 저수지 있음
• 방생차량 대형 차량 주차 가능

대한불교조계종 천년고찰 소백산 용 문 사
경북 예천군 용문면 내지2리 391 (우)757-800 / 전화 : (054)655-1011, 011-336-4665/ 전송 : (054)655-8405



죽비와 목탁



김성우 취재부장
buddhapia5@buddhapia.com

덕숭총림의 원융살림을 보고

4월 2일. 충남 예산 덕숭산은 개나리, 진달래, 목련 등 봄의 전령들과 수덕사 본말사 스님들로 생기를 띠었다.

오전, 100여 명의 스님들은 수덕사에서 삼삼오오 정혜사로 올라와 '만공 선사 탄신 138주년 다례'에 동참했다. 이어 덕숭총림 수좌 설정 스님과 유나 우송 스님, 주지 옹산 스님을 필두로 대중들은 다정한 형제처럼 줄을 지어 안행(雁行)하며 경허 선사와 그의 세 제자인 수월 만공 혜월 스님의 진영이 모셔진 금선대와 만공선사부도탑을 참배하며 역대 큰스님들의 유훈을 되새겼다.

이날 오후, 수덕사 황하정루에서는 또 하나의 중요한 행사가 열렸다. 덕숭총림 제4대 방장 추대를 위한 산중총회다. 만장일치로 제4대 방장에 설정 스님을 추대하기까지의 산중총회 회의과정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회향됐다.

이날 두 법회를 지켜보며 '한국불교에도 산중공의제가 살아 있구나' 하는 안도감을 느꼈다.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를 비롯한 크고 작은 선거과정에서 분규와 갈등을 거듭하던 모습이 주마등처럼 스쳐갔다. 심지어 사자상승(師資相承)의 전법(傳法)을 생명으로 하는 총림의 방장 추대과정에서 조차 잡음이 나왔던 일들은 충격적이었다.

각급 선거를 위한 산중총회가 문중간의 알력이나 종권 다툼으로 고함과 설전이 오고 가는 현실에서 덕숭총림의 산중총회는 신선한 충격이었다. 덕숭문중 큰스님들의 지도하에 본사 주지나 중앙종회의원 선거에서도 한번도 잡음이 없었다 하니 '선의 종갓집(禪之宗刹)' 다운 아름다운 가풍이 아닐 수 없다.

100세 고령에도 미국 서부 능인선원 봉불식에 참석하며 해외포교에 힘썼던 초대 방장 혜암 스님, 한 평생 쉬지 않고 일하며 법상에도 오르지 않았던 제2대 방장 벽초 스님, 선농일여(禪農一如)의 가풍 아래 천진한 웃음과 서도(書道)로 말없는 법문을 설했던 제3대 방장 원담 스님. '명리를 모두 버리라(名利共休)'는 가르침을 온몸으로 보여준 역대 선사들이 있었기에 덕숭총림의 원융살림은 어느 총림보다 원만했던 것이다.

올해 말 예정인 조계 · 태고종 총무원장 선거가 벌써부터 큰 이슈로 떠오른 요즘, 만공 스님의 불멸의 법어 '세계일화(世界一花)'가 떠오른다. 세계인, 아니 대한민국 국민을 한 송이 꽃으로 만들기에 앞서 승단의 대중부터 한마음이 되는 산중공의제의 실현을 위해 스님들의 크나 큰 각성과 발심을 기원한다.

템플스테이통합정보센터 개관

승효상씨 설계… 4월 21일 오전 11시 개관식



템플스테이에 관한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통합정보센터.

템플스테이는 세계적으로 '가장 기억에 남는 프로그램' '한국의 여행경쟁력 있는 상품'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한국불교는 물론 한국을 알리는 대표브랜드로 떠오른 템플스테이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관련 정보에 대한 요구도 커져 왔다.

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종훈)은 템플스테이 관련 정보를 한곳에 모은 템플스테이통합정보센터의 공사를 마치고 4월 21일 개관식을 봉행한다.

서울 조계사(주지 세민) 일주문 건너편에 건립된 템플스테이통합정보센터는 85억여 원의 예산을 들여 연면적 23만1456㎡(692평)에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로 세워졌다.

지하 1층은 전국템플스테이 현장을 촬영한 사진전이 열리며, 지상 1층에는 북카페와 홍보관이, 2층에는 전통찻집이 마련됐다. 3층은 템플스테이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관, 4층은 템플스테이 사무국, 5층은 전통사찰음식체험관 '바루'가 운영된다. 또 옥상은 정원으로 꾸며져 일반에 개방한다.

통합정보센터는 세계적인 건축가 승효상씨가 설계했다. 승씨는 통합정보센터의 외형은 현대적 감각과 전통미를 표현해 문화의 거리인 인사동과 조계사를 잇는 매개체로 삼아 현대적이면서도 전통적인 공간개념 구현에 역점을 뒀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 관계자는 "템플스테이를 체험하고 그 매력에 빠져 한국을 다시 찾는 외국인들이 늘고 있으며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도 큰 호응을 얻고 있다"며 "인사동을 찾는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과 시민들이 언제든 부담 없이 들러 차도 마시고 템플스테이에 관한 정보도 얻을 수 있는 곳으로 가꿔가겠다"고 말했다.

개관식은 21일 11시에 개최되며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 한국불교문화사업단 단장 종훈 스님, 김충용 종로구청장 등 내외빈이 참석한다. 개관식은 건축물에 대한 설명, 사찰음식 체험의 시간, 축사 등의 식순으로 진행된다. 글=이상언 기자 사진=박재완 기자

태고종 상임조사위 전격 해체

보우승가회, "종정스님 유시로 해체" 발표

태고종 '종단 현안 타개를 위한 상임조사위원회(위원장 도산, 이하 조사위)'가 전격 해체했다.

보우승가회는 4월 9일 "총무원측에서 혜초 종정스님의 유시가 있었다며 조사위 해체를 통보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보우승가회는 9일 오후 태고총림 선암사를 방문해 혜초 스님을 예방했다.

보우승가회 사무총장 능해 스님은 "종정스님께서 누가 됐든 '종단'을 위해 협조하고 수고를 아끼지 말라는 내용의 유시를 내리셨다"며 "유시에는 조사위 해체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고소 · 고발 취하 등의 내용이 담겨있었다"고 말했다. 스님은 또 "조사위는 해체하되 고소 · 고발은 계속 진행하기로 결정했다"며 "종정스님께서 총무부원장에 수열 · 지홍 스님을, 총무부장에 나를 지목해 종단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하셨다"고 설명했다. 보우승가회는 현재 사회복지법인 토지매매, 울산 옥룡사 등과 관련 3건의 고소 · 고발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보우승가회에 따르면 운산 스님은 3월 31일 진행된 임시중앙종회와 4월 8일 진행된 종무원장회의에서 "사회복지법인 문제 등 대외적인 사안을 제외한 모든 일을 새롭게 선출될 부원장 및 집행부에게 맡기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고 한다. 태고종의 향후 향방에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김진성 기자

조계종 종무행정 전산화 완료

관련 증명 본사 발급

조계종 총무원과 각 지방교구 본사를 네트워크로 잇는 종무행정 전산화가 완료돼 스님들은 물론 불자들의 사찰관련 업무를 각 교구본사에서 손쉽게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조계종은 본사종무행정 프로그램을 전 교구본사로 확대 보급해 사찰 및 승적관련 증명을 각 교구본사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고 4월 6일 밝혔다.

조계종은 2006년부터 중앙종무행정기관과 지방종무기관(교구본사 등)를 잇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2008년 5개 교구본사(월정사 동화사 불국사 해인사 송광사)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해왔다.

이번 본사종무행정 프로그램 보급으로 총무원을 직접 방문 혹은 우편 신청해 발급 받던 △사찰용 증명서 발급, △사찰현황 검색 및 출력, △각 교구별 재적스님에 대한 증명 등의 발급이 각 교구본사마다 가능해졌다.

또 총무원의 사찰관련 현황자료를 교구본사가 실시간 열람 · 출력할 수 있게 돼 종무기관별 업무불균형 해소는 물론 교구본사의 업무효율성을 높이게 됐다. 조동섭 기자



조계종 전법회관 개관식 미래불교의 허브가 될 조계종 전법회관 개관식이 4월 8일 봉행됐다.

1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안택기도를 시작으로 테이프 커팅식, 제막식, 조계종 총무부장 원학 스님 경과보고,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의 치사, 김의정 중앙신도회장과 김충용 종로구청장의 축사, 표창패 전달 순으로 진행됐다. 이상언 기자

조계종 원로회의 개최

조계종 원로회의는 4월 21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회의실에서 제33차 원로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前 원로회의 의장 종산 스님 임기만료에 따른 신임 의장 선출건과 신임 원로의원 선출건이 논의된다. 제180회 임시중앙종회에서 통과된 종헌개정안에 대한 인준도 있을 예정이다. 조동섭 기자

'계율학개론' 조계종 편찬위 개최

출가수행자에게 있어서 수행의 밑거름인 계율(戒律)에 관한 종단 본 교재가 편찬된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직무대행 법장)은 4월 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제1차 <계율학개론> 편찬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무관 스님(前 해인사 해인율원)이 위원장에 추대됐다. 편찬위원에는 도일 스님(송광사 송광율원), 도일 스님(파계사 영산율원), 덕문 스님(통도사 영축율원), 승원 스님(중앙승가대 비구수행관장), 원영 스님(불학연구소)이 위촉됐다.

종단본 <계육학개론>은 2010년 12월까지 2년에 걸쳐 편찬된다. 강원 등 조계종 기본교육기관에서 교재로 쓰일 이 책은 신국판 350쪽 분량으로 계획됐다. 조동섭 기자

특별분한신고 5월 11~20일

2000년 미신고 승적 말소 스님 대상

조계종 총무원(원장 지관)은 5월 11~20일 특별분한신고를 실시한다.

이번 특별분한신고는 1990년 분한신고를 필했으나 2000년 분한신고를 하지 않아 승려분한신고시행규정에 의거 승적이 말소된 스님들이 대상이다.

분한신고 미필로 승적이 발소된 스님들은 1581명이다. 2007년 기준 조계종 전체승려 1만3571명 가운데 11.6%에 달한다.

조계종 총무원 총무부 관계자는 "2010년 분한신고 이전에 마지막 기회를 줌으로써 본의 아니게 시행기간을 놓친 결격 없는 스님들을 구제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분한신고를 원하는 스님은 신고인의 사찰주지 또는 은사스님의 확인을 받아 재적교구본사에 신고하면 된다. 조동섭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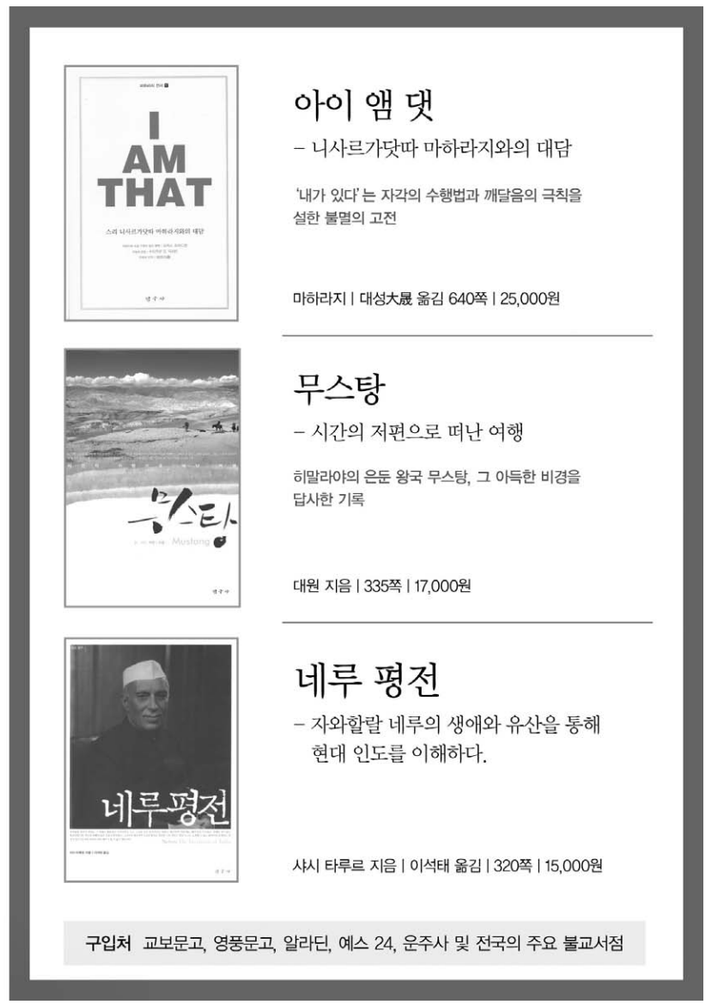
실천승가회 조계종단 쇄신 촉구

1994년 조계종 개혁을 이끈 4 · 10전국승려대회 15주년을 맞아 종단의 쇄신을 촉구하는 성명서가 발표됐다.

실천불교전국승가회(의장 법안, 이하 실천승가회)는 4월 10일 '1994년 종단개혁 정신은 반드시 계승돼야 합니다'라는 제하의 성명서에서 "종단 내부의 분열과 고질적이고 관행적인 구태로 인해 1994년과 다른 한 차원 높은 혁신을 요구는 실정"이라며 종단 차원의 종풍 쇄신과 변화를 촉구했다.

실천승가회는 "1994년 종단개혁의 성과와 이후 종단 현실에 대한 냉정한 진단과 성찰의 과정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종단개혁 15주년을 종단 구성원 모두가 점검 · 평가하는 참회와 정진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동섭 기자





"일방적인 관리 그만!"

조계종, 자연공법 개악 중단 및 국립공원정책 전환 촉구

"정부의 국립공원 정책은 행정편의적인 규제와 개발논리에 빠져있다. 사찰 소유지를 임차한 주민의 민원해소를 명분 삼아 케이블카 건설 등 생태관광을 추진 중인 현 정부의 수행환경 파괴책동은 중단돼야 한다."

정부의 국립공원 정책에 대해 국립공원제대개선추진위원회 등을 운영해 온 조계종이 파사현정(破邪顯正)의 각오로 맞설 뜻을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조계종 총무원 기획실장 장적 스님은 4월 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교계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환경부가 추진 중인 자연공원법 개악 중단 및 국립공원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장적 스님은 "봉축을 앞두고 있으나, 환경부가 추진 중인 국립공원 관련법은 종단 미래 정체성을 담보할 중요한 사안"이라며 "10년마다 있는 국립공원 구역 재조정으로 사찰 피해와 폐해가 30여 년 이어지며 삼보정재의 소유 · 관리권을 침해해왔다"고 강조했다.

국립공원 내 조계종 소유 토지는 8.8%다. 이는 해상 국립공원을 합친 통계로 육상 국립공원만의 경우 조계종 토지 비율은 훨씬 높아진다. 금액으로는 문화재청 임대료 기준 1690억원 상당이다.

스님은 "국립공원 구역 중 경관가치가 뛰어나거나 탐방객이 주로 이용하는 공간의 80~90%는 조계종 소유 토지"라고 설명했다.

국립공원에 대한 조계종의 입장은 단호하다. 한국불교가 1700여 년 동안 국립공원 주요 지역을 소유하고 가꿔왔고, 근래 국립공원지역에 편입되며 수행 · 문화환경을 개방했으나 정부가 이를 악용해 왔다는 것.

장적 스님은 "정부가 사찰 경내지를 일방적으로 국립공원에 편입 · 관리해왔다. 사찰의 관리권은 부정하면서도 국보, 보물 등 문화재 보존 · 관리에 관한 책임은 사찰에 떠맡겨 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조계종은 국립공원 소유 경내지의 자주권 확보와 문화재의 합리적인 보존과 관리를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조계종은 정부에 △천년고찰에 대한 자연공원법, 문화재보호법, 건축법 등으로 삼중, 사중 규제의 일원화 △국립공원구역 조정 및 자연공원제도 개선과정에의 불교계 참여 △사유지의 제외 등을 골자로 한 국립공원 정책의 전면 재검토 △문화재 보유 사찰 경내지가 다수인 것을 감안한 관할부처 조정 △케이블카 건설 등 생태관광 사업 중단 및 자연공원법 전면 개정 등을 촉구했다.

장적 스님은 "대정부 요구사항 공문 발송을 시작으로 청와대 국무총리 국회 등 관련부처와 면담에 나서는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활동에 나설 것"이라며 "필요시 위헌법률심판절차도 거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미리보는 연등축제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는 4월 5일 서울 동국대학교 만해광장에서 불기 2553년 부처님오신날 연등축제 총연습을 실시했다. 4월 26일로 예정된 연등축제를 위해 각 사찰의 연희단과 율동단은 입장 연습과 율동 연습으로 구슬땀을 흘리며 부처님오신날이 준비했다. 박재완 기자

시중 유통 금불상 60% 가짜

한국고미술協 감정결과 공개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금속불상 반 이상이 가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한국고미술협회(대표 김종춘)가 지난 3년간 감정한 결과에 따르면 금속 불상의 경우 118점 중 가짜는 74점(62.7%)으로, 10점 중 6점 이상이 가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협회는 위조 문화재의 생산과 유통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홈페이지(www.kacdb.com)에 감정결과를 공개하고, 진품과 위작을 담은 <한국 고미술품 감정 DB 도록>을 발간했다. 김진성 기자

"4대강 주변 문화재 훼손 위기"

변재일 의원, 문화재청 지표조사 결과 공개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4대강 주변 문화재가 훼손 위기에 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변재일 국회의원(민주당)은 4월 3일 "문화재청이 문화재 심의 보존여부를 판단하는 문화재위원의 구성규정을 대폭 완화하며 경제 · 언론계 종사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며 "이는 이명박 정부의 역점사업인 4대강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속도전'의 제도적 뒷받침으로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변 의원은 또 "4대강 주변 1036건에 달하는 문화재가 비전문가 의견에 따라 훼손될 위기에 처했다"며 "문화재위원의 자격기준을 법으로 규정해 개발로 인한 문화재 훼손을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재일 의원이 공개한 문화재청 지표조사(조사기간 1~3월)에 따르면 4대강 주변에는 제방과 제방 사이에 345건, 제방 바깥으로부터 500m까지 구간에는 691건 등 총 1036건의 문화재가 분포돼 있다.

김진성 기자

뉴스도 법회도 영상으로 만난다

인터넷 영상매체 '불영TV' 문열어

불교계 뉴스와 다양한 자료를 영상으로 만날 수 있는 불교영상 전문 사이트가 문을 열었다.

최근 문을 연 불영TV(불영.kr 대표 김봉환)는 불교계의 뉴스와 각종 행사는 물론 사찰 홍보, 법회 및 행사 중계, 성지순례 등을 중심으로 하는 인터넷 영상 매체다. 이 사이트는 기존의 뉴스 중심 사이트와 영상을 결합하되 영상에 대한 비중을 훨씬 높인 것이 특징이다.

불영TV는 종단 소식과 각종 법회 및 행사 정보를 포함한 불교계 뉴스는 물론 불교관련 영상물을 구매할 수 있는 기능도 갖추고 있다. 또 각종 행사지원과 프로그램 제작 사업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김봉환 대표는 "그간 불교계에는 영상과 뉴스를 함께 다루는 인터넷 매체가 없어 영상콘텐츠 축적에 소홀했었다"며 "영상 시대에 발맞춰 불교 영상의 질적 양적 발전을 주도하는 매체로 키워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연태 기자

운암 김성숙 40주년 추모재 봉행

10일, 국립현충원 임시정부요인 묘역서

사단법인 운암김성숙선생기념사업회(회장 민성진)는 4월 10일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 임시정부요인 묘역의 운암 선생 묘소에서 서거 40주년 기념 추모재를 봉행했다.

행사에는 봉선사 주지 인묵 스님을 비롯해 광복회 승병일 부회장, 국가보훈처 신영교 서울남부지청장 등 2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운암 김성숙 선생(태허 스님, 1898~1969)은 1919년 3 · 1운동 당시 봉선사 승려 신분으로 만세 운동에 참여해 2년간 옥고를 치뤘다. 이후 임시정부 국무위원, 조선민족전선연맹 선전부장 등을 지냈으며, 만해 스님 등과 함께 불교계 독립운동가 및 민족운동가로 추앙받고 있다.

글=조동섭 기자,사진=박재완기자



4월 10일 국립현충원에서 봉행된 운암 김성숙 선생 서거 40주기 추모재에서 정부대표로 참석한 국가보훈처 신영교 서울 남부지청장이 추모사를 하고 있다.

"하나님, 당신은 제게 경찰직을 주셨습니다"

전북덕진경찰서장 공무중 기도문 낭독

경찰서 직원교육시간에 '하나님 당신은 법을 준수하고 사회규칙을 지키는 이 직분을 주셨다'는 기도문이 낭독됐다면?

조계종 종교편향위원회(위원장 세영)는 4월 8일 전주덕진경찰서 이강수 서장의 종교편향 행위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제보된 내용에 따르면 3월 24일 부임한 이강수 총경은 4월 2~3일 전주덕진서 5층 대강당에서 전직원 480명이 참가한 직원교육시간에 기도문을 낭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기도문 낭독 외 이 총경은 5일 전직원에게 메일로 "제가 평소 늘 음미하고 있는 경찰관을 위한 기도문을 전해 드린다"며 "오 하나님! 당신은 법을 준수하고 사회의 규칙을 지키는 직분을 제게 주셨습니다. 공명정대함이 실천되게 하시어 사람들의 존경을 받게 도와주소서" 등 기도문 전문을 보냈다.

이에 대해 범불교대책위원회 관계자는 항의에 "평소 좋아하는 경전의 글을 인용했을 뿐이라며 종교차별 언행을 하지않았다고 오히려 반문했다"며 대응책을 모색 중 이라고 말했다.

종교평화위원회는 "4월 셋째 주중 항의공문을 보낼 예정"이라며 "최근 개정된 공무원법에 종교편향 금지 강제조항이 없어 공직자들이 안이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종평위 등 불교계는 이 서장과 관련 부처의 사과와 재발방지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지역 사암련 등과 서장 규탄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노덕현 기자

"홍안사 훼불사건 주동자 엄중처벌하라"

김해지역 불자들 사건해결 촉구 나서

'김해 홍안사 훼불사건'(본지 726호 보도)과 관련, 김해지역 불자들이 사건해결 촉구에 나섰다.

김해불교사암연합회와 김해불교신도회 등 12개 김해 지역 불교단체로 구성된 김해홍안사불교법난대책위원회(회장 조유식)는 4월 6일 김해 서부경찰서(서장 김정규 총경)를 방문해 성명서를 전달했다. 대책위는 성명서를 통해 "철저한 수사를 통해 불교법난의 주동자와 가담자들을 엄중처벌할 것" 등을 강조했다. 또한 훼불사건 주동자와 가담자들을 상대로 불상훼손에 대한 고소도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경찰측은 "한 점 의혹도 없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사찰 난입자들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겠다"며 "가담여부에 따라 처벌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9일에는 "대책위로부터 고발장을 접수받아 관계자들을 불러 대질심문 등을 펼쳐 사건 경위를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김해 홍안사(주지 보현)는 3월 30일 새벽 용역업체의 대웅전 무단 철거로 법당에 모셔져 있던 약 40여 년 된 관음보살상 등이 크게 훼손됐다. 김진성 기자

일천팔십명 이름 회전으로 사찰경제 중흥발원

"업장소멸 법륜대 탄생"

불교박람회(대구 벡스코)에서 많은 스님들과
불자님들께서 너무나 큰 관심과 성원을 주셨습니다.
지면으로 나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 달마사 청오 합장 –



□ 제품명: 천불봉안법륜대
□ 재 질: 대한민국 상감청자
□ 높이 110cm
□ 원통폭 45cm
□ 밑받침폭 30cm
□ 무게 25kg

불사의 어려움을 한탄하지 마시고
화주승의 마음으로 중생구제와
중생불사의 서원을 이루소서

지금 탁자 앞으로 길게 줄을 잇는 법당이 늘어 주목이 되고 있다. 촛대 좌우 법륜대에 천불이 봉안되어 가족과 자신의 이름을 달고 소망을 발원 하느라 눈을 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와 민족이 어려운 이때 돌릴때마다 한권의 경을 읽는 공덕은 물론 업장이 소멸되는 법륜대가 법당탁자에 봉안 되고 있다. 한바퀴, 또 한바퀴에 느껴지는 감동이 이어져 사찰 경제지킴으로 거듭 태어나고 있다고 한다.

■ 법륜대 예약 대축제
(달마사에 방문하여 신청해 주시는 분께 드리는 특별한 혜택)
1. 양쪽 1,080명 이름패 셋트
(1,500원×1,080명-162만원 상당)를 무상 혜택으로 드립니다.
2. 권선문 (120명×10권)을 드립니다.
3. 숲의 향기 그대로 묻어나는 청다향 코끼리 셋트(21만원 상당)를 드립니다.
4. 년중 4회 분납(대금비 별도)으로 수월하고 편안한 지불이 불사를 도웁니다.

■ 수작업 수량 한계로 접수순 봉안하여 드립니다.



불사에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중생의 업장을 소멸하도록 업장소멸 법륜대를 소개해 드립니다.
최소비용으로 중생불사 동참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탁발 하듯 한분 한분 5,000원이 일년 6,000만원으로 사찰경제 기반이 되는 법륜대 입니다.

덕유산 우리 숲 청다향 055)941-1083 / 010-4595-0017
생산지 : 경남 거창군 고제면 개명리 1156-4 달마사

"한쿡불교 배우러 와써요~"

조계종 '제1회 외국인 스님 한국불교연수'

한국불교를 배우기 위해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스님들을 위한 수련회가 처음 열렸다.

조계종 사회부(사회부장 세영)는 4월 7~9일 2박 3일간 공주 마곡사 인근 한국불교전통문화센터에서 '제1회 외국인 스님 한국불교연수'를 개최했다.

연수에 참가한 러시아, 미국, 리투아니아, 몽골, 스리랑카, 티베트, 방글라데시 등 15개국 29명의 스님들은 한국불교를 배우고, 한국사회에서 외국인 스님으로서의 역할을 고찰하는 자리를 가졌다.

첫 날 입재식을 시작으로 참가자들은 한국불교를 공부하게 된 각자의 인연과 자국 불교현황을 소개하는 자리를 가졌으며, 화두참선 후 학생비자와 종교비자 발급 등 출입국 규정과 이주민센터 활동지원책 등을 안내받았다. 이중 출입국 규정 소개는 그동안 몰랐던 비자변경 등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는 등 참가스님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세계 각국의 스님들이 화두참선으로 한국불교를 느끼고있다.

둘째 날에는 마곡사 참배를 시작으로 한국불교 전래과정과 현재 종단 구성, 조계종과 승가 교육체계, 사찰과 탑 구조를 통한 한 · 중 · 일 동북아불교 비교강좌가 진행됐으며, 정림사지와 무령왕릉 등 백제불교문화권 답사도 이어졌다.

이날 승가대학 등 각 지역에서 혼자 공부하던 스님들은 고국 도반 스님들을 만나 불교공부에 대한 열의를 더욱 다졌으며, '외국인 수행자의 역할' 토론회를 통해 그동안 접하지 못했던 남방과 대승, 서양불교권의 활발한 교류도 이어졌다.

연등국제선원에서 온 키르기스스탄 일조 스님을 비롯한 참가 스님들은 "다른 여러 외국인 스님들과 한국불교를 논하는 이런 자리는 한국생활에서 드문 경험이다. 다양한 토론과 논의로 수행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며 원력을 다졌다.

한국불교소개와 조계종 안내 등을 직접 진행한 사회국장 재경 스님은 "이번 연수를 통해 한국불교를 알고, 각국 불교교류를 다져 불법이 더욱 펼쳐지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며 "매년 연수를 개최하고 보다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불교를 배우기 위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 스님은 3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계종에서 초청해 조계종 사찰에 기거하며 선을 배우는 스님부터, 종단을 망라해 은사 스님을 따라 한국에서 불교를 배우는 스님, 동국대와 금강대 등에서 학술교류를 위해 체류하는 스님까지 그 구성은 다양하다.

노덕현 기자 dhavala@buddhapia.com

지하철·철도역서 만나는 '잔잔한 감동'

풍경소리, 오근장역 시작으로 전국 300여 역에서 글 전시회

숨쉬기도 바쁜 세상이다. 한 줌의 여유도 없는 도시인들에게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 부설 법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모임 풍경소리(대표이사 혜자 · 도선사 주지)가 희망과 여유를 전달한다.

풍경소리는 4월 1일 충북선 오근장역, 동해선 강릉역을 시작으로 전국 300여 지하철(서울, 수도권,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과 철도역사에서 경구와 부처님의 말씀에 근거한 작가의 글 전시회를 개최한다. '지하철 · 철도를 이용하는 고객님께 명상의 시간을 드립니다' '나를 찾는 지혜'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전시회는 △지하철은 4월 6일 대구지하철 대곡역을 시작으로 30개 역사, 4월 13일 서대전네거리역을 시작으로 24개 역사, 5월 18일 평택역과 녹양역을 시작으로 수도권광역전철 51개 역사, △서울도시철도공사소속 5, 6, 7, 8호선은 5월 4일 암사역을 시작으로 63개 역사 △서울메트로 1, 2, 3, 4호선은 4월 20일 홍익대역을 시작으로 70여개 역사에서 연말까지 총 300여 회가 진행된다.

풍경소리 이용성 사무총장은 "그동안 쉽고 편하게 불법을 전하는 포교매체로 평가 받아 2004년부터 연 10여 회씩 개최해오던 전시회를 지난해 서울메트로 및 서울도시철도공사 소속 70여 개로 확장한데 이어 올해 300여 곳에 개최하게 됐다"며 "지난 10년간 발행한 포스터 중 최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중들에게 희망의 메시지와 위기를 극복하는 지혜를 담은 글을 선정했다"고 전했다.

한편, 10주년을 맞이한 풍경소리는 지하철 이용시민을 대상으로 풍경소리 인지도, 호감도, 종교에 대한 생각 등을 설문조사해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새로운 포교전략을 구상한다.

이상언 기자

도선사 위탁 운영 강북 청소년 지원센터 개소식

경제 위기로 인한 가정해체 등으로 위기청소년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청소년 상담전문기관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조계종 도선사(주지 혜자 스님)가 위탁 운영하는 서울시립강북청소년수련관에 청소년지원센터(관장 김준기)가 문을 열었다.

청소년지원센터는 4월 8일 강북청소년수련관 난나 소극장에서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강북구 내 지역자원과 연계해 현장중심, 맞춤형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한다.

혜자 스님(사회복지법인 혜명복지원 이사장)은 축사에서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청소년지원센터를 개소한 것은 기쁜 일이다"며 "깨달음으로 하나돼 자비 광명이 함께 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개소식에는 혜성 스님(사회복지법인 혜명복지원 상임이사), 혜자 스님, 김현풍 강북구청장 등이 참석해 축하했다. (02)993-1388



도선사 위탁운영하는 서울시립강북청소년 청소년지원센터가 4월 8일 개소식을 개최했다. 왼쪽에서 네번째부터 혜성 스님, 혜자 스님.

이상언 기자

(사)지혜로운여성 여성을 위한 리더십 교육

불교여성개발원 산하 기관인 (사)지혜로운여성(이사장 이은영)이 일하는 여성을 위한 리더십 교육을 실시한다.

4월 28일~6월 30일 매주 화요일 오후 7~9시 템플스테이 통합정보센터 3층에서 실시된다.

'여성의 지혜로 세상의 빛을'을 주제로 열리는 교육은 불교적 상생의 이념에 기초해 일하는 여성의 조화로운 자기계발과 사회적 관계 발전을 위한 참여, 실습위주의 리더십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교육은 △참나와 만나는 여행 △우리와 나, 관계발전 전략 등을 주제로 열린다. 강사는 여성인재개발센터장 황수경(동국대 선학과 강사), 초의차명상원장 지장 스님(대원정사 주지), 나무여성인권상담소 김영란 소장 등이다. (02)722-2101

이상언 기자

센스 있는 오빠 언니들의 '끼와 재주' 신바람

서울 · 경인지역 사찰 청소년 연합법회 개최

서울 · 경인지역 사찰 청소년들이 참된 청소년 불자를 발원하고 끼와 재주를 선보이는 화합의 한마당이 펼쳐졌다.

4월 5일 조계종 포교원(원장 혜총) 주최, (사)파라미타청소년협회(회장 도후)가 주관한 서울 · 경인지역사찰 청소년 연합법회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예술공연장에서 봉행됐다.

법회 현장은 300여 명의 서울 · 경인지역사찰 청소년들의 열기로 가득했다. 청소년들은 1부 법회에서 함께 반야심경을 봉독하고 발원문을 낭독하며 참된 불자로 대한민국의 대들보가 될 것을 발원했다.

파라미타청소년협회 상임이사 상인 스님은 법문을 통해 "학업의 중압감에서 벗어나 흥겹고 재미있는 연합법회를 통해 부처님의 세계에 한 발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법회에 이어 서울 봉은사, 화성 신흥사, 서울 능인선원, 서울 조계사 청소년들이 주말마다 틈틈히 준비한 풍물공연, 댄스, 개그 공연 등의 장기 발표와 B-BOY 초청 공연이 진행됐다.


(사)파라미타청소년협회는 4월 5일 서울 · 경기 연합법회를 봉행했다. 능인선원 청소년법회 법우들이 난타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이상언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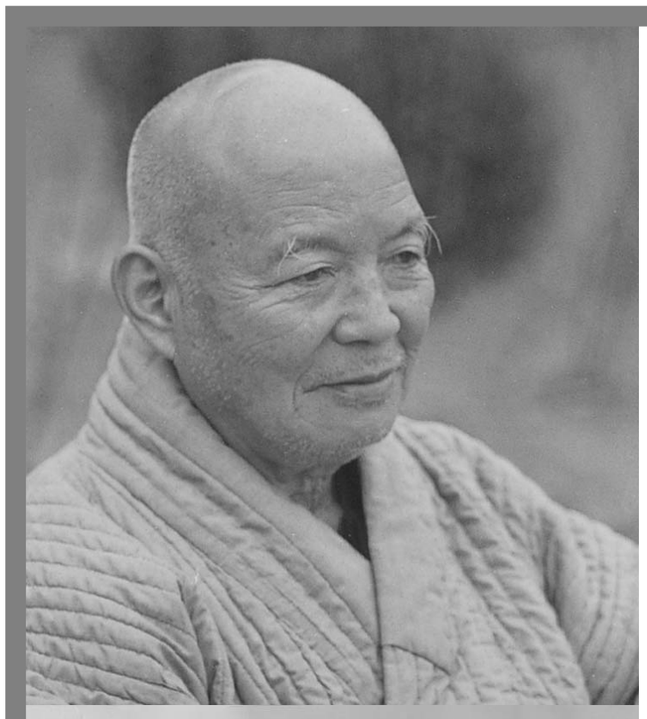
신행게시판

●담마코리아 '위빠사나 수행'=담마코리아는 경북 상주 푸른누리에서 집중 위빠사나 수행을 실시한다. 4월 18~29일, 5월 13~24일, 6월 17~28일, 7월 1~12일, 7월 17~28일 진행되는 집중수행은 S.N. 고엥까 법사의 육성 녹음테이프로 지도, 한다 (054)536-9820

●위빠사나선원 수행지도 특강=위빠사나붓다선원은 4월 23~27일 충남 전동면 붓다라마 (구 지장사)에서 집중수행, 니까야에 근거한 수행지도 <대념처경> <아나빠나삿띠> 특강을 실시한다. 동참비는 10만원으로 선착순 15명 접수가능. (041)868-31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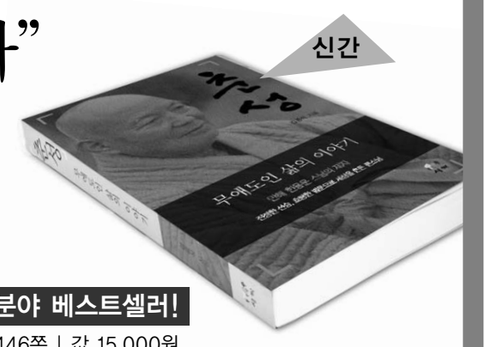
●불교 TV무상사 '법화경' 산림 대법회=불교TV 무상사는 9월까지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 30분 무비 스님의 <법화경> 산림 대법회를 실시한다. 누구나 참가가능하며 교재는 무상으로 보시. (02)3270-3300

●서울 육조사 '선에 눈뜨는 강설, 서장' 진행=서울 육조사는 4월 9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육조사 선방에서 '선에 눈뜨는 강설, 서장(書狀)'을 진행한다. 선원장 현응 스님의 직강으로 진행되며 동참비는 20만원. (02)925-0408


춘성(1891~1977)은 근 · 현대불교 격랑의 중심지에서 승려로 그에게 주어진 길을 묵묵히 걸어갔던 자유인이었다. 그리고 한용운의 상좌로, 백용성과 함께 『화엄경』사상을 전하였던 화엄법사로, 덕숭산 끝자락에서 장좌불와하였던 수행자로, 시대의 선승 만공회상에서 참선 수행을 하였던 간화선 수행자로, 도봉산 망월사에서 수좌들을 지도하였던 어른으로, 저자거리에서 부처님 말씀을 원색의 언어로 전하였던 스님으로, 수많은 보살들을 부처님 세상으로 이끌었던 큰스님이었다.
춘성 스님은 걸망에 죽비 하나, 빼놓은 틀니 하나, 주민등록증, 그리고 빤스 하나 남기고,
이 세상을 떠난 무소유의 실천자 였다.

"목에 총을 들이대고, 선지식 한 명을 고르라면 **춘성 스님**을 꼽겠습니다"
-무비 스님 | 전 조계종 교육원장

춘성 —무애도인 삶의 이야기



교보문고 종교분야 베스트셀러!
김광식 지음 | 446쪽 | 값 15,000원

만해 한용운의 제자
진정한 선승, 호탕한 법문으로 세상을 흔든 큰스님

"갈 때도 無! 올 때도 無! 항상 無 하세요" -조선일보
무애 선승 춘성 '거침없는 무소유' -한겨레신문
"나, 중(僧)대장 이다" -경향신문
"걸출하고 막힘없던 춘성 스님, 신라 때 태어났다면 딱 원효" -문화일보
"내 본적은 살았다 죽었다 하는 XX야" -오마이뉴스
"대자유인 춘성 스님, 역사가 되다" -불교신문
"격외 언어로 禪心 일깨운 참 스승" -법보신문
"불교와 승려 본연의 자세를 찾아서" -강원일보

그 어른이 살았던 행적은 결코 지워버릴 수 없어. 꺼지지 않는 불길이지. 춘성 스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거기에 뜻이 있어요. 내 평생 그런 인상을 받은 분이 없어요.
-우송 스님 | 덕숭총림 수덕사 유나

노스님을 생전에 지근에서 모시고 수행했던 선객들이나 신도들은 한결같이 천하제일의 도인이라고 하는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불교사에서 이만큼 수행을 철저히 하시고 무애자재하신 도인인
춘성 노스님 같은 분이 현대사에서는 달리 없다고 하겠습니다.
-효림 스님 | 성남 봉국사 주지 · 시인

이 책을 손에 잡는 순간, 춘성 큰스님에게 합장 삼배하고, 단숨에 경(經) 읽듯이 정신을 오로지하여 독파해 버렸다. 명작 영화 한편을 보는 법열을 느꼈다.
-알라딘 독자 | 보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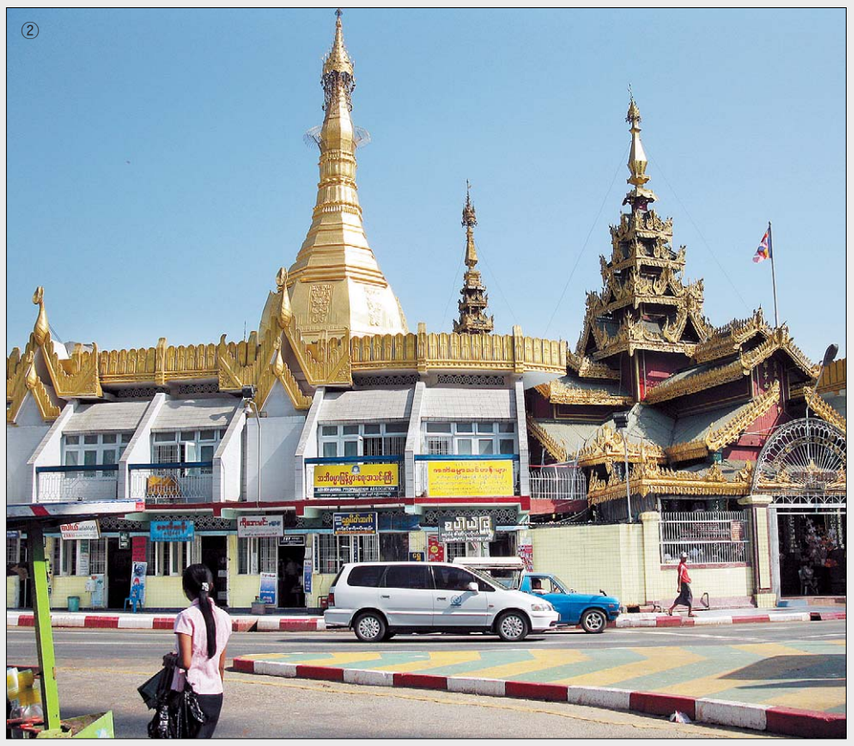
전화 : 02)335-7883 팩스 : 02)335-7858 민족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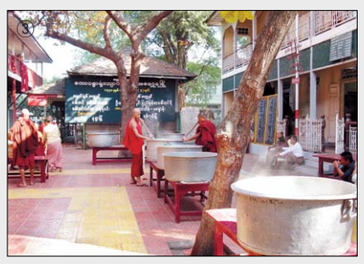


특별기고
윤소암의
미얀마 라오스 문화기행 ①

세속에 때묻지 않은 천상의 음악 울려







① 만달레이힐의 거대한 석사자상.
② 미얀마 양곤의 중심지, 술래 파고다.
③ 마하간다용 짜용 대사원의 한말들이 밥통.

다섯 번째 경전 결집한 성지 만델라이, 미얀마 불교의 대본산
수백명 승려들 탁발 '진풍경'… 우포야신 사원 암자 400개

#미얀마 관문 양곤의 첫 인상

오랫동안 꿈꾸던 미얀마, 라오스 여행은 난행 고행의 여정이었다.

적은 비용으로 혼자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배낭여행이 무척 매력적이지만 모험을 이겨낼 각오와 용기가 있어야 하며 즐거움과 동시에 고통이 뒤따르는 일이므로. 그러나 나는 중국 20년, 인도 15년 배낭여행의 경험을 살려 사회주의 국가 불교국가로 알려져 있는 이 두 나라의 역사와 문화전통, 자연환경과 그 나라 국민들을 직접 확인하고 체험하고 싶었다. 용맹정진하는 마음으로 말이다.

전날 밤 태국 수완나폼 공항 의자에서 뜬 눈으로 지새우고 새벽 5시 미얀마 탑승수속을 했다. 예상한 대로 정시에 떠나지 않고 2시간 더 지체한 다음 이륙한 소형비행기는 1시간 뒤 전 수도인 양곤에 도착했다.

서너 시간 동안 어떤 미얀마 아가씨와 대화를 많이 나눴다. 그는 한국에 가서 몇 년 일하고 싶다고 했고, 아웅산 수지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약간 흥분해서 군사정권을 못 마땅히 여겼다. 지난날의 나를 연상시키는, 정의감이 강하고 부패한 기득권에 반발하며 시민사회단체 활동에 적극적인 민주화 투사를 닮았다.

약간의 사례비와 한국에서 가져간 침낭, 볼펜 등을 선물하고 아가씨와 작별했다. 이제는 혼자서 여행을 해야만 한다. 돈이 넉넉하다면 가이드를 데리고 다닐 수도 있지만 하루에 2백불이 드는 그런 여행은 민주화 운동과 불교 글쓰기, 배낭여행의 경력이 전부인 나에게는 사치이며 또 그럴 여유가 없다. 걸어서 찾아간 곳은 술래파고다, 양곤 시내의 중심지역이며 큰 시장이 있는 배낭여행객의 메카로 보면 된다.

영국 식민지 시절에 조성된 이 거리는 술래파고다를 중심으로 여러 개의 반듯한 블록으로 이뤄져 있어 길과 건물을 찾기가 쉽다. 마치 종로 파고다를 연상시키는 술래파고다는 십자로타리의 원형 건축물이다. 1층에는 상가와 불교용품점이 있고 2층은 사원으로 참배객들이 끊이지 않는다. 서둘러 탑 한 바퀴를 돌면서 참배하고 밖에 나와서 사진 몇 컷을 찍었다. 20분 동안 걸어서 숙소로 돌아오느라 속옷이 땀에 흠뻑 젖었다.

샤워를 하고 휴식을 취했다. 저녁에는 시장 통을 산책하면서 간단한 요기를 했다. 인도인거리와 차이나타운이 낮에는 대단히 붐비다가 저녁에 일찍 철시함으로 썰렁한 분위기다. 낮과 밤의 거리풍경과 풍습은 이곳의 거리가 중국과도 다르고 여느 동남아와도 다른 인도도시와 비슷하다.

먹을거리에 관한 푸짐한 인심을 느낄 수 있어서인지 낮에 본 시장 통은 온통 먹을거리가 지천이었다. 떡, 과일, 과자며 고기, 야채 국수가 싼 값에 거래되는 것을 보았다. 사회주의를 표방한 군사독재국가로서 민주주의는 열악하지만 생필품이 풍부한 풍경은 나중에 여행을 마칠 때까지 이어졌다.

#다섯 번째 경전 결집 한 성지

15시간 반이나 걸려서 양곤에서 691㎞나 떨어져 있는 만달레이에 도착했다. 새벽 3시 사이클을 타고 숙소로 옮겼다. 캄캄한 밤중이라 가이드북에 적혀있는 대로 값싸고 깨끗한 숙소를 원했지만 아침에 일어나보니 주위가 산만하고 탁한 공기가 코를 찔렀다. 양곤에서처럼 변두리가 아닌 중심가는 정제가 덜 된 엔진유를 쓰다 보니 숲으로 뒤덮인 국가 임에도 혼탁하고 냄새가 역했다.

만달레이는 두 번째 큰 도시로 인구는 100만 명이며 마지막 왕조로서 영국과 3차에 걸친 60년 전쟁 끝에 식민지가 되었다. 지리적으로 미얀마의 중앙에 위치한 만달레이는 비운의 땅인 셈이다.

옛 수도답게 불교 승려의 60%가 이곳에 상주하고 사찰과 승가대학이 대부분 큰 규모를 자랑한다. 아침을 간단하게 먹고 만달레이 언덕에 올라갔다. 3인승 자전거를 대절해서 가능한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봐야했으므로 도보여행은 맞지 않았다.

입구에는 초대형 사자상이 압도적이다. 여기에서 10달러를 내면 만달레이 전 유적지를 볼 수 있다. 954계단의 높은 회랑을 오르면 산 정상, 서울 남산보다 약간 높은 곳에서 만달레이 전 시가지가 한 눈에 보인다. 산정상의 면적은 얼마 안 되지만 이곳에 오르는 길과 회랑이 사방으로 나눠 있어 웅장한 사원건축을 엿보게 한다.

전설 같은 이야기지만 1800년대 산정상에 사찰 불사의 원력을 품은 우칸디 스님이 지역사찰의 승려와 주민들의 반대로 절을 못 짓자 맞은편 산에 살고 있던 왕 코브라가 스님을 도와서 불사를 원만하게 마칠 수 있었다 한다. 쉐야토 사원은 만달래이 여행의 필수코스로 석양이 아름다운 곳으로 정평이 나 있다.

큰 뱀 신앙은 토속신앙의 토템으로 불교가 들어오기 전 원주민 신앙의 일환으로 보면 되고 코브라가 도왔다는 것은 곧 원주민들의 협조를 의미한다. 동남아시아 전 지역의 사찰과 사당에서 이와 같은 큰 뱀 신앙이 중국으로 가서 용 신앙이 되었을 것이다. 뱀과 용은 다 같이 남방지역과 물을 상징하며 왕뱀, 나아가서는 수호신으로 승천하는 용의 원조가 아닐까 싶다.

만달래이 힐 바로 아래의 구도도 사원은 1859년에 건립된 절로써 2400명의 스님들이 6개월에 걸쳐 경전을 열람하고 대리석에 새겨 729개의 탑 속에 모셨는데, 인도에서 총 네 번의 경전결집이 이루어졌고 마지막 다섯 번째 경전결집이 이루어진 불교역사에 길이 남을 성지이지만 한국불교에는 별로 알려져 있지 않는 곳이다. 중국 등 북방대승불교를 선호할 뿐 남방소승불교는 외면하는 까닭일 것이다.

729개의 대리석에 경전을 새기는데 무려 7년 5개월이 걸릴 만큼 대작불사였을 뿐 아니라 탑의 숲에 들어온 것처럼 백색탑이 황금보탑을 중심으로 도열해 있는 모습은 불가사의하게 보였다. 바로 옆에 대불사를 이룩한 아타나루카 대왕과 타야디킹의 공덕비가 작게 보였다.

참배하고 나오다가 광장에서 참배객을 만났다. 이상한 것은 그의 어린 딸들이 치마저고리를 입고 있어 촬영했다. 끝동마저 우리의 한복과 흡사해서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다.

복식학을 연구하지 않았지만 문화인류학의 시각으로 보면 치마저고리, 옛 여성들의 쪽진 머리, 초가집 풍경, 쌀농사 등은 분명 남방문화이며 인도와 미얀마 등을 거쳐 우리에게 유입된 문화라고 본다.

#만델라이, 미얀마불교의 대본산

캬도지 템플은 200년 된 옥불사원으로 유명하다. 백옥으로 빚은 아담한 부처님이 무척 단아하고 아름답다. 바닥 역시 각종 대리석으로 깔아놓아 무더위에 지친 사람들에게 안식과 평화를 준다.

쉐난도 목조 법당은 도서관, 박물관을 겸한 곳으로 150년 된 티크 목재가 고색창연하다.

마하무니 사원은 거대한 황금불상으로 영험하기로 소문 나 있어 신도들의 행렬이 끊이지 않는다. 나도 금박 1통을 5달러에 사서 부처님 발목에 붙여보았다. 사방으로 회랑을 가진 큰 사원이다.

그 다음 날 시내에서 삼십분 거리에 있는 아마라푸라 지역의 불교 본산이며 최대 수도원인 마하 간다용 짜용 대사원에 갔다. 가는 도중 비구니 스님들의 아침 탁발 행렬과 염불은 참으로 감동적이었다. 눈을 잠시 감고 들으니 최고의 명상음악으로 세속에 때 묻지 않은 천상의 음악이었다. 그 후 몇 차례 더 미얀마 비구니 스님들의 염불을 듣고 CD를 구하려 애썼지만 끝내 구하지 못해 아쉬웠다.

오전 9시에 도착해서 대도량을 여기저기 돌아다녔다. 초 · 중 · 고등 승가대가 함께 1200명의 대중들이 있어 여러 개의 블록으로 나뉘어져 있다. 강당, 승원, 불당, 식당, 목욕탕이 사방으로 흩어져 있었다. 속옷을 입고 샤워하는 개구쟁이 학동들의 모습은 내어릴 적 십대 사미승과 같았는데 촬영해도 문제가 없었다.

10시가 넘어 가장 큰 식당에 가니 벌써 외국인들이 많이 모여들고 조금 있으니까 수백 명의 승려들이 줄지어 신도들이 마련한 점심공양 탁발을 하기 시작했다. 쌀 한 말이 족히 들어갈 거대한 밥통이 여기저기 놓이고 후원에는 수백 명이 먹을 수 있는 거대한 밥솥과 국솥이 보인다.

한참 서서 보고 있으니까 한국인과 유사한 몽골리안 미얀마 승려가 교통정리 하는 게 눈에 띄었다. 다가가서 물어보니 그는 교수 겸 학감을 맡고 있는 주띠파라 스님으로 한국에서 왔다고 하니 매우 반가워했다. 작년에 오대산 상원사 등지로 2개월 방문한 친한(親韓) 스님이었다.

대사원 뒤에는 큰 강이 흐르고 150년 된 티크목다리가 1.2㎞나 연결되어 있었다. 튼튼하고 아름다운 목재다리다. 점심 공양 후 인근의 스카이시티 쑤앙우포야신 불교사원은 1000명 승려에 400여 암자, 200개의 파고다가 있는 만달래이 최고 명승지의 하나로 오르 내리느라 땀깨나 흘렸다. (계속)

시인, 동아시아불교문화연구소장



이웃 종교 RELIGION

‘대각개교절’ ‘부활절’ 행사 다채

원불교 · 기독교 경건한 명절나기

5월 2일 부처님오신날이다. 원불교 등 이웃종교에서도 불교계의 봉축만큼 큰 행사가 이어져 눈길을 끈다.

#4월 28일 대각개교절



4월 28일은 원불교의 4대 기념일 가운데 가장 큰 기념일인 대각개교절(大覺開敎節)이다. 대각개교절은 원불교를 창시한 소태산(少太山) 박중빈 대종사(朴重彬 · 1891~1943 · 사진)가 우주의 진리를 ‘크게 깨달아(大覺), 원불교를 새로 연(開敎)’ 날을 기리는 원불교의 경축일이다.

원불교는 대각개교절 94주년을 맞아 ‘모두가 은혜입니다’를 주제로 1일부터 5월 5일까지 봉축기간 동안 국내외 각 교당과 기관에서 법잔치, 은혜잔치, 놀이잔치로 각종 경축행사를 전개한다.

또 보은, 상생의 행복공동체 기반 조성을 위해 24~26일 익산시 중앙체육공원에서 축제를 여는 것을 비롯해, 4월 한 달간 전국 500여 개 교당에서는 무료 시술과 어려운 가정을 돕는 행사도 이어진다.

28일 대각개교절에는 전북 익산시 원불교 중앙총부 반백년기념관을 비롯한 전국 교당에서 소태산 대종사의 탄생과 원불교의 개교를 경축하고 기념하는 의식을 거행한다.

원불교의 창시자인 박중빈 대종사는 1891년 5월 5일 전남 영광에서 평범한 농민의 아들로 태어나 유년기부터 자연현상과 인생의 이치에 특별한 의문을 품고, 도(道)에 발심해 20여 년간 구도고행을 계속하다 1916년 4월 28일 큰 깨달음을 이루었다.

깨달음을 이룬 후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는 개교표어 아래 미신타파, 문맹퇴치, 저축조합운동을 전개하며 정신과 물질이 조화롭게 병진되는 새 문명세계를 건설하기 위해 원불교의 교문을 열었다.

#4월 12일 부활절

12일 부활절을 맞은 개신교와 가톨릭계의 행사도 다양했다.

‘예수 부활 대축일(부활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춘분(春分)이 지난 만월(滿月)이후의 첫 주일을 정하는 까닭에 매년 부활절 날짜가 다르다.

12일 가톨릭과 개신교는 ‘예수부활대축일미사’ ‘한국교회부활절연합예배’ 등 경축행사를 진행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 교구장 정진석 추기경은 11일 ‘부활성야미사’와 12일 ‘예수부활대축일미사’를 명동대성당에서 집전했다. 이어 전국 1600여 성당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뻐하는 미사가 진행됐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엄신형 목사)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 김삼환 목사)는 4월 12일 새벽 5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서울시청 서울광장에서 ‘2009 부활절 연합예배’를 개최했다.

준비위는 이 행사를 통해 ‘부활과 희망’을 주제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곤란을 겪는 국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나은 기자

故 김수환 추기경 49재 추모미사

정진석 추기경 “김 추기경이 남긴 가르침 실천하자”

“故 김수환 추기경님은 ‘고맙습니다. 서로 사랑하세요’라는 말씀을 남겼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서로에게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4월 5일 故 김수환 추기경 49재일과 ‘주님수난성지주일(受難聖枝主日)’을 맞아 서울대교구 용인공원묘지 내 성직자묘역(용인시 처인구 모현면)의 김 추기경 묘소에서 추모미사가 봉헌됐다.

이날 미사에는 신자 1000여 명이 참례해 故 김수환 추기경의 영원한 안식을 기원했다.

행사에서 정진석 추기경은 미사 시작에 앞서 “김수환 스테파노 추기경께서 우리에게 남긴 감사와 용서와 사랑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생활 속 실천을 다짐하자”며 “믿음과 열성을 다해 주님의 입성을 기념하고 은총을 통해 주님의 부활과 그 생명에 동참하도록 합시다”라고 말했다.

한식을 맞아 성묘를 위해 용인공원묘원을 찾았다가 미사에 참례한 이들도 많았다. 김수환 추기경 장례 이후 용인공원묘원을 찾은 참배객은 4월 5일자로 3만 5000여 명으로 집계됐다. 이나은 기자

“부처님 자비 온누리에 나눠요”

장애인의 날 가정의 달 맞아 불교단체들 다채로운 행사 마련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불교계는 제등행렬과 연등축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다.

4월 20일 장애인의 날과, 5월 2일 부처님오신날과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불교계 복지관 및 단체들도 펼치는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맑고 밝은 봉축 분위기를 우리 사회 곳곳에 전달할 교계 단체들의 프로그램은 자비나눔 운동의 일환으로 펼쳐지고 있다.

조계종(총무원장 지관)과 아름다운동행은 4월 11일 저녁 서울 조계사, 대구 동화사, 경남 양산 통도사에서 ‘저소득 · 실직가정 난치병 어린이 돕기 3000배(1배 100원) 정진기도’를 봉행했다.

이번 행사는 난치병으로 고통 받는 어린이들과 수술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 실직가정의 난치병환아들의 쾌유를 기원 · 지원하기 위해 1배 100원 모금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올해 9회를 맞는 2009년 행사는 그동안 서울 조계사에서만 진행했던 것을 대구 동화사(주지 허운), 양산 통도사(주지 정우) 등에서 함께 진행돼 눈길을 끌었다.



2007년 조계사에서 열린 3000배 정진기도 모습.

3000배 정진기도 행사는 매년 약 5000여 만원의 기도모금을 통해 30여 명의 난치병 어린이들의 치료비와 수술비를 지원해 왔다.

아름다운 동행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향후 전국적인 이웃을 위한 기도와 모금프로그램으로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봉축위원회(02-2011-1892)는 4월 1일~ 5월 2일 보훈병원, 경찰병원, 국립의료원, 동국대병원 등에 연꽃등을 보급한다. 병원불자회와 각 병원 법당에 연꽃등을 걸고 병실에 연등을 전달한 행사는 봉축의 기쁨을 병원 병동마다 전하며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 · 02-734-8050)는 4월 20~30일 생명나눔신청자들 중 지원의 손길이 미치지 못했던 환자들을 위한 자비의 쌀 나누기 행사를 펼친다.

연등과 함께 우리 사회 구석구석을 밝히자는 운동은 조계종 중앙신도회(회장 김의정 · 02-733-7277)에 의해서도 전개된다. 조계종 중앙신도회는 4월 14일~5월 9일 인사동 일원에서 이웃을 위한 희망의 등 달기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장애인들을 위한 행사도 마련됐다. 사회복지법인 연화원(이사장 해성 · 02-2202-5831)은 4월 17일 장애인들과 함께 군부대를 견학하고 체험한다.

원심회(회장 김장경 · 02-720-4528)는 4월 18~19일 장애인들과 함께 충북진천 보탑사를 방문한다.

조계사(주지 세민 · 02-732-2115)는 4월 23일 독거노인, 군장병, 재소자에게 자비의 선물 전달식을 개최한다.

이나은 기자 bohyung@buddhapia.com

“다문화가족 자녀는 민간 외교관”

보건복지부 다문화가족 지원책 내놔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4월 2일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다문화 감수성을 가진 이중언어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문화 언어교실’을 지원할 뜻을 밝혔다.

전재희 장관은 “다문화가족 자녀는 한국과 외국인 부모간의 출신국을 잇는 잠재적인 민간 외교관”이라며 “이번 사업을 시작으로 다문화가족 자녀들에 대한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영어권 국가 출신 다문화가족이 외국인 부모의 모국어 사용을 금기시하는 분위기를 개선하고 이중언어 사용이 다문화 감수성을 가진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주력하겠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 불교계 다문화관련지원 복지단체들도 한국어교실프로그램을 지원해 눈길을 끌고 있다.

금오종합사회복지관(관장 법등 · 054-458-0230)은 구미지역 내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가정 20세대를 대상으로 한글교실(집합지도 및 방문지도)를 운영 중이다.

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관장 진오 · 054-439-8280)는 김천지역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무료로 수준별 한국어교육을 지원한다.

꿈을이루는사람들(관장 진오 · 054-443-0755)에서 운영하는 다문화 교실은 다문화 가정의 아동과 한국 아동을 대상으로 한국어, 영어, 일어 등 외국어교실과 다문화 이해 교실 등을 운영 중이다.

이나은 기자

전등사기 게이트볼 대회 ‘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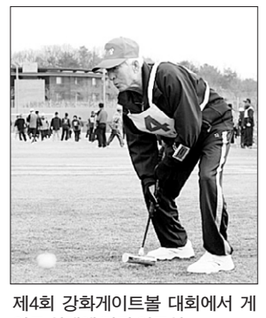
혜경 스님 “5회부터 경기코트 늘릴 것”

강화 전등사(주지 혜경)은 4월 3일 강화공설운동장에서 ‘제4회 전등사기 강화게이트볼 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에는 지역 어르신 1000여 명이 참석해 게이트볼로 불심을 다졌다. 또한 동국대 일산병원 의료진의 무료진료와 전등사 신도회의 음식봉사는 큰 호응을 얻었다.

전등사기 게이트볼 대회는 지난 2006년 첫 대회 이후 4회째를 맞는 지역 축제다. 이번 대회만 해도 79개 팀이 참가했을 정도로 열의가 높다.

4회대회에서는 교동면 지석리 팀이 우승을, 불은면 덕성리B 팀이 준우승을 차지했다.



제4회 강화게이트볼 대회에서 게이트 삼매에 빠진 어르신.

혜경 스님은 “지역 주민의 지원과 관심으로 강화에서 가장 큰 축제로 발돋움했다”며 “5회 대회부터는 경기코트를 늘려 100개 이상의 팀이 참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탈 종 공 고

◇사찰명 : 금강정사
주지 : 지웅 (권영로)
주소 : 경남 양산시 하북면 백곡리 255-2번지

◇사찰명 : 관음사
주지 : 원공 (공유철)
주소 : 경남 통영시 북신동 138번지

◇사찰명 : 봉경사
주지 : 아산 (이옥례)
주소 : 경북 경산시 와촌면 음양리 산183번지

◇사찰명 : 금강선원
주지 : 법전 (김기영) / 지성 (박순덕)
주소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우암동 395-17번지

◇사찰명 : 운암사
주지 : 운암 (황영규)
주소 : 경북 칠곡군 동명면 학명리 306번지

◇사찰명 : 불광사
주지 : 청봉 (김정헌)
주소 : 경남 양산시 주진동 656번지

◇사찰명 : 성덕암
주지 : 지오 (김영규)
주소 : 경남 양산시 명동 781-21번지

◇사찰명 : 원효암
주지 : 운오 (임복균)
주소 : 경남 양산시 평산동 567-6

◇사찰명 : 우리불원
주지 : 일오 (박성훈)
주소 : 경남 양산시 북구동 696-6 (3층)

◇사찰명 : 지장사
주지 : 현오 (김태성)
주소 : 울산시 울주군 웅촌면 옥천리 536번지

◇사찰명 : 관음사
주지 : 운산 (이길낙)
주소 : 울산시 남구 두왕동 648-5번지

◇사찰명 : 소원사
주지 : 월오 (황월오)
주소 : 부산 기장군 정관면 용수리

◇사찰명 : 옥련암
주지 : 혜명 (강일선)
주소 : 울산 울주군 법서읍 서사리 437-4번지

◇사찰명 : 약사사
주지 : 법련 (심성회)
주소 : 부산 해운대구 재송1동 1080-4

◇사찰명 : 용학사
주지 : 호산 (신성호)
주소 : 경기 고양시 덕양구 북한동 240

◇사찰명 : 도경사
주지 : 도경 (오세광)
주소 : 부산 서구 서대신동 1가 21번지

상기 사찰과 상기인 들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불기 2553(2009)년 4월 15일

대한불교연합조계종 총 무 원 장
대한불교전통조계종 총무원장대행 법하

기름값의 1/8 이하로 절약되는
돌고래 슈퍼순간전기보일러



국내개발1호!
기름값 대비 80%이상 절감
심야전기 대비 1/2 이상 절감 효과
국내특허 제0751485호
세계특허출원 PCT/KR2007/006534

사찰, 포교당, 수련원, 교육시설, 복지시설,
호텔, 모텔, 펜션, 가든 등에 설치 최적합
사찰 · 포교당 · 불교시설 상담 대환영!!
전기보일러 15년 경력 전문가 직접 상담 · 시공
뛰어난 내구성, 30년 이상 반 영구적.
♣ 내 일처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불자 혜봉 -

돌고래 슈퍼 에너텍
공급원 : 서울시 강동구 길동 334-5 / 사무실 : 02)471-2356
상담전화 : 1688-3346, 011-335-6389
www.superenertec.com

‘구마라집’ 가장 위대한 역경 삼장법사

이기운 교수 ‘구마라집 삼장법사’ 번역 출간

“내 역경(譯經)에 잘못된 곳이 없다면 죽은 뒤 몸을 불태워도 혀는 타지 않을 것이다.”

<법화경> <아미타경> <유마경> <대지도론> <중론> 등 35부 380여 권의 산스크리트어 경전을 한역했던 구마라집(343~409). 그의 호언대로 다비에도 그 혀만은 타지 않고 남았다.

인도불교가 중국에 전해진 것은 달마의 선법(禪法) 이전에 구마라집의 역경(譯經) 덕분이었다. 구마라집은 축법호, 석도안 등과 함께 제1세대 역경을 이끈 역경보살의 원조다.

구마라집은 진제, 현장, 불공과 함께 중국불교의 4대 역경가로 불리지만 역경한 경전과 일화 뿐 알려진 사실은 적다.

국내 법화학 권위자 이기운 교수(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는 오우초오 에니치(橫超慧日) 등의 저술을 바탕으로 구마라집에 대한 최근 4년여의 연구결과를 집대성해 <구마라집 삼장법사>(영산법화사 출판부刊)를 번역 · 출간했다.

이 교수는 “역사상 수많은 훌륭한 역경 삼장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위대한 역경 삼장법사가 구마라집 법사”라며 “구마라집 법사는 중국 역경사에 중요한 전환을 가져온 위대한 승려”라고 말했다. 삼장법사 칭호는 역경가들이 경 · 율 · 론 삼장(三藏)을 번역해 붙은 칭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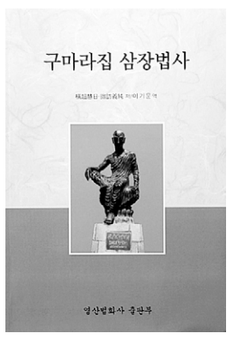


이기운 교수.

서역지방 구자국(현재 위구르 자치구)에서 출생한 구마라집은 일생 동안 380여 권의 경전을 한자로 번역했다. 구마라집이 번역한 경전들은 삼론종, 천태종 등 중국의 여러 종파에서 채택됐을 만큼 중국불교의 흥기에 큰 기여를 했다.

이기운 교수는 구마라집의 공덕 가운데 <묘법연화경> 역경을 우선 손꼽는다. 이 교수는 “당시 축법호의 <정법화경>이 유통됐지만 문장이 어렵고 부처님의 본 뜻을 들어내는데 미흡한 점이 많았다. 구마라집 법사가 <묘법연화경>을 훌륭한 문장으로 알기 쉽게 전해 법화의 위대한 법문을 대중들에게 알렸다”고 설명했다.

<묘법연화경>은 부처님이 일체 중생을 모두 불도에 이끌기 위해 일대사인연(一大事因緣)으로 세상에 출현한다는 출세본회를 밝힌 경전이다. 부처님의 본마음을 가장 잘 드러냈다고 해 법화행자들은 경중의 왕으로 여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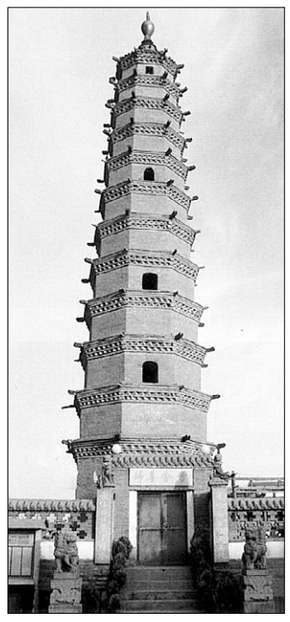
영산법화사 출판부에서 펴낸 <구마라집 삼장법사>.

이 교수는 “구마라집은 <묘법연화경>을 번역할 때 2000여 제자를 모아놓고 증의 등 치밀한 과정을 거치며 역경했다”며 “역경이 번역 이상의 불사(佛事)임을 스스로 증명했다”고 강조했다.

<구마라집 삼장법사>는 제1부 구마라집 법사의 업적과 불교 연구, 제2부 구마라집 법사의 생애와 역경 사업으로 나눠 구마라집의 생애와 제자들, 역경활동 등을 고찰했다.

부록으로 혜교의 <고승전> 역경조 번역문과 구마라집 법사 연보, 구마라집의 여정 등도 실었다. (02)762-4922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구마라집의 혀가 봉인된 혀탑.

익산, 백제 수도냐 별부냐 ‘설전’

‘익산 왕궁리 유적…’ 국립부여문화재硏 국제학술대회

“익산은 백제의 수도다?” “아니다. 작은 서울이었다.”

왕궁리 5층석탑(국보 제123호) 등 다수의 문화재가 출토돼 백제문화의 우수성을 알려온 익산 왕궁리 유적을 두고 한 · 중 · 일 학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문화재청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소장 심영섭)는 4월 9~10일 원광대 60주년 기념관에서 ‘익산 왕궁리유적의 조사 성과와 의의’를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익산 왕궁리 유적 발굴 20주년을 기념해 마련된 학술대회에는 이건무 문화재청장, 김봉건 국립문화재연구소장을 비롯해 나용호 원광대 총장, 이한수 익산시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김삼룡 前 원광대 마한백제문화연구소장은 ‘익산문화권에서 왕궁리유적의 위치’를 주제로 기조강연했다. 김 前 소장은 “익산은 백제 무왕의 천도지로 경영됐고, 핵심적인 유적이 왕궁성”이라고 설명했다.

최완규 교수(원광대)는 주제발표 ‘고대 익산과 왕궁성’에서 “익산 천도는 무왕 이전에 계획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주성 교수(전주교대)는 ‘7세기 백제에서의 익산 위상의 변화’를 통해 “무왕이 익산을 수도와 같이 취급해 수도의 행정구역인 별부(別府)를 설치했다”는 주장을 펼치며 열띤 논의를 이어갔다.

참석자들은 천도 여부와 시기 등에 이견이 있을 뿐 왕궁리 유적이 왕궁 혹은 그에 버금가는 유적이라는 데는 인식을 같이 했다.

한편, 공꿔치앙 연구원(중국 사회과학원 고고연구소)은 “익산 왕궁성의 원림 유적이 규모는 작지만 아담하고 가지런하며 깊은 문화적 소양과 우수한 기술 수준을 보여주는 백제문화의 정수”라고 평가했다. 조동섭 기자

JFK공항 직지카페서 직지 전시

청주시 ‘직지’ 마지막장 복원활자판 설치



미국 뉴욕 JFK공항 내 직지카페에 전시된 직지금속활자판.

미국 뉴욕에 한국 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전시공간이 마련됐다.

청주시(시장 남상우)는 최근 뉴욕 케네디(JFK)공항 내 직지카페(대표 이준석)에 세계기록유산 직지금속활자판을 상설 전시한다고 발표했다. 청주시는 이를 위해 24일 직지카페에 직지금속활자판과 직지 영인본(하권)을 설치했다.

이번에 전시된 금속활자는 총 113자로 <백운화상초록불조직지심체요절> 마지막장(간기부분)을 복원한 활자판이다. 활자판(가로 34.5㎝×세로 22.3㎝)은 목제 인판틀(가로 49㎝×세로 29.5㎝×높이 11㎝) 안에 배치했다.

청주고인쇄박물관 유효정(직지사업팀)씨는 “이번 전시는 미국 뉴욕의 관문이며 연간 방문객 600만명인 케네디 국제공항 이용객들이 우리 민족의 위대한 유산 직지와 고인쇄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며 “청주시는 앞으로도 다국어 홍보물 제작 등으로 직지카페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직지의 가치와 청주의 문화사적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홍보활동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진성 기자

백제 문화 강좌 열려

국립부여박물관(관장 권상열, 이하 박물관)은 4월 8일~10월 14일 매주 수요일 오후 3시 30분 ‘수요문화강좌’를 진행한다. 이번 강좌는 백제 문화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강의와 전시유물 감상, 특별전 특강 및 유적지 답사 등의 강좌로 구성됐다. 참가 희망자는 행사 당일 현장에서 누구나 수강할 수 있다.

박물관 김선영 교육사는 “이번 강좌는 “각 분야별 권위자들의 심도 있는 강의 내용을 통해 문화재 감식안을 키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041)833-8562 김진성 기자

“불교수행 몸·마음 관찰원리서 출발”

이의원 원장 특강

부처님 가르침을 한의학 치료원리에 접목시킨 강의가 열려 눈길을 끈다.

<기의학으로 고친다>의 저자 이의원 원장(도암한의원 · 사진)이 4월 11일 양재동 도암한의원 세미나실에서 ‘불교와 기의학’을 주제로 특강했다.

이 원장은 “큰 사찰에 있는 산신각 칠성각 신앙은 산의 기운, 우주의 기운과 소통하는 공간이다. 불교의 수행전통이 잘 드러난 특별한 수행공간”이라고 설명했다.



이의원 원장은 “불교수행을 비롯해 모든 수행법은 인간의 몸과 마음을 관찰하는 원리에서 시작된다”며 “몸의 기운이 맑고 충만하지 않으면 깊은 수행단계로 도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난치병 치료 전문가로도 알려진 이 원장의 특강은 18일 오후 5시, 양재동 도암한의원 세미나실에서 ‘신수심법과 위빠사나’를 주제로 계속된다. (02)585-8868

조동섭 기자

경기도 전통사찰 보존정비 나서

13개 사찰 정비… 6개 사찰 소화시설

경기도(도지사 김문수)가 전통사찰 및 문화재 보존정비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경기도 제2청사는 △고양시 덕암사 석축 해체 및 옹벽 설치 △남양주시 수종사 약사전 개축 △의정부시 원효사 송라당 및 일주문 보수 △양주시 백화암 원통전 개축 등 경기도 내 13개 사찰에 19억25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 정비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고양시 덕암사, 남양주시 보광사 및 견성암, 의정부시 망월사, 양주시 백화암, 동두천시 자재암 등 6개 사찰에는 예산 8억3000만원을 들여 소화시설을 설치한다.

경기 제2청사 김태현(문화체육과)씨는 “경기 제2청은 낙산사 화재 이후 2007년부터 전통사찰 내 소화시설 설치 사업을 진행하고, 매년 문화재 보존정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올해 문화재 관련 국비가 5억3000만원으로 증가(2008년 3억2000만원)해 보존정비 사찰 수가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김진성 기자

불교학회 원고 모집

한국불교학회(회장 김선근)는 제49회 전국불교학술대회 원고를 모집한다.

이번 대회는 5월 30일 동국대 학술문화관에서 불교교리, 불교사학, 응용불교 등 3개 분야로 나뉘어 자유주제 발표로 진행될 예정이다.

원고접수는 5월 5일 오후 5시까지 이메일(hanbulhak@dreamwiz.com)로만 가능하다. 3개분야별 자유주제로 200자 원고지 40매 내외. (02)2260-3130 조동섭 기자



일주문



으뜸 한국인 그랑프리 수상

재단법인 불교안양원 이사장 덕해 스님(안양 보장사 주지)은 최근 한국일보사 주최 '2009 대한민국 으뜸 한국인 그랑프리 사회공헌 부문'에 선정됐다.



안양교도소 수계식

안양교도소 불교종교위원회장 현성 스님(대한불교청소년연합회 총재)는 4월 27일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150명에게 불자수계식을 봉행한다.



한암대종사 탄신 134주기 행사

월정사 회주 현해 스님은 4월 22일 오전 9시30분 한암대종사 탄신 제134주기 탄신다례재 및 한암문도회 제38차 정기총회를 봉행한다. (033)332-6661



혜암 · 벽초 대선사 합동 추모다례

수덕사 주지 옹산 스님은 4월 23일 오전 10시 수덕사에서 혜암(음 3월 27일) · 벽초(3월 29일) 대선사 추모다례를 봉행한다. (041)337-6565



호국 장영사서 십선계 법문

금산사 주지 원행 스님은 4월 5일 전북 임실 제6탄약창 호국 장영사 법당에서 군장병 120여 명에게 십선계를 설했다.



49일 신묘장구대다라니 기도 입재

일산 덕양선원장 법상 스님은 4월 13일~5월 31일 제24차 49일 신묘장구대다라니 기도 입재를 실시한다. (031) 907-71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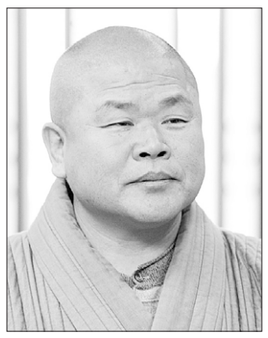


동국대 미래기획위원회 발족

동국대 오영교 총장은 4월 2일 교내 상록원에서 미래기획위원회를 발족했다. 미래기획위원장에는 홍순직 고문(삼성전자)이 위촉됐다.

"척박함 속에 살린 제주불심 활활 태울 터"

제주 관음사 창건 100주년 행사 여는 원종 스님



"근세 제주불교의 태동이 101년을 맞았습니다. 선배 스님들이 일궈온 제주불심이 융성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제주 관음사 창건 100주년 기념행사를 준비 중인 관음사 주지 원종 스님은 "이번 기념행사를 계기로 관음사뿐만 아니라, 제주불교의 미래를 모색하는 계기로 만들겠다"며 각오를 밝혔다.

예부터 제주도는 섬의 특성상 무속이 발달한 외래종교 반발심과 고려에 와서야 본토에 완전히 복속된 역사로 불교 또한 융성했다. 무속 근저에 불교가 깔려 한때 '절(寺) 500, 당(堂) 500'란 말까지 있었지만, 조선조 1702년 이형상 제주목사의 폐불로 불교가 사라지다시피 했다. 불교신도가 강세를 띄는 현재 제주불교가 있기까지는 안봉려관 스님이 관음사에 주석(해월굴)한 1908년까지 200여 년이 필요했다.

2007년 12월 관음사 주지로 임명돼 지난해 제주불교신문 발행인도 겸하고 있는 원종 스님은 "척박한 환경 속에서 도량과 불심을 가꿔온 조사스님을 비롯한 수많은 스님들의 원력을 이어받는 것은 후배의 몫"이라며 "2008년 창건 100주년을 맞이했지만 여러 문제로 올해 행사를 갖게 됐다. 그만큼 더욱 다양한 행사를 통해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음사는 5월 23일~6월 23일 고승초청법회를 열고, 제주포교 활성화에 나서며, 6월 20일 안봉려관 스님 추모다례 및 100주년 법회, 6월 27일 100주년 기념학술세미나를 개최해 제주불교사를 조명할 예정이다. 이어 10월 10일에는 '한라산 영산대재 및 세계평화기원법회'를 봉행하고, 12월 31일에는 100주년 기념 산사음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4월 19일 원종 스님은 직지사 선원장 정묵 스님, 실상사 백장암 선원장 정견 스님, 고관사 등 제주지역 사찰 스님들과 함께 신촌 해안가~삼양 불탑사~화북 보덕사를 거쳐 사라봉 사라사까지 순례하는 '제주섬 걷기순례'를 개최하고 이날 '4 · 3사태' 영령 염불의식도 봉행할 예정이다.

원종 스님은 "수행과 더불어 사회에 회향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주도민들과 함께 지역 스님들이 포행(布行 · 걸으며 참선하는 것) 하고자 한다"며 제주불교의 행보에 불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생명중심 개발로 전환해야"

불교환경연대 집행위원장 현각 스님



"이명박 정부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케이블카 사업을 중단하고, 4대강 정비사업도 정밀 환경조사부터 실시하라."

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수경) 집행위원장 현각 스님은 4월 7일 기자회견을 열고 밀양 얼음골, 갓바위 팔공산 등 각 지자체 케이블카 설치 움직임과 맞물린 정부의 개발지상주의를 규탄했다.

현각 스님은 "관광자원화를 앞세운 경제우선주의에 지리산, 팔공산, 설악산 등 우리의 소중한 명산이 케이블카 같은 인위적 시설로 파괴될 위기에 처했다. 케이블카로 인해 노선일대 자연환경뿐만 아니라, 인근 사찰 수행환경까지 훼손돼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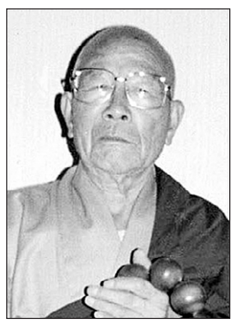
이어 스님은 "전국 명산 11개소 케이블카 설치로 표출된 각 지자체의 건설열기가 우이령 자동차도로 설치, 화성 봉림사 등 고찰 주변 공장건립허가 까지 번지고, 자연공원법 개정요구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러한 흐름에 불교환경연대는 각 환경단체와 해당 사찰과 연계해 강력히 저지해 나 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불교환경연대는 △청와대, 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을 비롯한 각 지자체에 중지촉구 공문 · 책자를 발송하고 △케이블카 설치지역에 대한 문화재 · 환경조사를 실시하는 등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의 DMZ라 불리는 우이령의 자동차도로 설치에 관해서는 인근 사찰인 오봉산 석굴암 등과 4월 12일부터 도봉산 등산로 입구 등지에서 서명운동 등을 시작했고, 생태의식 고취를 위해 19일 10시 조계사 환경법회를 시작으로 매월 전국 유명사찰에서 환경법회도 열 계획이다.

현각 스님은 "인간의 편리성 추구에서 생명 중심 개발로의 전환이 필요할 때다. 작금과 같은 개발은 자연, 역사문화유적을 훼손하고 결국 인류생존도 위협할 것"이라며 환경의식의 변화를 촉구했다. 이상언 기자

동산도환 스님 입적

4월 10일 수덕사서 다비



만공 스님의 법손 동산당(東山堂) 도환 스님(道煥 · 사진)이 예산 수덕사에서 4월 8일 오전 9시 40분 원적에 들었다. 세수 96, 법납 81세.

스님의 다비식은 10일 수덕사에서 봉행됐다.

동산 스님은 만공 스님의 수제자 보월 스님의 전법제자로 1929년 정혜사에서 사미계를, 1935년 서울 선학원에서 보살계를 수지했다. 만공 스님은 수제자 보월이 제자 금오 스님에게 전법조차 못하고 입적하자 보월을 대신해 금오 스님과 동산 스님에게 직접 전법게를 내렸다. 보월 스님이 불과 40세의 나이로 열반하자 만공 스님은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했고, 대중설법 도중 피를 토하는 듯 울며 애통해 했다.

1940년 마곡사에서 대덕법계를, 1942년 중덕 법계를 품수한 동산 스님은 덕숭산 정혜사 주지와 서산 천장사 주지 등을 두루 역임하며 염불선 수행에 힘써왔다.

동산 스님은 원적에 들며 '안향고가귀(安鄕古家歸)'라는 임종게를 남겼다.

"마음 법은 본래 여여해(心法本如如)/ 마음도 아니고 법 또한 아니더라(非心亦非法)/ 법도 아니고 마음도 아닌 법을(非法非心法)/ 동산에게 분부하니(分付東山子)/ 꽃구름 속에 청산은 첩첩하고(花雲靑山重)/ 흰구름은 청산을 난다(靑山白雲飛)/ 날마다 구름과 산을 벗삼던 이가(日雲山作伴)/ 편안한 고향 옛집으로 돌아가네(安鄕古家歸)."

조동섭 기자

월운 스님 동방대학원대서 명예박사



역경보살 월운 스님(봉선사 조실 · 사진)이 역경사업 공로를 인정받아 동방대학원대학(총장 정상옥)에서 명예철학박사 학위를 받는다.

동방대학원대학은 4월 18일 오전 11시 교내 사자후전에서 월운 스님의 명예철학박사 학위수여전례를 봉행한다고 9일 밝혔다.

동방대학원대학 백원기 전략기획처장은 "월운 스님은 일생을 역경사업에 헌신하며 한국문화의 전승과 발전, 불교의 현대화에 지대한 공헌을 해왔다"며 "동방문화의 창달과 계승이라는 동방대학원대학 건학이념에 부합하는 공로가 인정돼 명예철학박사 학위를 수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월운 스님은 현재 봉선사 조실과 능엄학림 강주 등을 역임하고 있다.

조동섭 기자

동화사 1박2일 단기출가 동자승 삭발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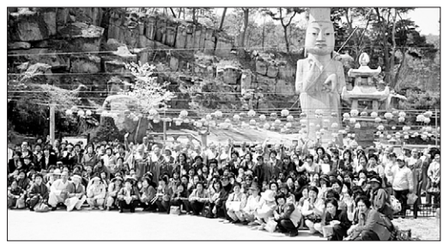
대구 동화사(주지 허운)는 4월 2일 대구지역 불교유치원 원아 11명을 대상으로 동자승 삭발식을 봉행했다. 1박2일 단기출가한 동자승들은 친구들과 싸우지 않고 부모님께 효도하겠다는 '어린이 오계'를 받았다. 손법천 대구지사장

동림회 東大 불교대학원과 장학협정 체결



출가공동체 동림회(회장 종후)는 동국대 불교대학원(원장 혜원)과 4월 6일 장학협정을 체결했다. 동림회는 이날 불교학과 무현 스님 외 2명의 학인스님에게 각 1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조동섭 기자

불교조계종삼화불교 관촉사서 기도법회



불교조계종삼화불교 총무원장 혜인 스님은 4월7일 충남 논산 관촉사에서 소원성취 기도법회를 봉행했다. 70여 종단 스님들과 7000여신도는 은진미륵불전에서 법회 후 갑사로 이동, 대자암 무문관을 참배했다.

장기요양시설 자비원 개원… 산신각 낙성



태고종 진천 자재암(주지 혜성)은 4월 9일 태고종정 혜초 스님, 중앙종회부의장 원봉 스님 등 스님들과 신도 3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장기요양시설 자비원 개원식과 자재암 산신각 낙성식을 봉행했다. 혜철 충청지사장

인천교직원불자회 창립법회 봉행



인천교직원불자회는 4월 7일 인천불교회관에서 인천불교회관 주지 일지 스님, 이병용 인천 북부교육장 등 40여 명과 함께 창립법회를 봉행했다. 인천교직원불자회는 매월 2, 4주 화요일 정기법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상언 기자

임원공고

한국불교전통조계종

종정 자운 청봉 대종사

종정 사서실장 혜오

원로원장 덕신 운암
원로위원 남곡 구담. 혜원
비구니원로위원 지성

중앙종회의장 도균 대현

총무원장 월산 혜봉
중앙연수원장 김산 법전
교육원장 지오
교육부원장 월오
비구니원장 아산
비구니부원장 정혜

법사위원장 성혜
법사위원 보광. 염상. 이광해. 이경희

감찰부장 운오
재무부장 법련
문화부장 운산
기획부장 일봉
기획국장 도경
경남종무원장 석봉
경북종무원장 호상 묘원
울산종무원장 능현
전북완주종무원장 도암
경기종무원장 호산
통영종무원장 짐은
경남포교국장 원공
경남양산포교부장 지웅
경기포교국장 도현
대전포교국장 법해

종도일동

■ 총무원 : 연봉사 -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매산리 556-1번지
전화 054)262-5060 / 팩스 054)262-0067 / 혜봉스님 직통 011-545-5060

추 원효보살 열반 1323주기 추모대재 묘

진리의 새벽을 여신 우리의 스승 원효보살
열반대재에 불자여 함께 모여 추모 합시다

일 시 : 불기2553(2009)년 4월 20일 오전 11시
장 소 : 원효보살 성상앞 (용산구 효창공원내)

대한불교원효종 봉행위원장 향운 합장
연락처 : 02)735-0501~2

"마음의 호미 들어 무명의 풀 뽑아라"

김해 정토원 호미든 관세음성상 봉안 50주년 법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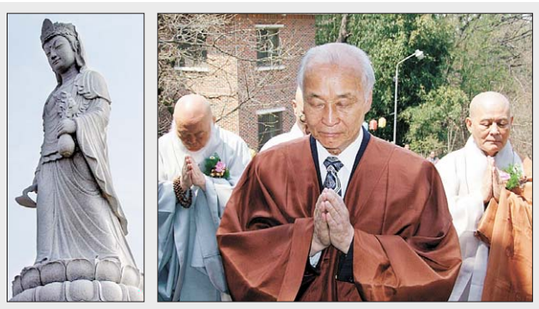
1959년 보릿고개 시절, 민중을 선도하고 일깨우기 위해 젊은 불교학도들이 김해 봉화산에 호미를 든 관세음보살상을 봉안한지 50주년을 맞았다.

당시 동국대학교 불교대학 재학생 31명이 신심, 사회, 경제, 사상의 4대 개발을 발원하며, 우리 민족의 서러움을 상징하는 증표로 관세음보살의 자비로운 손에 호미를 들게 했다.

김해 정토원(원장 선진규)은 4월 5일 오전 11시 '호미 든 관음성상 봉안 50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기념 법회는 봉안 50주년 기념사, 법어, 격려사 및 축사, 발원문 낭독 등의 순으로 여법하게 진행됐다.

선진규 원장은 기념사에서 "오늘날 불교는 타종교의 공격적 태도와 폄하로 상처 입었지만, 이럴 때일수록 불교 안에서부터 자성하고 기복성향을 벗기 위해 뼈아픈 각오로 새 출발을 해야 한다"며 "못살던 1959년 4월 5일 기복불교를 생활불교로 자리 잡도록 봉안한 호미 든 관음성상에 깃든 원력을 다시금 일으켜 한국 불교 중흥의 전기를 만들자"고 말했다.


김해 정토원 호미 든 관음성상(왼쪽), 4월 5일 '호미 든 관음성상 봉안 50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하는 선진규 원장(가운데)과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오른쪽).

이어 선 원장은 불교 중흥의 원력을 세우는 두 가지 서원으로. "우리 마음 속 삼독심의 잡초를 뽑아낸 자리에 보리심을 심고, 전 종단을 아우르는 대동단결의 결사체를 이뤄 승속이 함께 단합해 불교의 중흥을 이뤄내자"고 발원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법어를 통해 "관세음보살은 '성모'로 자비하신 어머니로 흔히 감로수 병, 연꽃, 버드나무가지, 고기 잡는 나무바구니 등을 들고 있지만 마음 속 무명의 풀을 뽑는 상징으로 호미를 들었다"며 "고인물은 썩고, 버려둔 음식이 서서히 상하듯, 마음의 호미를 들어 게으름이 올 때마다 되새기길 바란다"고 설했다.

이날 법회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 조계종 포교원장 혜총 스님 및 봉안에 참여한 동국대학교 동문회원 등 사부대중 500여 명이 참석했다.

박지원 기자 hdbp@hanmail.net

"원형통유리 법당서 불법 펼쳐요"

대웅보전 낙성식 기념법회 홍법사 주지 심산 스님

"제게 대웅보전은 부처님 법을 펼 수 있는 근원적인 공간입니다. 전세계로 뻗어나가는 한국불교의 거점이면서 우리 신도들에게는 여전히 마음의 고향이 돼야겠지요."

부산 홍법사(주지 심산)는 4월 11일 대웅보전 낙성식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첫 삽을 뜬지 약 10개월째지만, 사실 불사는 2005년 2월 '대웅보전 건립을 위한 일만 배 정진기도'때 시작됐다.

"마치 꿈을 꾸고 있는 것처럼 실감이 나질 않아요. 참 오래 전부터 신도들과 함께 대웅보전을 발원했는데, 뜻밖의 좋은 인연들이 모여 기공식 이후에는 빨리 진행됐습니다."

심산 스님(사진)은 지난 10개월간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한손엔 무전기를 들고 작업자들과 함께 현장을 진두지휘했다.

"설계도면이 실제 현장에서 완벽히 일치할 수는 없기 때문에, 기본 골격은 설계를 따르되 그때그때 현장에 맞게 수정을 하다 보니 한시도 현장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완성된 새 대웅보전을 기존 전통사찰 건축양식의 큰 법당으로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마치 UFO처럼 둥근 원형의 통유리로 이뤄진 전혀 새로운 양식이다. 사방으로 열린 독특한 구조는 부산을 넘어 세계로 불법을 홍포하는 거점으로서 시대와 문화, 복지를 아우르는 신행공간이 되길 바라는 심산 스님의 오랜 발원이 담겨있다. 또 요사채에 20개의 객실을 만들어 내한 외국인들이 머물며 한국불교를 접할 수 있는 국제교류의 장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지금도 홍법사에는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로 유학 온 몽골인 대학생 2명이 기거하고 있을 정도로, 사찰을 찾아오는 외국인이 점차 늘어났지만, 편의시설이 부족해 불편함을 감수하며 숙박업소로 발길을 돌리는 게 안타까웠다"며 "현대적인 설비를 갖춰, 외국인들이 편안하게 찾아와 한국불교문화를 만날 수 있는 사찰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으로 세계와 만나는 '불교 창구'로 활약하게 될 홍법사 신도들 또한 스님과 한마음으로 각오를 새롭게 다졌다.

"이제 국내외에서 보다 많은 분들이 홍법사를 찾아올 것을 대비해 내적인 준비를 해야죠. 그저 커다란 대웅보전과 옥상대불을 보러왔던 이들이 마음의 위안을 얻고 신심을 낼 수 있도록 이끌어낼 것입니다."

대웅보전 낙성식은 끝났지만 홍법사 대웅보전 불사는 현재진행형이다.

"이제 대웅보전 건물과 요사채가 완성됐으니, 나머지 30%인 옥상 대불, 법당 안 부처님, 삼천불을 차례로 모셔야죠. 앞으로 갈 길이 멀어요. 이제 시작입니다." 박지원 기자

'벽송선회' 부산도심에 나투다

미타선원 제1기 행복선수행학교 5월 7일 개교

그동안 함양 벽송사 벽송선원(선원장 월암)에서만 들을 수 있었던 월암 스님의 '벽송선회'가 드디어 부산 도심에서 펼쳐진다.


부산 미타선원에서 5월 7일 개교하는 행복선수행학교 교장을 맡은 벽송선원장 월암 스님.

용두산 미타선원(주지 하림)은 5월 7일 간화선의 공부와 수행에 관한 체계적인 참선교육전문도량 행복선수행학교를 개강, 제1기 교육생을 모집한다. 학교장을 월암 스님이 직접 맡아 간화선 이론과 실참 지도로 참된 수행의 길로 인도하게 된다.

월암 스님은 "행복선수행학교에서 선에 대한 올바른 이론을 정립하고, 실참수행을 통해 완전한 행복에 이르며, 나아가 역사와 사회의 주인으로서 언제 어디서나 자비를 실천하는 대승보살의 삶을 살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행복선수행학교 제1기는 4학기 총 2년 과정으로 매주 목요일 주 · 야간 반으로 나눠 오후 2시와 오후 7시 30분에 각각 시작하며, 모집정원은 주 · 야간 각 100명에 한한다.

학기별 이수 과목은 △1학기 '초기불교, 부파불교' '인도선사상' '중국선종사' '좌선의' △2학기 '중관학, 유식학' '한국선종사' '육조단경' '전심법요' △3학기 '천태사상, 화엄사상' '서장' '선요' '임제록' '보현행원품' △4학기 '간화선수행' '선가귀감' '참선경어' '간화결의론' 등으로, 그간 벽송선회를 통해 월암 스님이 지도해 온 간화선의 총체를 만날 수 있다.

4월과 10월에는 2박 3일 일정의 참선수행심화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8월과 12월에는 2주간 방학도 주어진다. 입학식은 5월 3일 오후 2시 미타선원 행복선수행학교 3층에서 마련될 예정이다.

주지 하림 스님은 "지난 3년여 지극한 발원이었던 행복선수행학교가 이제 결실을 맺게 돼 기쁘다"며 "그동안 선에 대한 정견 없이 그저 참선만 하던 불자들에게 이론과 실참지도로 선의 바른 길을 열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051)253-8686, www.mitazen.net 박지원 기자

늘 깨어있는 자세로 정진 다짐

4월 8일 불국토 창립 15주년

우리 사회에서 소외된 이웃을 위한 복지사업으로 정진하는 사회복지법인 불국토(이사장 혜총)가 창립 15주년을 맞았다.

(사)불국토는 4월 8일 오후 7시 30분부터 영주암 원통보전에서 창립 제15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이번 기념식은 불국토가 운영하는 17개 기관, 관계자 총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법인 연혁 및 4대 비전 선포식, 불국토 자비카드 및 삼성자동차 적립 후원금 전달식, 2009년도 민관지원 우수사회복지 프로그램 당선 포상 수여식, 언론으로 보는 불국토 영상물 상영, 법어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민관 선정 사회복지프로그램은 개금종합사회복지관의 '아이마루' 지원금 1억3000만원 외 3편, 용호종합사회복지관(관장 이춘성)의 '가릉빈가 언어치료센터' 지원금 1016만원여 외 2편, 양정청소년수련관 '비상구' 2200만원 외 2편, (재)불국토청소년도량 'HipHop 愛빠지다' 4000만원 등 총 11개 프로그램이 선정돼 약 1200만원에 가까운 포상금을 시상했다.

이사장 혜총 스님은 "15년 동안 불국토는 부산 최초, 전국 최초 등 남들이 생각하지 않는 참신한 아이디어와 다양한 사업을 실시해 복지 등 여러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듭했다"며 "앞으로도 불국토 설립이념인 '너와 나 차별 없이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늘 깨어있는 자세로 정진하라"고 강조했다.

1994년 사단법인 불국토(대표이사 정관)를 시작으로, 1995년 사회복지법인 불국토, 1998년 재단법인 불국토청소년도량(대표이사 범산)을 설립해 각각 교화 및 사회복지, 청소년사업 등을 꾸준히 전개해오고 있다. 박지원 기자

"조동법맥 잘 이어나가자"

조동종 종조 다례제 봉행


4월 3일 도선사에서 열린 조동종 종조 동산존자 양개 대화상 다례제.

대한불교조동종은 4월 3일 서울 노원구 상계4동에 자리한 종무원 도선사에서 종무원장 덕우 스님을 비롯한 승정부원장 덕룡 스님, 부원장 행원 스님 사부대중 1000여 명이 동참해 조동종 종조 동산존자 양개 대화상 다례제를 봉행했다.

승정부원장 덕룡 스님이 동산존자 양개 대화상의 행적 소개를 하고 종회의장 혜륜 스님이 발원문을 낭독했다.

총무원장 덕우 스님은 "종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종단의 발전과 종무원 종찰의 불사가 원만히 회향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며 "다례제에 입실건당을 봉행함에 있어 조동종의 조동법맥을 잘 이어나가 주시길 바란다"고 법문했다.

한편 총무원 도선사의 고려시대 석불이 서울시문화재로 등록돼 노원구청장 축하 인사도 있었다. 청운 경남남부지사장

스님! 빙의로 고통 받는 중생을 구해 주세요

전생,빙의,퇴마,최면치료 [최면 시술사 과정 모집]

▶ 개강일 : 4월 22일(수요일) ▶ 교육 기간 : 6주(24시간) ▶ 모집 인원 : 선착순 10명 ▶ 교육 비용 : 100만원

특기사항

1. 10명의 소수 정예 엘리트 교육
2. 6주 24시간의 최단기 집중 현장 교육
3. 상상할 수 없는 최소의 교육 훈련비
4. 개인 교습식의 일대일 교육, 책임 교육
5. 현장에서 바로 활용 할 수 있는 실전 교육
6. 새로 개발된 테크닉 수시로 전수하는 평생 교육

스님이 직접 강의하고 스님들만 교육받는 유일한 곳

6주 24시간, 짧은 수련기간, 최면 시술사 완성이라는 문구에 "정말될까?"라고 반신반의하면서 공부하셨던 100여분의 스님들이 전국 각처에서 활발하게 최면 시술을 하시며 중생의 고통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또 보람과 자부심도 느끼신다 하셨습니다. "스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 무초 정락 합장 -

특별상담

⊙불자님들의 요청에 교육없는날 1일 1분씩만 상담을 받습니다.
⊙빙의와 神病으로 고생하시는 분
⊙자녀의 가출, 습관, 성적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
⊙우울증, 알코올중독, 게임중독, 마약중독 등...

(사)유마 최면 연구소 서울 지하철 1호선 구로역 1번출구 세일빌딩 401호 ☎ 02)763-0661~2

개인 특별지도 시간없으신 스님들을 위하여 2박3일 실습위주로 교육 (hard training), 신분비밀보장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21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 루 자죽염 125g 27,500원
가 루 자죽염 230g 50,000원
알갱이 자죽염 125g 30,000원
알갱이 자죽염 230g 55,000원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0,000원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기본 배송비 2,500원 (5만원이상 구매시 무료배송)

※부산지역은 부산농협 각지점 "신토불이 매장"에서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주문전화 : 053)985-1135 / 054)733-0979
전국 각 지역별 판매처 모집중 ! 016-823-0483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슬라브, 창고, 공장, 가정집 (전문시공)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서울 · 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1-327-7697
전라도 : 010-2311-0157

현 대 칼 라 지 붕 공 사

buddhanews.com

"부처님 공덕 자비등불로 밝혀요"

전라북도 봉축위 구성… 광주 19·20일 장엄등 점등

5월 2일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호남지역 봉축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3월 26일 전북불교회관에서 전북지역 각 종단과 사찰, 신행 포교단체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불기 2553년 전라북도 봉축위원회(위원장 원행 · 금산사 주지)를 구성하고 4월 3일~5월 2일을 봉축기간으로 정했다.

전북지역의 봉축 분위기는 4월 5일 전주 종합경기장에서 열린 기원탑 점등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막이 올랐다.

행사에는 원행 스님 등 조계종 스님을 비롯해 태고종, 진각종, 천태종, 보문종 등 각 종단 대표 스님들과 전북불교신도회 김백호 회장 김진수 전북포교사단장 바라밀 합창단 등 각 신행단체 불자 500여 명이 동참했다.

원행 스님은 인사말에서 "온누리에 지혜와 자비의 등불을 밝히고자 모인 수승한 공덕을 찬탄한다"며 "이웃들이 나와 한몸으로 느껴질때 만이 진정한 자비심이 일어나니 잘못된 분별심과 불평등을 극복해 모든 사람이 보살이 되고 가정마다 우리 불자들이 하나되어 허공처럼 텅빈 마음으로, 언제나 환희로운 마음으로, 이웃들과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자"고 당부했다.

올해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는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해 우리 사회의 그늘진 곳을 살피고 포교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군포교 강화 일환으로 임실탄약창 군법당에서는 수계식이 봉행된다. 9일에는 육군35사단 세병호에서 연등제가 열렸다. 19일에는 전북경찰청 불자들이 무진법회를 봉행하고, 익산의 부사관학교와 공군 38전대, 공수7여단 등에서도 봉축 위문법회가 잇따라 열린다. 전주 · 군산교도소에서는 각각 수계법회와 봉축법회를 봉행한다.

이어 봉축기간 동안 금산사 복지원을 비롯해 희강원, 군산보현요양원, 나눔의 집, 요양원, 갱생원 등 복지시설에서도 봉축위문법회가 열릴 예정이다.

문화행사도 풍성하게 준비됐다. 22일에는 전주 교육문화회관에서 전북지역 각 사찰 합창단이 한자리에 모여 봉축연합합창제를 개최한다.

봉축행사의 하이라이트 연등축제는 전주지역이 25일 전주시청 노송광장에서, 익산과 군산은 26일 영등동 중앙체육공원과 나운동 신풍초교 운동장에서 열린다.

광주봉축위원회(위원장 성오 · 마하보리사 주지)는 19, 20일 각각 아시아문화전당과 시청 앞에서 부처님오신날 장엄등 점등식을 갖는다. 아시아문화의 전당 앞에는 10m 높이의 한지로 만든 석가탑등이 세워지며, 시청앞에는 6m 높이의 한지로 만든 아기부처님등이 세워진다.



4월 5일 전주 종합경기장에서 점등된 기원탑.

광주봉축위 관계자는 "봉축탑을 한지로 만들고 방수처리를 해 전통등의 풍미를 더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16일 구례사암연합회는 구례경찰서 앞 로터리에서 봉축연등 점등식을 갖고 봉축행사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릴 예정이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곱단이로 목욕하고 건강하길…"

성효 스님 천연목욕용품 복지시설에 보시

유아용품에서 석면이 검출돼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천연목욕용품 브랜드 '곱단이'로 불자들의 사랑을 받아 온 성효 스님(곡성 무각사 주지))이 지역영유아시설과 노인복지시설에 자비의 온정을 베풀어 화제가 되고 있다.

성효 스님은 4월 9일 광주영아일시보호소(지부장 김재영)과 사회복지법인 향림원 현비동산, 자비요양원 등에 300만원 상당의 천연 유아용품을 전달했다.

성효 스님은 전달에 앞서 "부모로부터 한 번 버려져 마음의 고통을 받고 사는 아이들이 피부병과 환경공해로부터 두 번, 세 번 고통 받는 모습이 안타까웠다"며 "아이들에게 따뜻한 온정을 전하는 것이 부처님이 말씀한 '동체대비'라는 생각에 작은 성의를 보탠다"고 말했다.

용품을 전달받은 광주영아일사보호소 최미경 사무국장은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후원과 자원봉사가 줄어들었다"며 "특히 아토피성 질환으로 고생하는 어린 아이들도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날 천연목욕용품을 전달받은 광주 소태동 광주영아일시보호소는 미혼모, 이혼가족 등의 사유로 버려진 영유아 60여명이 수용돼 있다. 향림원 현비동산과 자비요양원은 각각 지적장애인 생활시설, 노인요양시설로 30명씩 생활 중이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예비군승 교육

호국관음사서

광주 31사단 군법당인 호국관음사(법사 법상)는 4월 7일 '2009년 입관예정 예비군승 입대전 교육' 입재식을 봉행했다.

군 포교 담당 요원을 양성하기 위해 마련된 교육에는 후보생 12명과 군승 요원 8명이 참석했다. 교육은 4월 7일부터 16일까지 열린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위봉사 일요가족법회 창립 10주년

전북 완주 위봉사(주지 법중)는 4월 5일 일요가족법회 창립10주년을 맞아 사회복지법인 인덕원을 설립한 성운 스님(서울 삼천사 주지) 초청법회를 봉행했다.

행사에는 일요가족법회 회장 이두연 거사를 비롯해 2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성운 스님은 '불교와 중생복지'을 주제로 한 법문에서 "불교의 기본사상인 육바라밀과 사섭법, 사무량심을 통해 부처님 가르침인 생명존중 사상과 자비사상을 실천하는 불자들이 되어 달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법중 스님은 인사말에서 지난 10년간 일요법회를 이끌어 온 임원진의 노고를 치하하고 "부처님의 가르침를 배우고 전법하는 불자가 돼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법회 후 위봉사 대중들은 위봉사 경내에서 바자회를 개최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공생의 삶 실천

지구촌공생회 봉사

해외구호활동으로 주목받아 온 지구촌공생회 전북지부(지부장 원광)는 4월 4일 김제 흥복사(주지 우진) 연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자원봉사에는 15명의 단원이 참여해 봉축 연등을 제작하고, 흥복사 도량과 연밭의 잡초 등을 제거했다.

우진 스님은 "지구촌공생회가 국내에서도 다방면에 걸쳐 활발한 활동을 펼치니 뜻이 깊다"며 "홍보물 몇 장 돌리며 단체를 소개하는 행위보다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려는 이런 실천이야말로 공생의 의미를 더욱 되새기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전통행진등 강좌

나주 심향사서

전국의 봉축분위기가 무르익는 요즘, 전남 나주에서 전통행진등 제작 강좌가 열려 큰 호응을 얻었다.

나주 심향사(주지 원광)는 3월 28일 나주 금성고등학교 강당에서 전통행진등 강습회를 개최했다. 광주비엔날레 초청작가이자 전통등공예가인 이기성 작가가 강사로 나선 이번 강습회에는 원광 스님을 비롯한 100여 사부대중이 참여했다.

원광 스님은 인사말에서 "부처님오신날은 모든 사람들의 희망의 날이다. 오늘 만든 전통등은 저마다의 희망을 담고, 나주 거리를 환하게 밝히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심향사는 4월 24일 주제로 제4회 연등음악회를 개최한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혜운 명사 다비

광주사암연합회장 엄수

호남불교 원로이자 조계종 전계대화상 진금당(眞金堂) 혜운(慧雲) 명사(明師) 영결식 및 다비식이 4월 5일 광주 신광사에서 봉행됐다.

법랍 95세, 세수 98세로 원적에 든 스님의 영결식은 광주불교사암연합회장으로 엄수됐다.

행사에는 송광사 회주 법흥 스님을 비롯해 광주불교사암연합회 회장 성오 스님, 송광사 주지 영조 스님, 전국 비구니회 회장 명성 스님, 삼현문중과 문도등 사부대중 500여 명이 참석했다.

영결식에 이어 다비식은 조계종 21교구본사 송광사 연화대에서 거행되었다. 다비 후 스님의 법체에서는 사리 5과가 출현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를 외호하며 불교여론을 주도해 온 현대불교신문사는 언론을 통해 정보사회 구현과 포교에 매진함으로써 2,000만 불자들의 긍지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불교의 현대화,생활화,세계화를 목표로 생활 속의 불교 구현을 위해 함께하는 온라인 쇼핑몰 **현불샵**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불교정보를 기본으로 불교용품, 일반용품, 불교도서, 음반, 불교정보, 각종 이벤트 등 알찬상품들을 언제, 어디에서나 가장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겠습니다.

현불샵 (HYUNBUL SHOP) 이 앞장서겠습니다.

생각을 깨우는 쇼핑몰
Hyunbul Shop

HYUNBUL SHOP(#)은 현대불교신문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입니다.

불국토를 찾아서

한마음선원 광주지원 연희단

호남 최초 연희단… 축제를 축제답게

저마다 손에는 전통등을 들고 음악에 맞춰 어깨춤을 들썩이며 행진한다. 한지로 만든 거대한 용 장엄물은 불을 내품어 시민들의 시선을 모으고, 로버트태권V 모형에는 아이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200여 개 장엄물과 함께 복잡한 도심길을 따라 끝없이 이어지는 연등축제의 행렬이 비단 서울에서 뿐만 아니라 빛고을 광주에서도 펼쳐진다.



2008년 제등행렬에서 선풍적 인기를 끌었던 한마음선원 광주지원 연희단.

한마음선원 광주지원(지원장 혜월)은 2008년 봉축행사에서 호남 최초로 연희단을 선보였다. 선녀 복장에 곱게 얼굴분장을 한 단원들은 매화등을 들고 음악에 맞춰 춤추며 행진했다.

연등축제의 꽃이라 불리는 연희단은 축제를 축제답게 만드는 자발적으로 구성된 무용단이다.

20여 년 전 광주에서 처음 거대한 장엄물을 들고 나왔던 곳도 한마음선원 광주지원이었다. 연등축제는 불자는 물론 일반시민, 외국인 등이 어우러진 문화한마당이다.

한마음선원 광주지원 연희단의 등장에 사람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저 사찰은 왜 저리 즐겁지?" "어느 사찰이야?" "그래 이것이 축제구나"하며 시민들은 반겼다. 외국인들은 연신 "Wonderful, Wonderful"을 외치며 카메라를 들이댔다. 한마당 축제가 어우러지는 순간이었다.

연등행렬이 있는 단 하루의 짧은 순간이지만 이 날을 위해 연희단은 많은 노력을 해왔다. 광주지원 합창단과 청년회로 구성된 34명 연희단원들은 봉축행사 수개월 전부터 날마다 퇴근 후 선원에 모여 고된 연습을 했다. 처음하는 동작들이라 힘들어 부둥켜 울며 연습한 적도 있었다. 한켠에서는 연희단 복장을 수선하고, 또 다른 한켠에서는 안무와 행진등이 만들어졌다. 연희단을 구성해 이끌고 있는 지원장 혜월 스님과 단장 성경희 보살을 만났다.

혜월 스님은 "앞으로 많은 사찰이 참여해 흥겨운 축제의 마당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스님의 바람이 바로 광주지원 연희단의 바람이에요." 옆에 있던 성경희 보살도 거든다.

혜월 스님을 비롯해 한마음선원 광주지원 사부대중 모두의 바람처럼 올해 광주지역 봉축행사에는 더 많은 이들이 참여하기를 기원한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매발톱꽃 받아가세요”

우리나라 주요 사찰과 연못에 백련을 보급했던 혜민 스님이 이번에는 매발톱꽃을 불자들에게 보급하겠다는 원력을 세웠다. 스님은 현재 충남 예산에 위치한 청화재(靑華齋)에서 매발톱꽃 화분 3000개를 준비해놓고 4월 20일부터 전시할 예정이며, 부처님오신날에 맞춰 연등을 접수하는 불자들에게 선물로 매발톱꽃 화분을 나눠줄 계획이다. 스님은 “부처님오신날이 마치 연등 장사하는 날처럼 돼버린 것 같아, 그 날만큼은 절에서도 무언가 불자들에게 보시를 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이번 행사를 계획하게 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스님은 희망하는 사찰에는 꽃씨를 보급해 이번 행사를 좀 더 많은 사찰로 확대시켜 나갈 계획이다. (041)331-6668 박재완 기자

장엄·화려함 속 ‘오신 뜻’ 다양하게 표현

각 종단 봉축행사 준비 분주… ‘내용’에 초점

부처님오신날을 보름여 앞둔 요즘 불교계 각 종단들이 봉축행사 준비에 한창이다.

태고종(총무원장 운산)은 올해에도 장엄등 대신 ‘장엄차량’을 이용, 4월 26일 제등행렬시 차량 위에서 영산재(靈山齋 ·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를 시현할 예정이다. 총본산 서울 봉원사(주지 일운)에서도 부처님오신날 당일(5월 2일) 오후 7시 봉축법회와 함께 영산재가 시연된다.

또한 동방대학원대학교(총장 정상옥) 불교미술학과 학생들은 불교문화마당에서 불자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탱화 그리기 시연 및 바디페인팅 행사를 진행한다.

천태종(총무원장 정산)은 코끼리와 용, 축신신장등을 비롯해 종단 소의경전인 <법화경>의 방편품 · 수기품을 형상화한 장엄등으로 제등행렬을 장식할 예정이다. 신도들은 각각 ‘회삼귀일등’을 개인등으로 들고 참가한다. 천태종 교무부 상명 스님은 “신도들의 신앙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부처님오신날에 맞춰 종단의 소의경전을 장엄물로 표현했다”고 설명했다.

진각종(통리원장 회정)은 다양한 계층의 불자들을 위한 장엄등을 준비중이다. 황룡 · 청룡 · 공작을 형상화한 장엄등 외에도 어린이 불자들을 위해 만화 ‘날아라 슈퍼보드’를 형상화한 장엄등과 위덕대 상징동물인 코뿔소 장엄등을 마련했다. 외국인불자들을 위해서는 네팔의 스와얀부탑, 스리랑카의 불치사탑을 형상화한 장엄등을 준비했다. 또한 ‘자발적인 참여축제’를 모토로 봉축행사를 준비해 종단 소속 사찰 · 영상동아리에서 봉축관련 영상기록물을 제작할 계획이며, 불교문화마당에서는 페이스페인팅동아리와 노래동아리 J&B Soul이 공연한다.

이외에도 전국 각 심인당에서는 3월 23~28일 수원 유가심인당에서 진행된 전통등강습회의 결과물을 이용해 지역별로 제등행렬을 진행한다.

관음종(총무원장 홍파)은 흰코끼리를 타고 도솔천에 나투신 호명보살의 이야기를 현대적으로 재해석, 헬기를 이용해 현대에 나투시는 부처님을 형상화한 장엄등을 준비했다. 또한 부처님의 무한한 법계를 상징하는 뫼비우스의 띠를 형상화한 무한법계 등도 마련했다.

부처님오신날에는 서울 묘각사에서 오후 2시부터 작은음악회도 진행한다. 특히 이번 음악회에서는 마술사, 초대가수, 관음합창단 등의 다양한 공연이 진행되는 가운데 불자노래자랑이 개최될 예정이다. 불자노래자랑 예심은 4월 25일 진행되며, 관음종 신도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김진성 기자 yearn@buddhapia.com







지난해 봉축 제등행렬에 참가한 태고종 장엄차량(위)과 천태종 <법화경> 보문품 상징 장엄등(가운데), 진각종 코뿔소, 날아라 수퍼보드 장엄등(아래).

김형오 국회의장 정산 스님 예방

4월 6일 관문사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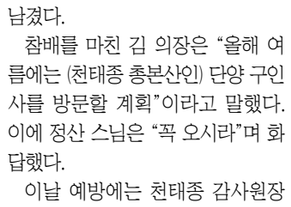
김형오 국회의장은 4월 6일 한나라당 주호영 국회의원 등과 함께 서울 천태종 관문사에서 천태종 총무원장 정산 스님을 예방했다.

정산 스님과 김형오 국회의장 등은 관문사 입구에서 인사를 나눈 뒤 찻집으로 옮겨 차담을 나눴다. 이 날 차담에서 정산 스님은 김 의장에게 천태종 소의경전 <법화경>과 차를 선물했으며, 김형오 국회의장도 자신의 수필집 <길 위에서 띄운 희망편지>와 소형 성덕대왕신종을 정산 스님께 선물했다.

이어 김 의장은 정산 스님의 안내로 관문사 7층 대불보전과 4층 옥불보전 등 법당을 참배하고 성보박물관을 관람한 뒤 “관문사 부처님의 참 뜻을 보고 갑니다”는 방명록을 남겼다.

참배를 마친 김 의장은 “올해 여름에는 (천태종 총본산인) 단양 구인사를 방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정산 스님은 “꼭 오시라”며 화답했다.

이날 예방에는 천태종 감사원장 춘광 스님, 관문사 주지 영제 스님, 천태종 총무부장 무원 스님 등이 배석했다. 김진성 기자



천태종 총무원장 정산 스님이 김형오 의장에게 <법화경>을 선물하고 있다.

8면 9층 다보탑 자비등불 밝혀

삼광사 봉축등 점등법회

부산 지역에 부처님오신날을 널리 알리는 환한 불이 밝혀졌다.

천태종 부산 삼광사(주지 화산)는 4월 4일 53존불 8면 9층 다보탑 점등법회를 봉행했다. 삼광사 주지 화산 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된 이번 법회에서 참가자들은 권공 · 축원과 함께 점등을 하고 탑돌이를 실시했다.

화산 스님은 “탑묘에 밝힌 이 등불을 시작으로 온 누리에 자비의 등불이 물결칠 수 있도록 모든 이들이 헌등공양을 올려 부처님오신날에는 거리 · 집집마다 봉축 등불이 물결쳐 사바세계에 오신 부처님 뜻을 전하자”고 말했다.

한편, 1997년에 낙성한 53존불 8면 9층 다보탑은 기단폭 14.55m에 전체높이 30m 규모로 티베트, 미얀마, 인도에서 봉정한 부처님 진신사리 10과와 53존불, <법화경> 육요품, 변상도, 비천상 등이 새겨져 있다. 김진성 기자

“종단 미래 준비 최선 다할 것”

무량종 혜안 스님 제1세 종정 취임



4월 8일 봉행된 무량종 종정 취임법회에서 법문하는 혜안 종정스님.

무량종은 4월 8일 총본산 하동 칠보정사에서 제1세 종정 혜안 스님 취임법회를 봉행했다.

이 날 법회는 각 종단 종정스님들을 비롯한 사부대중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법하게 봉행됐다.

혜안 스님은 법어를 통해 “창종 10주년을 맞아종도들과 함께 종단중흥 및 불교발전을 위한 100년을 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혜안 스님은 1977년 금담 스님을 은사로 비구계를 수지하고 (사)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 이사,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 이사 등을 역임했다. 현재 (사)대한불교종단진흥총연합회 부총재 등을 맡고 있다.

한편, 이날 법회에서는 칠보정사 석굴암 문수궁 낙성식과 무량종 제4대 총무원장 보경 스님의 취임법회도 함께 봉행됐다. 김진성 기자

‘금강경’ 강의

상륜불교대학 개교

<금강경>에 대해 깊이 있게 공부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진각종 포항 상륜심인당(주교 승명)은 4월 1일 심인당 부설 상륜불교대학을 개교했다. 상륜불교대학은 2010년 2월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7~9시 <금강경> 강의를 진행한다.

강의는 무료(교재비 3만원, 학생회비 2만원)로 진행되며, 수강을 원하는 학생은 사진 1장을 지참해 4월 30일까지 상륜심인당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상륜불교대학장 승명 정사는 개교행사에서 환영사를 통해 “금강경은 부처님 정신을 완전히 담은 엑기스”라며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세상살기가 어려워진 이 때 <금강경>의 도리로 마음을 단단하게 정진해 희망의 등불이 되자”고 강조했다. (054)247-2193 김진성 기자

16일 진각종 통리원장 선출

4월 14~15일 ‘춘기 스승강공’

진각종 통리원장이 새롭게 선출된다.

진각종 종의회(의장 성초)는 4월 16일 오후 4시 서울 하월곡동 총인원에서 정기종의회를 개최하고 제28대 통리원장을 선출한다. 이번에 새롭게 선출되는 제28대 통리원장의 임기는 2013년까지다.

진각종 통리원장 소임은 별도의 후보 등록 없이 행계(行階) 4급 이상의 스승 모두에게 후보자격이 주어진다. 37명으로 구성된 종의회는 후보자격을 갖춘 모든 스승을 대상으로 투표를 진행하며, 과반수(19표) 이상 득표자가 통리원장에 선출된다. 첫 투표에서 과반수 이상을 얻은 후보가 나오지 않을 경우 다득표자 3인을 선별하고, 과반수 득표자가 나올 때까지 투표를 진행한다.

진각종 통리원장 선출과 관련, 교계 일각에서는 제27대 통리원장 회정 정사의 연임이 유력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진각문화전승원 불사 마무리 등을 이유로 종단 내 지지폭이 넓을 것이라는 예측이다. 회정 정사도 1월 20일 2009년 종단 종무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임기 중 진각문화전승관을 설립하게 돼 보람을 느끼지만, 종단 내분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며 “제28대 통리원장 선출여부는 인연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진각종은 4월 15~16일 총인원에서 ‘춘기 스승강공’을 진행한다. 이원원리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스승강공은 15일 △종조전예참불사 △전법과정불사 △개회수요불사 △삼정진 △서원가 배우기, 16일 주제강론-이원원리 등으로 진행된다. 김진성 기자

봉 법주사 보은 어르신 경로잔치 한마당 축

부처님의 자비를 이웃에 전파하고 우리의 미풍양속인 경로효친 사상을 고취하고자 보은군 관내 어르신을 모십니다
뜻깊은 자리 여유로운 마음으로 참석하시어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길 기원합니다

◆일시 : 2009년 4월 15일 AM 10 ~ PM 3시
◆장소 : 보은군민체육센터
◆대상 : 65세 이상 어르신 누구나
◆지역 : 보은군 지역
◆문의 : 법주사 전화 043)543-3615



행사 일정표

1부 : 공연 (10시 - 11시)
- 사내리 풍물패 공연 (10:00~10:30) - 조계사 민요공연 (10:30~11시)

2부 : 행사 (11시 - 11:40)
- 개회 - 삼귀의 - 반야심경 - 시상(장수상, 효행상)
- 감사패 전달(이름:양춘동, 불명:지인(智璘). 보문선원 신도, 010-3766-5738)
- 주지스님 인사말씀 - 각 귀빈 축사 - 신도회장 축사 - 내외귀빈 소개
- 찬조 시주자 발표 - 사홍서원

3부 : 점심 (11:40 - 12:40)
- 점심시간
- 돋보기 나눠주기 (사회자는 각 면단위로 돋보기 배포 시간 알려줄 것)

4부 : 공연 (12:40 - 3시)
- 장미화 외 3명 (12:40~1:40) - 청주 MBC사회자 외2명 민요 (1:40~3시)

대한불교조계종 제5교구 본사 속리산 법주사
충북 보은군 내속리면 사내리 209 / 전화 043)543-3615



월서 스님의
주련 이야기 11

부처님은 우리 곁에 계신다

[원문]
불신보편시방중(佛身普遍十方中)
삼세여래일체동(三世如來一切同)
광대원운항불진(廣大願雲恒不盡)
왕양각해묘난궁(汪洋覺海妙難窮)
위광편조십방중(威光遍照十方中)
월인천강일체동(月印千江一體同)
사지원명제성사(四智圓明諸聖士)
분임법회리군생(賁臨法會利群生)
–법주사 대웅보전

[번역]
부처님 몸은 시방세계에 두루 가득하고
삼세의 모든 부처님들도 이와 매 한가지네.
크고도 넓은 원력구름은 항상 다함이 없고
한없이 넓은 깨달음의 바다 그 끝이 아득하네.
위세의 빛은 시방세계에 두루 가득하고
천강에 새긴 천개달빛은 오직 한 가지.
네 가지 지혜 꿰뚫어보는 모든 성현들이
서둘러 법회에 오셔서 중생에게 이득을 주시네.

석가모니불과 비로자나불 노사나불이 '삼신불'
일체중생의 고집멸도 지혜로 해탈하게 이끌어

[선해(禪解)]
법주사는 나에게 있어 특별한 의미가 서려 있는 곳이다. 나의 은사이셨던 금오 스님께서 사리각에서 열반한 곳이기도 하며, 내가 한 때 재무국장 소임을 맡았던 곳이기도 하다. 요즘에도 틈만 나면 법주사로 발길을 돌린다.

법주사의 봄은 느릿느릿 온다. 속리산에는 꽃다지, 제비꽃, 복수초, 벌꽃, 솜나물, 양지꽃 등 예쁜 꽃들이 지천이다. 뿐만 아니라 가을 단풍은 어느 지역보다도 빨리 와서 불을 지피다가 일시에 사그라진다. 해마다 단풍객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기 때문에 언제나 붐비는 곳이 법주사다. 그래서 한국의 사찰하면 법주사를 결코 빼놓을 수가 없다.

법주사의 명칭 속에는 부처님의 깊은 법(法)의 정신이 숨겨져 있다. 불법을 구하기 위해 인도 천축으로 건너간 의신(義信) 스님은 그곳에서 경전을 얻어 귀국, 나귀에 싣고 속리산으로 들어가 신라 진흥왕 때 이 절을 창건 하였다고 전해지고 있다. 법이 안주할 수 있는 탈속(脫俗)의 절이라는 의미에서 법주사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한다.

그러나 법주사의 정신적 지주가 된 미륵신앙(彌勒信仰)이나 법상종(法相宗)의 유식사상(唯識思想)은, 혜공왕 때 이 절의 중흥에 크게 기여한 진표(眞表) 스님과 그의 제자 영심(永深) 스님에 의하여 발현된 것이라고 한다. 이후 신라 성덕왕 때 중수하였는데, 지금 남아 있는 석물(石物)은 모두 이 때 만들어진 것이다. 그 후 여러 차례 중수를 하여 현존하는 목조건물은 모두 조선 후기의 것이다.

경내에는 국보 55호인 법주사 팔상전을 비롯하여 국보 5호인 쌍사자석등, 국보 64호 석련지와 보물 15호인 사천왕석등, 보물 216호 마애여래의상 등이 있으며 원통보전(圓通寶殿), 세존사리탑(世尊舍利塔), 사천왕문, 희견보살상(喜見菩薩像), 복천암 수암화상탑(福泉庵秀庵和尙塔), 복천암 학조등곡화상탑(學祖燈谷和尙塔) 등의 지방문화재가 있다.

이 밖에 대웅보전 · 조사각(祖師閣) 일주문(一柱門) 홍전문(紅箭門) 대종각(大鐘閣) 능인전(能仁殿) 석조(石槽) 수정암(水晶庵) 중사자암(中獅子庵) 및 여러 대사의 비, 암지(庵址) 등 많은 유물이 있다. 또 조선 후기까지 35칸에 2층으로 된 이 사찰의 중심 법당인 용화보전(龍華寶殿)이 있었고, 이 전각 안에 금색의 육장상(六丈像)이 있었다. 하지만 당백전(當百錢) 주조 명목으로 대원군에 의해 육장상은 압수되고 용화보전도 헐리게 되었다. 1989년에는 사월 초파일에 옛 용화보전 자리에는 높이 33m의 청동미륵불이 점안되어 법주사의 새로운 상징물이 되었다.

문장대도 빼놓을 수가 없다. 큰 암석이 하늘 높이 치솟아 흰 구름과 맞닿은 듯한 절경을 이루고 있어 운장대(雲藏臺)라고도 하는데 비로봉(毘盧峰) · 관음봉(觀音峰) · 천황봉(天皇峰)과 함께 속리산에 딸린 고봉이다. 산마루에는 등산객이 앉을 수 있는 빈터가 있으며 속리산의 절경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곳이다.

법주사 대웅보전은 조일(朝日)전쟁 이후 건립된 것으로 계단식은 세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가운데 길은 부처님의 답도(踏道)로 조성 되었으며 위의 계단에는 연잎이 새겨져 있어 계단을 밟을 때 속세의 떼를 씻어 내도록 하고 있다. 불단 안에는 법신불인 비로자나불과 보신불인 노사자나불, 화신불인 석가모니불이 모셔져 있는데 대웅보전의 주련들은 이를 담고 있다.

'불신보편시방중 삼세여래일체동: 부처님 몸은 시방세계에 두루 가득하고/ 삼세의 모든 부처님들도 이와 매 한가지네.'

부처님은 어느 특정한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상시 어느 곳에도 존재하고 있듯이 삼세 모든 부처님도 항상 우리 주변에 존재하고 있다는 뜻이다. 원래 삼신불은 법신(法身) 보신(報身) 화신(化身)으로 구별되며 일반적으로 법신은 비로자나불(毘盧遮那佛), 보신은 노사나불, 화신은 석가모니불을 지칭한다. 우리나라의 대웅전에 봉안하고 있는 삼신불은 선종(禪宗)의 삼신설을 따라 비로자나불 · 노사나불(盧舍那佛) · 석가모니불을 봉안하는 것이 통례인데 삼신불을 봉안하고 있는 법주사는 화엄학을 중시하였던 사찰이었음을 알 수 있다.

'광대원운항불진 왕양각해묘난궁 : 크고도 넓은 원력구름은 항상 다함이 없고 한없이 넓은 깨달음의 바다 그 끝이 아득하네.'

이와 같이 삼세부처님의 원력은 다함없고 그 끝이 없으며 깨달음 또한 바다처럼 가히 없이 넓고 깊다. 뿐만 아니라 '위광편조시방중 월인천강일체동' 처럼 부처님의 원력은 천강에 비친 천개 달빛이 오직 하나이듯이 그 위세 또한 말로 표현 할 수 없이 위대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구절이다.

'사지원명제성사 분임법회리군생: 네 가지의 지혜를 꿰뚫어보는 모든 성현들이 서둘러 법회에 오셔서 중생에게 이익을 주시네.'

그럼, 이 네 가지의 지혜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바로 고집멸도(苦集滅道)의 사성제를 가리킨다. 즉 괴로움의 원인인 갈애가 있어 그 결과로 괴로움이 있고, 괴로움의 원인인 갈애를 자애로 바꾸게 되어 마침내 괴로움의 소멸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부처님의 네 가지 지혜를 가진 스님들이 오늘도 곳곳에서 법회를 열어 어리석은 중생들을 깨우쳐 주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법주사 대웅보전에 새겨진 주련은 부처님의 위대한 법을 널리 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조계종 원로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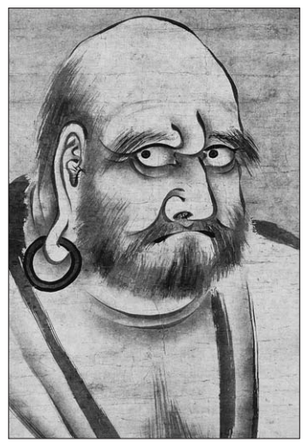
아봐타 코스
나를 찾아 떠나는 9일간의 내면여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밝은길 아봐타 센터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지금이야 말로 당신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일생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아봐타 마스터 김희균
● 전화문의 상담 환영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45-3
전화 010-6230-2113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heegyun@avatar21.com

덕산 스님의 달마록 선해
달마혈맥론 11

성품은 누구나 본래 갖춘 것

[원문]
性卽是佛 佛卽是自在人 無事無作人 若不見性 終日茫茫 向外馳求 覓佛元來不得.
성품이 곧 부처이다. 부처란 자유자재한 사람이며, 본래 갖추고 있는지라 쓸데없이 밖으로 구하려 하지 않는 사람이며, 인위적으로 만들어지지 않는 사람이니라.

[해설]
물이 찬 기운을 만나면 얼음이 됩니다. 이 때 물과 얼음은 하나입니다. 반야심경에서 '색(色)이 곧 공(空)이요 공이 곧 색이다(色不異空 空不異色)' 하잖아요. 그러니 모양이 있는 것과 모양이 없는 것은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얘깁니다. 이 말은 '물이 곧 얼음이고 얼음이 곧 물이다' 라는 말과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반야자리에서의 '체'와 '용'은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이야기입니다.


상계(祥啓) 작 달마도(일본 南禪寺 소장).

육안으로 살고 있는 중생은 실상을 못 보고 겉만 보고 살고 있습니다. 실상에서 보면 우리는 본래 하나입니다. 그래서 조사선과 간화선을 이야기 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조사선은 우주를 그대로 하나로 보고 닦아 나가는 것이에요. 간화선은 의심을 들어서 참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지장보살', '관세음보살' 하며 염불할 때 그 염불하는 놈이 곧 우주와 하나라는 얘깁니다.

달마 스님께서도 형상에 치우친 염불을 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관세음보살을 생각하며 하는 염불은 관상염불이라고 하고, 소리만 내서 하는 염불을 칭명염불이라고 하는데 이런 염불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십니다. 물론 실상 자리에 마음을 두고 하는 염불을 반대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기에 우주를 그대로 하나로 보고 의심을 하면 간화선이요, 염불을 하면 염불선이 되고, 주력을 하면 주력선이 되는 것입니다. 우주를 그대로 하나로 생각하며 또한 의심을 하면 이것이 화두가 되고 선(禪)이 된다는 얘깁니다. 산신을 찾아도 우주와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고 산신을 찾으면 상관이 없는데, 산신각을 찾는 분들은 밖에 있는 산신을 생각하며 찾겠죠. 이런 것을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 공부를 할 때 용(用)과 체(體)를 정확히 알고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법을 알 때 부처님 법을 만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불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처를 찾는다는 것은 곧 성품을 보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수행을 통해서 성품을 보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설명을 통해서 이해로써 깨닫기도 하는데 그것을 해오(解悟)라 합니다. 이렇게 해오라도 하고 정진을 해야 바른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불자님들은 걱정하시는 일들이 많겠죠? 지금 당장 집에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해결해야 하는데 성불(成佛)은 무슨 성불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본래 우주를 하나로 보고 정진을 하면 여러분들 뜻은 자연히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꼭 바라지 않더라도 우주의 실상자리에 마음을 두고 가기 때문에 좋은 기운으로 업(業)도 맑아지고 탁한 기운도 정화되고 좋은 인연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금강경>에 보면 아무리 정진을 해도 남으로부터 욕됨을 받는 원인에 대해 부처님께서는 전생의 업이 너무 무거워 수행을 해도 그 업이 남았기 때문에 남에게 욕됨의 소리를 듣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 하십니다. 그러니 당연히 받아야 된다는 얘깁니다. 우리가 이런 도리를 잘 알고 행해야 됩니다. 우리의 자성(自性)이 바로 부처다 이런 얘깁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생각 하잖아요. 그것도 마음의 작용이죠. 그러나 그것을 부처라고 이야기 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번뇌입니다. 마음이 부처라는 말은 번뇌인 생각을 이르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기 이전의 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부처님 자리입니다.

여러분들도 본래 마음을 모두 가지고 있으니까 부처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마음뿐만 아니라 이 안경도 본래는 부처입니다. 이것을 쪼개고 쪼개서 분석해보면 물질이 아닙니다. 본래 자리에 들어가면 생명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원래 식물도 모두 하나의 생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방석도 천으로 만든 것이지만 모두 생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성품을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모두 다 생명 아닌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를 찾으려면 견성(見性) 즉, 자기의 본성을 보아야 합니다.부처란 자유자재한 사람이며, 본래 갖추고 있는지라 쓸데없이 밖으로 구하려 하지 않는 사람이며, 인위적으로 만들어지지 않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부처는 만드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성품은 천년 전이나 천년 후나 항상 그 자리입니다. 본래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래 부처님인데 과거생으로부터 본래의 성품을 등지고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알고 집착하여 윤회하게 되는 업력을 스스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 뿐만 아니라 물질로 이루어진 것은 시시각각 변하므로 모두 사실이 아닙니다. 마음에서 보면 텅 비었습니다. 물질이 아닙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사실이라고 믿지만 속는 겁니다. 내 소유로 만들고 싶어하는 마음, 즉 욕심으로 인해 우리는 사실이 아닌 것에 속는 겁니다. 이렇게 속고 저렇게 속고 상처 받으면서 업의 끈에 묶여 다시 윤회하게 하는 업력(業力)을 스스로 만들고 , 다시 그것에 끄달려 가는 겁니다.

■ 청주 혜은사 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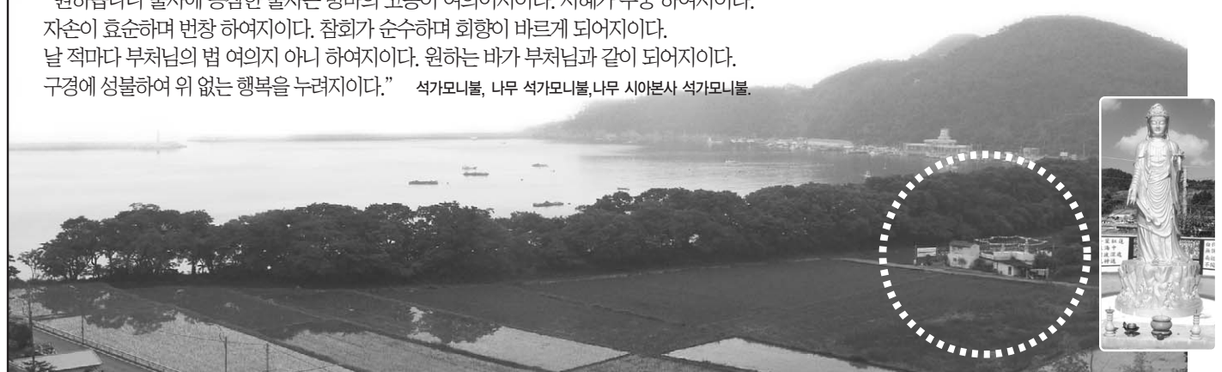
영험한 돌미륵 남해 미륵암 - 대웅전 중창불사를 위한 만등불사



귀의 삼보하옵고,
경남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미륵암(주지 청운)은 한 사찰로서가 아니라 주민들의 안녕과 염원처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염원과 원력으로 미륵암을 창건하였으나, 정성이 부족하여 아직도 부처님의 도량이 중수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부처님을 시봉하는 소승이 부끄러운 마음을 모아 대웅전 중창의 대원력을 발원하고 많은 신심있는 불자님들의 염원 동참을 기원하면서 일인 일등 만등불사의 뜻을 높이 들겠습니다. 불가의 중수 중창은 불보살님이 가피가 우선되어야 하며, 시절 인연도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사부대중의 지극한 신심이 있다면 아무 문제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것은 우연이 없습니다. 정진의 노력으로 미륵암의 중창을 위해 매진하겠습니다. 일인 일등으로 만등의 등불을 밝혀 법계 광명하기를 기원하오며, 빈자일등의 행을 지어 청정한 마음으로 지혜의 광명 얻으시길 간절히 발원하옵니다. 광명의 등, 용서의 등, 관심의 등, 쾌유의 등, 성취의 등, 왕생극락의 등, 애정의 등, 인연의 등으로 함께 하소서....

남해 미륵암 주지 청운 합장

만등불사 발원문
"원하옵나니 불사에 동참한 불자는 병마의 고통이 여의어지이다. 지혜가 무궁 하여지이다.
자손이 효순하며 번창 하여지이다. 참회가 순수하며 회향이 바르게 되어지이다.
날 적마다 부처님의 법 여의지 아니 하여지이다. 원하는 바가 부처님과 같이 되어지이다.
구경에 성불하여 위 없는 행복을 누려지이다."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



미 륵 암 주지 청 운 합장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63번지.(물건리 방조어부림 앞)
계좌번호 : 하나은행 511-910006-06204 / 농협 : 831075-51-023041 (예금주 : 미륵암)
종무소 : 055)867-0776, 2259 / fax 055)867-8009

미륵암의 돌미륵님
지금은 방조어부림(방풍리)과 방조제로 인해 남해바다에서 불어오는 거친 풍해를 이겨냈지만 바다를 관장하는 해신의 평안을 빌고자하는 의식은 예로부터 여전히 계속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의식은 단지 바다를 상대로 하는 절대 의식에서 발전하여 개인의 안녕과 발전을 염원하는 물건리 토속신앙의 대상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적 토속신앙의 대상이 바로 물건리 미륵암에 모셔져 있는 돌미륵인 것입니다.



미륵암 주지 청운스님은 물건리 바다 한가운데서 현재의 미륵암으로 광명이 발현하는 두 번의 선몽을 받은 후 돌섬 한구석에 잠들어 있던 돌미륵을 찾아 미륵암 현위치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부처님의 계시대로 돌미륵을 모신 후 정성껏 기도를 드리기 시작한 후로 어업자의 만선과 물건마을의 대소 악재는 씻긴 듯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 소문이 물건리는 물론 삼동면 골골 흘러나가 지금은 누구나가 염원에 대한 기도처로서 인식하게 되었고, 그 소원성취 또한 자명한 사실이 되었습니다. 이 돌미륵은 그 영험함을 나투어 어업자를 위한 미륵, 사업자를 위한 미륵, 학업자를 위한 미륵으로 남해군민 불자 및 물건마을 불자들의 항상 성불을 이루는 영험한 미륵으로 신앙심으로 높으며, 누구나 꼭 한 가지 소원은 성취하게 하는 미륵보살로 그 영험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험함이 계속되기 위해서는 돌미륵에 대한 기도는 물론이요 적절한 관리와 보존이 우선되어야 하는 필요성은 당연한 것입니다. 미륵암 돌미륵의 지방문화재 지정은 물건리는 물론 삼동면 주민들의 안녕과 염원처로서의 정신적 귀의처를 확인하는 절차임을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불사내역
■ 미륵암 한평 내 땅 갖기(개인법인설립위원의 자격)
■ 만등불사
■ 기둥불사, 용머리, 부연, 주춧돌, 후불탱화, 닷집, 천불상, 대들보, 상량대, 도리랭이, 도리, 석가래, 부처님 법단, 법당문, 기와
■ 미륵 지방문화제 등록 중
■ 반야심경, 달마도 등등 각종 액자
■ 신도증 발급(4.8까지 접수, 사진1매)



◇금강경 병풍 전시 관매

미륵암의 신비하고 영험한 미륵보살의 원력을 체험하려 오세요!!

마음은 몸의 운전수 좋은 생각해야 '불생불멸'

자광 스님
(전 직지사 주지)



김용사로 출가해 주지 소임 지내…전국 다니며 법문
"생각이 곧 말이 되고, 말이 곧 행동되니 말조심해라"

1.태어나기 전에 정해진 길

"우리에게는 두 사람의 아버지가 있어요. 한 사람은 나를 낳아 준 아버지이고, 한 사람은 정신세계를 인도하는 아버지입니다. 이곳에는 여러분들을 바른 세계로 인도해주는 아버지 석가모니 부처님이 계십니다."

소학교 6학년 때 김룡사로 가을 소풍을 온 소년은 안내하는 스님의 말씀을 듣고 가슴이 설레었다. 첫 돌 전에 돌아가서 얼굴도 모르는 아버지, 한 번도 불러보지 못한 아버지가 이곳 김룡사에 계신다고 하니 얼른 만나보고 싶었다.

소년은 스님에게 아버지를 불러보고 싶은 마음을 털어놓았다. 친구들이 모두 돌아간 뒤 나한전에 들어갔다. 나한전의 문을 여는 순간 금색의 몸을 하고 있는 불상이 눈에 들어왔다. 저 분이 아버지라 생각하니 너무 반가워 와락 껴안고 싶었다. 그동안 불러보지 못한 "아버지"를 몇 시간이고 목놓아 불렀다. 얼굴은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되었고, 온 몸은 땀으로 흠뻑 젖었다. 불상 옆에 있는 수많은 나한들 또한 아버지로 다가왔으니 소년은 한꺼번에 많은 아버지를 얻은 것만 같았다. 이제 아버지가 계신다고 생각하니 아버지 없던 설움이 씻은 듯 날아갔다.

중학교 1학년 때 하늘같이 의지하고 살았던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오른팔을 잃게 되었다. 소년은 깊은 슬픔에 빠졌다. 어린 나이에 인생을 알 수는 없지만 평탄치 않은 자신의 운명에 대해 절망했다. 어머니는 교통사고를 당한 후 김룡사의 화주보살이었던 시어머니를 따라 열심히 절에 다녔다. 지금은 열반하신 혜암 스님을 뵙게 된 어머니는 "내가 왜 팔이 끊어져야 하는 고통을 당해야 하느냐"고 하소연했다. 그랬더니 혜암 스님은 "그런 일을 당하는 것이 당연하다"면서 "사람들에게 오른손으로 술집을 가리켜주었으니 그런 일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일침을 놓았다.

혜암 스님의 말씀 한 마디에 어머니는 모든 것이 운명임을 절감하고 전생 빚을 갚는 것은 물론이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겠다는 일념으로 더욱 부처님께 매달렸다. 성철 스님이 김룡사에 주석하였을 때 어머니는 성철 스님으로부터 보살계를 받았는데, 그때 불명이 '여래자(如來子)'였다. 성철 스님께 여래자의 뜻을 물었더니 '여래의 아들을 낳았다'는 의미라고 풀이해주었다.

"보살 아들은 출가 할 운명을 타고 났으니 여래의 아들을 낳은 것이 맞지? 그러니 그 이름을 줄 수밖에 없지."

성철 스님의 말씀을 듣고 어머니는 '아들을 출가시켜라'는 의미로 받아들였다. 이렇게 해서 눈에 보이는 그리고 보이지 않는 억겁의 수많은 인연의 고리에 의해 자광 스님은 출가의 길을 걷게 되었다. 스님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미 세상에 나오기 전부터 출가의 길이 예정되어 있었음'을 느낄 수 있다. 부처님과 첫 인연을 맺었던 곳이 김룡사였는데, 자광 스님은 십몇 년 동안 김룡사 주지 소임을 맡아 일했다. 혹시 김룡사 중창설화의 주인공인 '김용'이 미처 끝내지 못한 일을 마저 하기 위해 환생한 것은 아닌지 묻고 싶어진다.

자광 스님은 스물여섯 살 때 팔공산 북지장사에서 도봉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다음은 은사이신 도봉 스님으로부터 받은 법어인데 이것이 평생의 지침이 되었다고 한다.

유연직주(有緣直住) 인연이 있으면 머물러라.
막존시비(莫存是非) 어떤 일이 있어도 시비를 두지 말고
불탐소출(不貪所出) 나오는 바를 탐하지 말라.
무연이거(無緣而去) 인연이 없으면 떠나거라.

"은사 스님은 평생을 수행자로서 올곧게 살다 가신 분입니다. 인연이 있으면 머물고 머물러도 시비를 두지 말라고 했어요. 또 거기에서 얻어지는 소출을 다 되돌려 회향하고 또 인연이 없으면 떠나는 그런 마음으로 살라고 가르쳤습니다."

자광 스님은 실상사, 봉암사, 직지사 등 여러 사찰의 주지 소임을 맡아 수십 년간 수행과 포교에 매진하기도 했다. 은사의 가르침대로 인연 따라 살다보니 지금은 물같이 바람같이 떠돌면서 법문 청하는 곳이 있으면 어디든 달려가 법문을 토하는 것이다. 스님의 다이어리를 보면 쉬는 날 없이 법문 일정이 빽빽하게 적혀있다.

사람들은 자광 스님을 가리켜 설법제일인 '부루나 존자'라고 한다. 부루나 존자는 어느 곳에서 누구에게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올바르고 쉽게 설명해주었기에, 부처님으로부터 '설법제일'이라는 인가를 받게 되었듯이 자광 스님 또한 그러하다. 불교TV에서 <원각경>과 <증도가> 강의를 했는데, 어려운 내용을 잠으로 쉽고도 재미있게 풀어냈기에 스님의 인기는 끝없이 치솟았다.

자광 스님께서 설법제일이라는 칭호를 듣게 된 그 이면에는 경상(經床)에서 무수한 낮과 밤을 맞이하고 보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자광 스님은 관응 스님을 비롯하여 구산, 일우, 각성 스님 등 대강백을 모시고 경학과 어록을 두루 공부했다.

2. 온곳도 없고 갈곳도 없으니…

완주 송광사에서 자광 스님의 법문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새벽길을 내쳐 달려온 것이다. 다행히도 밤을 도와 내리던 비는 수굿해졌다. 송광사 설법전에는 이백여 명의 사람들이 정좌하고 스님의 법문을 기다리고 있다. 설법전 바깥에는 자리가 없어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이 애를 태우고 있다. 자광 스님은 그날의 법문 내용을 A4용지에 앞뒤로 소상하게 적어 와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청법가가 끝나고 자광 스님이 사자좌에 오르자 우레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다.

"여러분, 박수소리는 어디로 돌아갑니까?"

누군가가 허공이라 답했다.

"허공으로 돌아간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손바닥으로 돌아갑니다."

자광 스님은 주장자를 번쩍 들어 보이면서 말씀을 이어갔다.

"이 주장자는 죽었다고도 살았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조실 스님들이 '이 주장자 안에 모든 법문이 다 들어있다' 하고 말을 마치는데 제가 오늘 그 뜻을 가르쳐 주고 싶어서 이 주장자를 든 것입니다. 이 주장자가 된 나무는 살았을 때는 꼼짝하지 않고 한 자리를 지켰지만, 죽어서는 이렇게 온 천지를 다니니 죽은 것이 아니지요. 하지만 이 나무는 생명이 없으니 살았다고는 할 수 없어요. 우리 마음도 이처럼 태어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습니다. 조실 스님들이 주장자를 들어 보이는 것은 '보고 듣는 이것이 무엇인가?' 하고 묻는 것입니다. 마음은 몸의 운전수이니 좋은 생각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 생각을 조심해야 합니다. 생각이 곧 말이 되고, 말이 곧 행동이 되니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행동을 조심해야 하는 것은 행동이 곧 버릇이 되고 버릇이 곧 운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타고난 운명에 부처님의 기운을 좀 많이 불어넣어서 자신을 완전히 바꾸어야겠지요? 무명을 사랑하면 윤회를 하고, 광명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불생불멸의 세계에 갈 수 있어요. 마음의 실상을 깨쳐서 무생법인을 증득해야 합니다."

자광 스님은 자기 마음을 잘 조절하면 복이 많이 들어온다는 방편 불교에 끄달려서 마음닦는 것을 소홀히 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방편 불교보다는 진실 불교를 지향해야 합니다. 진실불교란 내 스스로가 실천하고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밥이 많아도 다른 사람들이 먹으면 내 배가 부르지 않듯이 좋은 일을 하지 않고는 복을 지을 수가 없어요. 복 받는 것도 누가 대행해 줍니까? 자식들을 위해 절에 와서 시주하는 것을 대행이라고 하면 대행이라 할 수 있어요. 대신 기도해 주는 것 보다 더 좋은 것은 자식에게 불법을 가르쳐 주고 불교적인 삶을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방편불교보다 빠르고 복 받을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다음에 올 때는 아이들도 데리고 와서 함께 법문 듣도록 하세요."

스님은 일방적인 법문이 아니라 청중과 함께 소통하기를 원하기에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이끌어나갔다. 스님은 또 다시 "그대는 어디서 왔는가?"하고 묻는다. 대중들은 "온 곳이 없으므로 갈 곳도 없습니다."라고 답한다.

"우리는 과거가 있으므로 온 곳이 있고 미래가 있음으로 갈 곳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오고감이 없다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 이 순간' 밖에는 아무

사업장의 법구 금강 삼고저

2009년 장사성공과 사업성공 축원불공 마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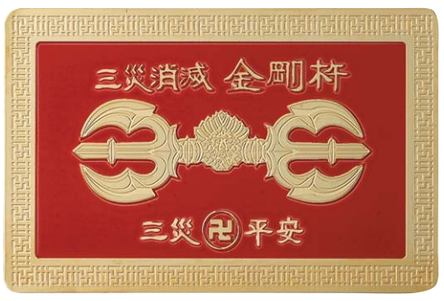
부처님 제1의 비방법구

경기가 너무없어, 장사가 너무안되, 문을 닫아야겠어, 요즘 사업을 하는 중생들의 푸념이다. 반면 목도 않좋고 불경기에도 흥왕을 누리는 점포와 사업장도 많다. 풍수학적으로 보면 부자가 되는 터가 있고, 패망하는 터가 있다. 그리고 항상 겨우겨우 먹고사는 터가 있다. 한건물 한지붕 밑에서도 좋은터가 있어 사업이 잘되고 장사가 흥왕하는 것을 볼수 있다. **장사가 안되는 자리를 보면 보이지 않는 잡귀의 방**

장사가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사업이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해로 오는손님의 마음을 흔들어 문앞에서 방황하게 만들고, 들어왔다해도 결정을 못하게 방해하며, 일하는 사람이나 직원들은 오래 있지 못하고 첫손님이 헛손님이 되면 하루종일 헛손님으로 장사를 힘들게 잡귀가 조화를 부린다. 부처님 제1의 생활법구인 금강삼고저는 장사 성공을 기원하는영험의 법구로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거상들이 사업장에 걸어 놓았던 금강삼고저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유물로 볼수 있다. 경제대국 일본의 각종 식당과 점포, 각종 사업장, 산재위험이 있는 사업장 등에 금강삼고저가 걸려 있는 것을 쉽게 볼수있다. 불광사에서 장사흥왕및 사업번창과 산재예방의 축원불공을 마치고 시판하는 금강삼고저는 가로8cm 세로3.5cm에 벽에 걸게 고리와 수술이 달려있어 사업장 안에 걸어 놓으면 금니로 제작해 품위도 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린다. 보시가격:85,000원 (신용카드 분할가)
문의(02)741-4488
농협 : 032-12-193445 이상하

장사 성공을 축원합니다
식당, 가든, 의류점, 보석상, 부동산중개소, 이미용실, 목욕탕, 다방, 정육점, 노래방, 주점, 모텔, 여관, 병원, 각종학원, PC방, 당구장, 서점, 인쇄소, 문방구, 기원, 복권방, 각종스포츠센타, 핸드폰점, 분양사무소, 안경점, 신발매장, 전자제품매장, 미곡상, 방앗간, 공장, 주유소, 산재사고 위험사업장 등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2009년 가는 삼재조심 소띠,뱀띠,닭띠

제일힘든 떠나는 삼재소멸과 365일 무탈 발원 금강저

2009년 제일 힘든 나가는 삼재시작!
나가는 삼재화를 소멸하고 승리하는 비방!

2007년 드는삼재 2008년 묵는삼재 2009년부터 나가는 삼재가 시작된 **소띠,뱀띠,닭띠**는 앞으로 2009년 말까지 제일 어렵다는 나가는 마지막 삼재해로 각별히 조심하고 자중자애하며 근신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지내야 한다. 드는해와 묵는해에 소띠,뱀띠,닭띠생들이 삼재화로 건강으로 고통받고, 삼재관재수로 법적인 문제에 휘말려 고통받고, 삼재액운으로 사업이 실패하고 재산을 소진하며, 가정이 파탄되고, 하는일마다 뜻대로 되는일이 없으며 갖가지 어려운 고통속에 삼재화를 당하는 중생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남은 2009년말까지 나가는 삼재가 제일 어려운 시기이므로 완벽한 비방을 하는것이 안전합니다. 불가에서는 삼재기간중 삼재화를 막아 액란을 모면하는 비방으로 중생들에게 부처님법구인 **금강저**를 몸에지니고 다니게 하고 나가는 삼재해에는 365일간 삼재소멸 불공과 무탈기원을 합니다. 또한 삼재기간중 삼재소멸비방을 잘하고 자중자애하며 공덕을 쌓으면 삼재기간에도 크게 성공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삼재소멸금강저는 제일 어렵다는 나가는 삼재소멸 축원불공을 마치고 불광사에서 전화로 신청하면 금강저를 보내드립니다.
금액45,000원 **문의((02)741-4488**
입금농협: 032-12-193445 이상하

1929년생 뱀띠	1957년생 닭띠	1985년생 소띠
1933년생 닭띠	1961년생 소띠	1989년생 뱀띠
1937년생 소띠	1965년생 뱀띠	
1941년생 뱀띠	1969년생 닭띠	※적색글씨에 해
1945년생 닭띠	1973년생 소띠	당되는 분은 악
1949년생 소띠	1977년생 뱀띠	삼재입니다.
1953년생 뱀띠	1981년생 닭띠	

화제의 염주

천연백수정108 염주

승리의 염주,행운의 염주,불멸의 염주



인연의 귀인을 만나 성공하는 인연염주!
건강 장수와 행운이 함께하는 평생염주!


특별선물 : 단주

영원히 살아 숨쉬는 천연백수정 108 법륜 염주가 수입되어 시판하고 있어 화제다. 천연백수정은 미륵 부처님 이마에 점안을 하는 보석으로 어둠과 고통속에 있는 중생들을 구제하고 밝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영원히 점안해 있는 것이다.

인도에서는 천연백수정을 불멸의 부처님 보석으로 간직하고만 있어도 사업이 망하지 않으며, 병든 중생은 건강장수하고, 인연의 짝과 인연의 귀인을 만나 근심 걱정이 해결되고 그 인연의 만남으로 원하는 계획이 성공되는 행운의 보석이라 해. 인도 부유층 사람들이 천연백수정을 염주로 만들어 예불법구로 사용하고 있다.

고대 인도 부유층 인사들과 아라비아 거상들의 전통모자에는 행운을 안겨주는 불멸의 천연백수정을 부착하고 다니는 것을 영화에서 종종 볼 수 있다.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것이 인연법이다.

불자라면 누구나 염주는 필수품 !

한사람의 인연의 귀인을 만남으로 인생이 바뀌는 것을 볼수 있다. 환자는 인연의 의사를 만나면 고통이 살아지고, 사업가는 한사람의 인연으로 사업이 성공되고, 원대한 불사도 한사람의 인연으로 불사가 완성 되는것을 볼수있다.

불멸의 평생염주인 천연백수정 108염주는 사용하실분의 원하는 소원이 성취되게 성명과 생년월일을 알려주시면 100일 축원불공을 올려드리며108염주외 시판기념으로 항상 가지고 다니는 천연백수정 단주를 특별선물로 드립니다.
가격:95,000원 (카드분할가)
문의(02)741-4488
농협 : 032-12-193445 이상하

남과 다투지 않는것이 불공

것도 없는 것이지요. 우린 지금 이 순간을 살고 있기에 내가 살다가 죽는 날도 오늘이요, 내가 다시 태어난 날도 오늘이기에 오늘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합니다."

자광 스님은 '불자들의 삶이 어떻게 하면 향기로울 수 있는지'를 들려주기 위해 먼저 이미자의 노래 '내 삶의 이유 있음은'을 음정 박자 무시하고 멋지게 불렀다. 생각나는 가사 중 일부분을 떠올리면 '..... 나 아픔 속에서도 살아갈 이유 있음은 내 안에 가득 사랑이, 내 안에 가득 노래가 있음'이라는 구절이다. 아픔 없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마는 그래도 다들 꿋꿋하게 살아가는 것은 아픔을 견디면서 살아갈 이유가 저마다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자광 스님은 사자좌에서 권위 같은 것을 벗어던진 지 오래고, 음정 박자 무시하고 기분에 취해 불러대는 노래는 청중들의 가슴을 후련하게 해준다. 우리의 뇌는 구체적인 정보를 기억하도록 만들어졌음을 이미 간파한 스님은 항상 구체적이면서도 단순한 이미지가 담긴 메시지를 들려준다. 그리고 일상적이고 실생활에서 일화를 가져오기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피부로 와 닿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바로 실천할 수 있게 해준다.

"부처님 가르침 속에서 살면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어떤 아픔이 있어도 다 극복할 수 있어요. 나를 비방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분을 스승으로 여기고 전생 빚 갚는다 생각하면 화 낼 일이 없지요. 가장 좋은 불공은 남과 다투지 않는 것입니다. 다툴 일이 생겨도 '그까짓거' 하면서 넘겨버리면 그것이 인욕이고 수행하는 것이지. 불자들이 이유 있는 삶의 향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구 위의 모든 생명들이 평화롭기를 행복하기를 발원해야 합니다. 피었다가 지는 저 꽃보다 맑고 향기로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는데 있어 주인 노릇하는 것이 향기 있는 삶입니다."

여기에 한 마디 덧붙였다.

"내 주위가 점점 아름답게 보이고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물들이 뭔가 인연에 의해서 만나고 있다는 생각이 자꾸만 솟아오를 때 우리는 그때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주위를 볼 때 아름답지 않다거나 주위를 볼 때 환희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건 지식이지 지혜가 아닙니다."

스님은 어느 새 주제를 바꾸어서 요즈음 독서계와 언론매체를 장식하고 있는 다윈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창조설을 부인하고 진화설을 주창한 다윈은 20세기의 과학과 예술과 정신적 틀을 바꾸어 놓았기에 탄생 이백주년을 맞이하여 더욱 더 그 의미가 깊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능엄경>에는 지구가 만들어진 과학적인 원리가 분명하게 설해져 있습니다. 지구가 생긴 것을 확실하고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말한 종교는 불교뿐입니다. 그 좋은 성경책에도 태초에 하늘이 열리라 하니 하늘이 열렸고, 땅이 있으라 하니 땅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과학이 발달한 오늘날에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능엄경>에 언급된 지구의 탄생을 보면 다음과 같아요."

'원각(圓覺)의 밝음과 허공의 어둠이 만나서 바람을 일으켰고, 시간과 공간 속에서 쇠붙이가 생기고 거기서 사랑하니 불이 생겼고, 불이 있으니 물이 생기게 되었지. 젖은 것은 바다가 되고 마른 것은 땅이 되었는데, 또 바람이 부니 구름이 생기고 구름이 생기니 비가 되고 눈이 되고 이슬이 되는 것이다. 산천초목 등 60만 종류의 생명체가 108가지의 원소로 이루어진 지구 위에 만나고 이별하며 살게 되었다.'



자광 스님은 1943년 문경 출생. 1970년 팔공산 북지장사에서 도봉 스님을 은사로 득도. 1981년 지리산 실상사 주지, 1983년 희양산 봉암사 주지, 1989년 운달산 김룡사 주지, 2002년 직지사 주지 역임. 1989년 직지사 녹원 대종사로부터 호산(皓山) 법호를 받음. 2004년부터 현재까지 김룡사 회주. 지금은 생명나눔실천회 부이사장이며, 문경불교대학 학장이다. 저서로는 〈좋은 만남 멋진 이별〉 〈이름 없는 풀이 없듯 인연 없는 중생 없네〉 등 다수 있다.

"지구가 생겨난 이치를 정확하게 알아야 지구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이해할 수 있고 과거와 미래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천불생무연지인(天不生無緣之人)이라, 하늘은 인연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지 못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세상에 태어나고 지구가 생긴 것은 창조가 아니라 인연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연기법이지요. 여러분! 불교는 참으로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종교입니다. 불자인 것에 자부심을 가지고 지금 이 법당에서 나가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펴세요."

자광 스님은 대중가요 '내 마음 별과 같이'를 일부 개사한 것을 노래 부르는 것으로 법문을 끝맺었다.

부처님의 원만덕상 내 마음도 그와 같이~ 부처님의 청정 법신 내 마음도 그와 같이~

부처님의 대자대비 내 마음도 그와 같이~ 부처님의 신통묘용 내 마음도 그와 같이~

글·사진=문윤정(수필가·본지 논설위원)



활안 스님의 내가 만난 선지식 禪

39. 천연도인 성공스님

성공 스님은 승주군 송광면 장안 사람이다. 어려서 출가하여 송광사에서 사미 · 사집과를 보고, 해인사에 들어가 사교 · 대교를 본 뒤 선방에서 두 철을 나고 나이 70이 넘을 때까지 서울 한 번 와보지 않고 앉은 자리에서 일생을 보내신 분이다.

새벽 3시에 일어나면 도량석, 종성, 예불하고 1시간 참선을 하시고, 장엄염불을 이어서 하신 뒤 공양할 때까지 청소를 하셨다. 공양시간에는 언제나 죽비를 들고 치는데, 그 죽비가 자그마치 50년이 넘었다고 하였다.

아침 공양이 끝나면 망태기 메고 산에 오른다. 출발하면서부터

"도는 눈앞에 있다 해도 보기 어렵다네.

참된 몸을 깨닫고자 하면

소리와 빛과 언어를 떠나지 말라."

양나라 지공 대사의 <대승찬>과 12시?14과 송을 외우고, 귀종화상, 향엄 스님, 용아 스님 시도 외운다.

"용아산 속의 용 한 마리

세간의 빛깔이 아니네.

재주 있는 사람이 열두 번 그려도

그 용은 그리지 못한다네."

그런데, 어느 결에 봄에는 봄나물이, 여름에는 여름 버섯이, 가을이면 가을 열매가, 겨울에는 겨울 이삭이 바구니에 가득 찬다. 이고, 지고, 들고, 허리가 휘도록 가지고 와서 합원 대중을 공양할 때는 입이 함박 만큼 벌어진다.

"맛있지요. 산과 들이 우리를 이렇게 살 찌개 합니다. 살찐 고사리도 꺾으면 눈물을 주르르 흘리지만 도인들 입에 들어가기만 하면 모두가 성불할 것입니다."

새벽이면 청소하러 나왔다가 감 떨어진 것, 도토리, 밤 떨어진 것을 주워서 모았다가, 한 겨울이 되면 굽고, 찌고, 묵을 만들어 상사당 선방, 문수전 대중에게 내놓으면 누가 갖다 논 줄도 모르고 잘도 먹는다. 음력 시월 중추 때쯤 무르익은 다래를 따러갔다가 옛날부터 보아두었던 벌통 밑에서 꿀 한 사발 받아오면 배아프고 기침하는 사람에겐 둘도 없는 영약이 되었다.

하루는 비 오는 날 아침부터 점심 때까지 <초발심자경문>으로부터 <치문경훈>을 읽고 점심 먹고 나서는 동안 선사의 <십현담>, 부 대사의 <심왕명> 등을 외우는데, 한 여인이 담벼락에 기대 한 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가 통곡하였다.

"거 누구요. 왜 남의 절 문 앞에서 울고 있소?"

"알 수 없습니다. 스님 독경소리를 들으니 왜 이리 눈물이 날까요."

"전생에 같이 공부하던 친구가 술독에 빠져 헛세월 보내고 나니 원통해서 울지."

"제가 어떻게 술집에서 일하고 있는 것을 아십니까?"

"전생에 많이 얻어먹었으니 갚지 않고 되겠는가!"

이 소리를 들은 여인이 갑자기 승찬 대사의 <신심명>을 줄줄줄 외웠다.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은데

고르는(취사선택 하는) 것이 병이네.

미워하고 좋아하는 생각만 없으면

훤히 밝아질 것인데."

"언제 누구에게 배웠습니까?"

"스님을 뵈오니 저절로 입에서 쏟아집니다."

그는 광주 금남로 1번지에서 엄청나게 큰 요정을 하던 마담인데, 하루 아침에 발심하여 출가득도 하였다.

특히 스님께서 좋아하는 <증도가>는 하도 들어서 잊혀 지지 않는다.

"그대는 보지 못하는가.

배움이 끝난 한가한 도인은

망상을 없애려 하지도 않고

참을 구하지도 않는 것을."

무슨 책이 되었든지 한 번 보면 읽고, 두 번 보면 이해하고, 세 번 보면 외운다. 문장이 길고 짧음에 관계가 없다.

해인사에 들어가 사교·대교 본뒤 앉은자리서 일생보내

스님의 독경 소리 듣고 울던 여인 하루아침에 발심해 출가

너 마지기 논을 은사스님께 받아 일 년이면 쌀 세 가마를 자기 몫으로 내놓고, 혹 풍년이 들어 남게 되면 대중공양을 하는데, 자기 생일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이 절안의 노스님들, 회갑, 칠순 잔치를 해드린다. 도토리 메밀묵을 섬섬옥수로 장만하고, 찹쌀로 떡을 쪄 부처님께 올리면 뭉개뭉개 솟아오르는 김을 보고 누구나 침을 흘리지 않는 사람이 없다.

"많이 들 잡수세요, 죽기 전에. 못 먹고 죽으면 영혼도 불쌍하게 됩니다."

찹쌀떡에 천연벌꿀을 찍어 실날처럼 늘어지는 꿀방울을 무명지로 칭칭 감아 이 빠진 스님들 입에 넣어주시며 콧노래를 부른다.

"잡수세요. 잡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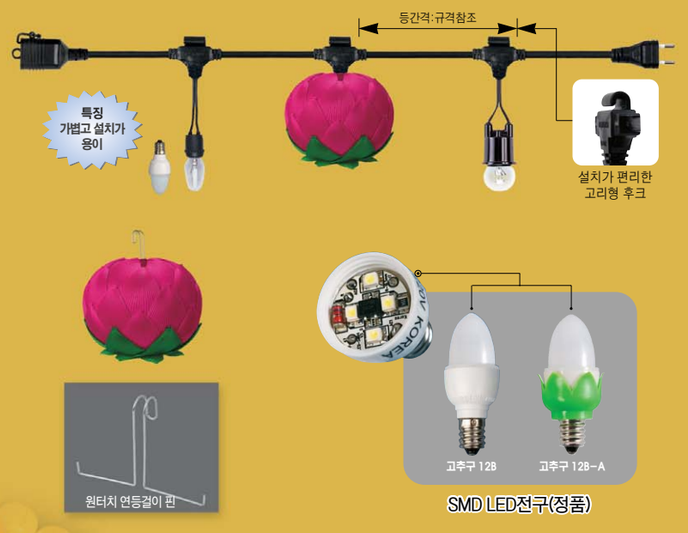
더 늙기 전에 잡수세요.

이빨 빠지면 못 먹으니

성했을 때 잡수세요."

신 제 품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그을음 없는 삼환양초를 선택하십시오 !!!

귀의 삼보하옵고, 삼환양초는 사찰에 꼭 필요한 초를 20년 넘게 생산하고 있는 양초전문 기업입니다.
사찰 및 불자님들께서 필요하신 양초 문의시 성실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실내용 양초 – 밀납, 약쑥, 식물성 양초
◇장엄용 양초 – 야광, 용초, 호랑이, 봉황(7∮ × 35㎝)
◇육각초 – 7.5∮ × 45㎝ (적색,핑크,노랑,연두,주황,백색)
국내 유통 중인 모든 양초를 제조 판매합니다
[문의] 우창산업 (삼환양초)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35-16
전화 031)766-0242-3 / 팩스 031)766-0233
소비자 무료전화 : 080-0766-8888
*주문하시면 택배로 안전하게 보내드립니다.
*구매시 카드결제가능

사찰 연등 및 전선 (법당용 외곽용)
불제 대원기업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불자 기업입니다.


불제대원기업
구입문의 (031)-986-0277~8 (02)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6 구입문의 H·P 011-630-7092
http://www.bulje.co.kr 공장 :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석모리 287-2
전선 간격
22cm,25cm,28cm,30cm, 40cm,50cm,1M,2M,3M,5M, 8M,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사찰 LED전구(정품)
▶고추전구, 인지전구(정품)
▶법당용, 외곽용
▶휠라멘트가 아닌 반도체로 되어 반영구적이다.
▶반도체로되어 화재와 전기소모가 거의없다.
▶소켓 AC220V용으로 다용도로 사용
사찰 램프전구(정품)
▶고추전구, 인지전구(정품)
▶종류: 3W, 5W, 10W
▶특 휠라멘트로 빛이 월등히 밝고 절전효과가 있다.
견전지용초, 방생, 탑돌이 행사용
청사초롱 및 초롱 걸이대
연 등(정품)
법당등(공단등), 영가등, 오색등, 황금등, 주름등, 특수등
관사찰, 법당, 외곽, 연등용 전 선 시 공



송찬우 교수의

수습지관좌선법요 <81>

(修習止觀坐禪法要)

제10장 證果 ⑦

본성은 미혹과 생사가 본래 없어

如中論偈中說 :

因緣所生法 我說卽是空 亦名爲假名 亦名中道義

여기부터는 원만한 공가중삼관(空假中三觀)의 이론에 대해 밝히고 있다. 중론(中論)은 중관론(中觀論)이라고도 한다. 중론은 인도의 용수보살이 지은 논서인데, 27품 446게송으로 되어 있다. 논서의 이름을 중(中)으로 명칭한 것은 실제의 이치를 관조했기 때문이고, 논(論)으로 호칭한 것은 그 이치를 언어로 끝까지 설명했기 때문이다.

실제의 이치는 명칭을 의지하지 않으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중'이라는 명칭에 의지해서 의미를 선양하였고, 언어로 풀이하지 않으면 의미가 끝까지 밝혀지지 않기 때문에 '논'의 형식을 빌린 것이다.

대체로 수행인이 내적으로 마음이 막히고 미혹하면 전도된 견해를 일으키기도 하고 편집된 견해에 집착하기도 한다. 이러한 폐단을 타파하려고 용수보살이 중론을 지어 중도의 이치로서 절충하여 진제와 속제가 두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밝힌 것이다. 따라서 중관론이라고 명칭하였다.

용수보살은 중론에서 이와 같이 게송으로 말하였다.

인연화합으로 일어난 모든 법은 / 나는 바로 공이라고 말하며
또는 임시적인 명칭이라고도 하고 / 또는 중도의 의미라고도 한다

이 네 구절의 게송은 의미가 심오하고 현묘하여 여래의 삼장십이부교(三藏十二部敎)가 이 사구게 가운데 포섭되지 않은 것이 없다.

'인연화합으로 일어난 법'이란 모든 허깨비와 같은 모습을 지적해서 한 말이다.

색향미촉(色香味觸)과 지수화풍 등 여덟 가지 물질을 이루는 근본요소를 능소팔법(能所八法)이라고 한다. 이 여덟 가지 법으로 이루어진 몸인 근신과 우리가 의지하고 살고 있는 세계는 모두가 허깨비 변화와 같아 색향미촉으로서 지수화풍 사대를 허깨비로 이루고 지수화풍 사대는 일체 근신과 기계를 허깨비로 이룬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오음과 육입과 십이처와 십팔계이다.

'나는 바로 공이라고 말한다'는 것은 능소팔법으로 이루어진 오온 십팔계가 출생한 자리에서 바로 소멸한다는 의미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일체 모든 법은 허공 꽃과 같아 일어나도 일어난 곳이 없어 일어나는 찰나에 즉시 소멸하며 소멸했다 해도 사라진 실재의 처소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진실하고 상주한 우리의 본성가운데서 가고 오고 미혹하고 깨닫고 태어나고 죽는 모습을 추구해보았으나 끝내 실재하는 모습을 얻을 수가 없다. 그 때문에 '나는 그것을 바로 공이라고 말한다'라고 하였다.

인연화합으로 일어난 법은 자체가 공성
차별상은 허망한 분별상으로 관찰해야

'또는 임시적인 명칭이다'라고 하여 허깨비 망상으로 호칭한 의미는 속제를 의지해서 십법계의보정보의 인과가 갖가지의 모습으로 차별이 나면서 동일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데, 그것은 단지 인연으로 화합하여 허망으로 일어났다가 인연이 분리되면 허망한 명칭도 소멸할 뿐이다. 그러므로 '거짓 명칭이다'라고 하였다.

'또는 중도의 의미이다'라고 한 것은 그 진실한 성품은 오묘한 깨달음으로써 밝은 자체라는 의미이다.

십법계의 법마다 본성을 자체로 하고 있는데, 그 예를 든다면 허공 꽃은 자체 성질이 허공이며 달 밖에 또 하나의 허깨비 달의 본성은 바로 진실한 달인 것과도 같다.

이는 생멸거래가 본래 없는 여래장으로서 상주하고 오묘하고 분명하여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두루 원만하고 오묘한 진여가 그 성품이다. 이는 진제와 속제가 두 모습이 아니므로 '또는 중도의 의미이다'라고 하였다.

이 문제를 능엄경에서는 "보는 마음과 보이는 대상에서 망상으로 분별하는 것이 마치 허공 꽃과 같아 본래 실재가 없다"라고 하였는데, 바로 이것이 인연화합으로 일어난 법은 그 당체가 공이라는 의미이다.

"본래는 오묘하고 밝은 위없는 보리로서 청정하고 원만한 진심자리이었는데 그것이 망상으로 물질과 허공과 듣는 것과 보는 것이 되었다"라고 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또는 임시적인 명칭이다'라고 한 경우에 해당된다.

"보는 마음과 보이는 대상이 원래 보리로서 오묘하고 청정하고 밝은 자체이다"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또는 중도의 의미라고도 한다'에 해당된다.

"여래장의 오묘하고 원만한 마음에선 십법계의 차별이 동시에 부정된다"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인연화합으로 일어난 법은 나는 바로 공이라고 말한다'에 해당된다.

여래장의 원래 밝고 오묘한 마음이 십법계의 차별상과 동시에 상즉하였는데, 이것은 '또는 임시적인 명칭이라고도 한다'에 해당된다.

"여래장의 오묘하고 밝고 근원적인 마음에는 상즉함도 아니고 상즉 아님도 아니다"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또는 중도의 의미라고도 한다'에 해당된다. 이상은 능엄경에서 인용하여 사구게의 의미를 설명한 것이다.

중론의 사구게를 장통별원사교(藏通別圓四敎)로서 논변한다면 '인연화합으로 일어난 모든 법'은 장교(藏敎)에 해당되고, '나는 바로 공이라고 말한다'는 통교(通敎)에 해당되며, '또는 임시적인 명칭라고도 한다'는 별교(別敎)에 해당되며, '또는 중도의 의미라고도 한다'는 원교(圓敎)에 해당된다.

이것은 한결같이 심천의 단계적 경지에서 차별적으로 말했지만, 만일 이 모든 차별을 부정한 상태에서 논변한다면 차별상이란 원래 그 자체가 허망으로 떠오른 분별상이라고 관찰해야만 된다.

그렇다면 십법계 가운데 중생계인 구법계의 오음 십이처 십팔계가 허망할 뿐만 아니라 모든 부처님의 오음 육입 십이처 십팔계까지도 허망하지 않음이 없게 된다.

하지만 제법의 본성은 원래 진실하여 오묘하고 분명할 뿐이라고 관찰한다면 십법계가 운데 모든 부처님법만 진실할 뿐만 아니라 그 나머지 구법계의 차별상까지도 낱낱이 오묘한 진여의 성품이 발현하지 않는 것이 없다.

그렇다면 구법계의 모습은 허망이고 부처님 세계의 오묘한 모습은 온전히 진실인데 어떻게 이 모두를 허망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미혹을 대비해서 깨달음을 이야기하고 번뇌오염을 상대해서 청정함을 설명한 것이다. 그 이유는 자체는 비록 진실이나 진실이다 허망이다 표현된 명칭은 모두가 동시에 허망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허망을 말하여 그에 상대되는 진실을 나타내는 것인데 이때에 허망과 진실이라는 명칭은 둘 다 허망이라고 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

부처님 세계의 성품은 진실이고 구계중생의 성품은 온전히 미혹에 소속한다. 그런데 어떻게 부처와 중생을 동일하게 진실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이는 술에 취한 사람이 집을 보았을 때 집이 빙글빙글 도는 듯이 보이지만 실제로 돌지 않는 것과도 같고, 또 길가는 사람이 남쪽을 북쪽으로 착각하였다 해서 그 방향마저 실제로 옮겨간 것은 아니며, 새끼줄을 뱀이라고 오인하였으나 새끼줄은 원래 삼끈이었으며, 물로 이뤄진 얼음은 그 성질이 원래 습하고 맑은 것과도 같다. 그 때문에 차별상을 관찰하면 원래 허망이나 그 본성을 관찰하면 본래 진실인 것이다. ■중앙승가대 교수

cafe.buddhapia.com/community/song

수습지관좌선법요 · 신유식론테이프 제작 보급

동현학림은 지상강의란에 연재중인 <수습지관좌선법요(천태소지관)>와 호법유식의 비판서이자 새로운 유식학의 길잡이인 웅십력의 <신유식론> 테이프를 제작 보급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전화나 메일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010-9141-5482 soo532@hanmail.net

쉽게 풀어 쓴 불교 기본교리

수행위차(修行位次)

(4) 수습위(修習位)

수습위(修習位)는 통달위로 나아가 진여의 진리를 다시 닦고 익혀서 온갖 장애를 끝까지 끊는 단계를 말합니다.

십지에는 매지마다 입심(入心) · 주심(住心) · 출심(出心) 등 삼심(三心)이 있습니다. 처음 초지의 주심과 출심으로부터 마지막 금강정무간심위(金剛定無間心位)에 이르기까지, 즉 최후 구경각에 당도하기 한 찰라 이전(등각위)까지를 모두 합해서 총체적으로 수습위라고 합니다.

수습위는 모든 보살이 마음을 머무는 것이라고 해서 수도위(修道位)라고도 합니다. 앞에서 말한 견도위는 초지의 삼심 가운데서 입심(入心)에 머물 뿐이고 수도위는 초지의 두 번째 마음인 주심(住心)으로부터 십지(十地)의 종심(從心)인 금강심(金剛心) · 무간도(無間道)까지를 포괄합니다.

이 같은 장구한 세월의 수행위차가 모두 이 수습위에 포섭됩니다. 또 매지마다 입주출삼심(入住出三心)으로 나뉜다고 하는 것은 이상에서 언급한 바와 같습니다.

매 입심을 다시 가행도(加行道) · 무간도(無間道) · 해탈도(解脫道) · 승진도(勝進道) 등 사도(四道)로 나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입심은 처음 가행심을 일으키고, 다음으로 무간심을 일으키고 다음으로 해탈심을 일으키고 그 다음으로 승진심을 일으켜 지혜가 찰나 찰나에 더욱 강성해지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주심과 출심에도 각각 사도(四道)가 있다는 것을 입심의 예를 의거해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수습위에서는 근본무분별지를 부지런하게 빈틈없이 수습하여 번뇌장 · 소지장등 이장번뇌종자를 끊어 버리고 광대한 전의(轉依)를 증득하게 됩니다. 전의에서 '의(依)'는 의지할 대상인 의타기성(依他起性)을 말합니다. '전'에는 전사(轉捨)와 전득(轉得)등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부연해 본다면 수습위는 근본무분별지를 간단없이 수습함으로써 제팔식 가운데 함장되어 있는 이장번뇌종자를 끊어버리게 됩니다. 때문에 의타기성에서 잘못 일으키고 있는 변계소집성의 망상을 전환해 버리고<轉捨>, 의타기여환성(如幻性) 가운데서 의타기성이 본래 공적한 이치인 원성실성으로 전환해 그 이치를 증득하는 것입니다<轉得>. 즉 전사에서 동시에 전득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장번뇌 가운데서 번뇌장을 전사해 버림으로써 대열반을 전득하고, 소지장을 전사해 버림으로써 무상각을 전득한다는 것입니다. ('成唯識論' 9권 참조)

수습위에 들면 구생혹(俱生惑)의 탐심과 진심은 일어나지만 본별혹(分別惑)의 탐심과 진심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정리=張如舟

조상의 슬기를 모은 치료 비법 **성훈따주기 강좌** 안내

성훈따주기란?

성훈따주기는 누구나 쉽게 바늘 하나로 몸에 병을 다스리는 민간요법입니다.
성훈스님께서는 구전으로 내려오던 전통 따주기를 체계화 하면서 이익을 추구하지 말고 모든 이의 건강에 도움을 주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동안 따주기를 배운 회원들은 매달 군부대와 사회복지시설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배워 활용이 가능하며 뜻있는 분들은 연락바랍니다.

강 좌

1 1박 2일 강좌(숙식제공)
- 일정 및 수강료
  ① 일 정 : 2009. 4. 18(토) 오후 1시부터 ~ 4. 19(일) 오후 6시까지
  ② 수강료 : 10만원(교재, 침 별도)
- 모집인원 : 25명(선착순)
- 장 소 : 대한불교조계종 백 천 사 (강의실)
- 준비물 : 편안 복장 및 개인 세면도구
- 접수 및 문의처 : ☎ 02) 313-5047 H·P 010-2031-1233

2 매주 화요일 강좌(11회 과정)
- 시 간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 수강료 : 10만원
- 장 소 : 수효사 효림원 8층(법당)
- 접수 및 문의처 : ☎ 02) 313-3060

※ 따주기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

※ 교재 : 6,000원 / 침 : 10,000원

한 · 국 · 전 · 통 · 따 · 주 · 기 · 공 · 덕 · 회

전문자격증 교육생 모집!

보건식품처방사

자격증은 자격검정위원회가 주관하는 소정의 시험자격 심사를 통하여 발급합니다

경기불황! 은퇴! 두려워 하지 마세요~
미래 건강처방 전문가의 길을 통해 당신의 희망과 꿈이 보입니다.

보건식품처방사란? 식약청이 인정한 식품원재료를 기초로 건강기능식품을 개발하고 개인의 체질에 맞추어 처방하는 전문가

교 육 대 상 자
1) 현재 건강원(중탕원)을 운영하고 있거나 건강보조(기능)식품 전문판매자 2) 약선식이 및 전통차와 관련 점포를 운영 또는 사업을 하는 자
3) 건강웰빙 식품사업 관련 창업을 희망하는 자 4) 건강보조(기능)식품 관련 연구 및 제품개발을 준비 중인 자
5) 해외이민 희망자. 식품 프랜차이즈 비지니스 희망자

교 육 과 목	교 육 기 간	특 전
전자연치유론, 약초기초, 동양의학기초, 식이섭생, 약차처방론, 체질론, 약초관리론, 식품위생보건학, 약용식품영양학, 식재료관리, 임상질병학, 식의처방학, 체질론, 식의학, 식의실습, 중탕론Ⅰ, 약초식품방, 약초법제론, 중국황실약선식의방, 중국약초식품방, 식의내과학, 음양식의학, 식의화학론, 식품발효학, 중탕론Ⅱ, 특별강의	총 96시간 (12주 / 3개월) 토요일반 주 중 반 (주간/야간)	• 보건식품처방사자격 및 수료 • 중국특별 약초비방 전수 • 보건식품처방사회원 혜택 • 해외 및 국내 관련사업. 창업컨설팅

■접수처 :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2가 130-1 신한빌딩 5층
■수납처 : 한국보건교육원 (신한은행 100-025-095930)

※ 문의 : 02)393-5111 / FAX 02)312-5404 www.kile.or.kr

교육과학기술부허가공익법인/한국평생교육기구
한 국 보 건 교 육 원
KOREA EDUCATION CENTER FOR HEALTH

수행자는 세상의 행복 눈 앞에 펼쳐주는 존재





그림 · 최문정

한암 스님 뵈러 오대산 가는 길에 보문 스님 만나

경허 "남산에 구름이 이니 북산에 비가 온다는 말이 무슨 소리인가" 한암 "창문 열고 앉으니 기와를 입힌 담이 앞에 있습니다"

강원도 날씨는 종잡을 수 없었다. 서울에서는 봄비가 내렸는데 버스가 경기도에서 강원도 도계를 넘어서자 갑자기 눈발이 흩날렸다. 봄을 시샘하는 꽃샘추위였다. 혜암은 바랑을 끌어 앉고 차창 밖에 눈을 주었다. 비포장도로가 금세 흰 눈으로 덮였다. 조개껍질처럼 다닥다닥 붙어 있는 산촌의 초가들도 하얗게 변했다. 비포장도로를 널뛰듯 달리던 버스가 멈추었다. 사십대 초반의 한 스님이 손을 들고 있었다.

혜암은 그 스님을 보자 반가워 옆자리를 권했다.

"스님, 뛰는 뒷자리보다는 이 자리가 편합니다."

버스에 올라탄 스님이 합장하며 옆자리에 앉았다.

"젊은 스님은 어디까지 가는 길이오."

"상원사 가는 길입니다."

"허허. 잘 됐소. 나도 상원사까지 간다오."

그제야 혜암은 공손하게 자신의 법명을 댔다. 그러자 그 스님도 경상도 억양으로 자신을 보문(普門)이라고 소개했다. 보문은 한암의 상좌로 선산 도리사에서 오는 길이었다. 그때까지도 혜암은 보문이 한암의 상좌인 줄 모르고 있었다.

"초행길 같소만."

"스님, 그렇습니다. 오대산 상원사는 처음 가는 길입니다. 저는 해인사에서 오는 길입니다."

"나는 선산 도리사에서 오는 길이오만 스님은 해인사에서 무슨 공부를 했소."

보문이 대뜸 저울질하듯 묻자 혜암은 자신 있게 말했다.

"스님, 중 공부가 화두 드는 것 말고 또 있습니까. 효봉 조실스님 회상에서 화두 들고 공부했습니다."

"하하하."

보문이 큰소리로 웃었다. 그러나 고지식한 혜암은 보문이 왜 웃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스님, 왜 웃으십니까. 스님은 도리사에서 무슨 공부를 하셨길래 웃으십니까."

"정랑으로 가 똥지게만 졌소. 일하는 처사들이 만류했지만 '다 똑같습니다. 처사나 나나 뭐가 다릅니까' 하고 똥지게만 졌소."

혜암은 보문의 칼칼한 얘기에 주눅이 들었다. 몸이 움츠러들었다. 차창에 성에를 끼게 하는 꽃샘추위 때문만은 아니었다. 보문에게서 서릿발 같은 정진의 힘이 느껴졌다. 속가에 아들 둘과 아내를 두고 서른이 지난 늦은 나이에 출가한 보문이지만 그의 정진력은 스승 한암이 "잠 좀 자면서 공부하라"고 걱정할 정도였던 것이다.

"참선 수좌라도 어려울 때는 관세음보살을 염하라 관세음을 부르는 놈과 삼매에 든 놈이 둘이 아니야"

속리산 복천암 선방에서 자자일(自恣日)에 대중들이 한 마디씩 하다가 공양주를 보던 보문의 다음과 같은 질문은 대중들 사이에 두고두고 화제가 됐다.

'이곳은 보은군(報恩郡)인데, 그렇다면 불보살의 은혜와 시은에 보답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곳은 속리산(俗離山)인데, 그렇다면 세속을 벗어나 출가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곳은 법주사(法住寺)인데, 그렇다면 정법에 안주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혜암은 버스가 대관령을 넘어서서야 보문이 한암의 상좌인 줄 알았다. 보문이 한암의 심부름으로 통도사 극락암에 주석한 경봉을 한두 번 만났다고 얘기했던 것이다. 동구불출 수행중인 한암은 결코 오대산을 벗어나지 않았으므로 도우(道友)인 경봉에게 무슨 일이 있으면 상좌인 보문을 통도사 극락암으로 보내 예를 갖추었던 것이다. 그때마다 경봉은 공부 잘하는 보문에게 "왕대밭에 왕대 난다"고 칭찬했다고 한다.

"사실은 한암 조실스님 회상에서 공부하고 싶어 방부 들이러 가는 길입니다."

"우리 스님께서는 거절하는 법이 없으니 걱정하지 마시오."

"전국 어느 절 선방이나 살림이 궁핍해 사람을 받은 수좌들에게 "내가 간도를 여러 번 왕래했지만 무사히 다녔다. 국경을 넘으면서 불안할 때면 관세음보살을 염한 덕분이다"고 말하며 "참선 수좌라도 어려울 때는 관세음보살을 염하도록 하라"고 당부했던 것이다.

용명은 그러한 용성에게도 대꾸했다.

"노스님, 스님이 삼매 중에 계시면 일체 재난이 침입하지 못하는 게 아닙니까. 염불한다는 것은 밖으로 구하는 것이 아닙니까."

용명은 선사가 어찌 염불한다는 것일까 하고 이해하지 못했다. 선이란 밖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었다. 이에 용성이 대답했다.

"아, 너희들이 아직 모르는구나. 관세음을 부르는 놈과 삼매에 든 놈이 둘이 아니여. 둘이 아니지만 힘은 두 가지가 나타나느니라."

"둘이 아니고 하나라면 뭐 부를 필요가 있습니까. 화두나 할 것이지요."

"관세음보살을 많이 부르다 보면 이해할 때가 있을 것이다. 관음묘지력(觀音妙智力)이 능구세간고(能救世間苦)라 하였으니라."

보문은 스승 한암이 9세에 중국 역사서 <사략(史略)>을 읽었을 정도로 한문에 능했으므로 출가 후 <금강경오가해>와 <보조법어>를 현토, 편집해 간행한 적도 있지만 오직 화두를 든 선사로서 오대산을 지켜왔다고 말했다.

한암(漢巖).

스님은 1876년 3월 27일 강원도 화천에서 삼형제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9세에 <사략>을 읽다가 우주가 생기기 이전의 인물인 '반고씨(盤古氏) 이전에 누가 있었는가'라는 의문을 품었다. 이 의문은 출가로 이어졌다. 스님은 금강산으로 들어가 장안사 행름화상을 은사로 출가했다. 이후 신계사로 옮겨가 보조국사의 <수심결>을 펼쳐보다가 견처(見處)를 얻었다.

1899년 23세에 스님은 경북 청암사 수도암으로 내려가 경허 선사가 설하는 <금강경> '범소유상 개시허망 약견제상비상 즉견여래(凡所有相 皆是虛妄 若見諸相非相 卽見如來)'라는 구절에 이르러 오도했다. 안광이 열리며 우주의 실체가 보였다. 스님은 오도송을 읊었다.

다리 밑에 하늘이 있고 머리 위에 땅이 있네
본래 안팎이나 중간은 없는 것
절름발이가 걷고 소경이 보노니
북산은 말없이 남산을 마주하고 있네.
脚下靑山頭上巒 本無內外亦中間
跛者能行盲者見 北山無語對南山

이후 한암은 스승 경허와 천연스런 마음으로 대화를 나누었다. 어느 날 차를 마시던 중 경허가 중국 운문 선사의 법어를 빌려 물었다.

"남산에 구름이 이니 북산에 비가 온다는 말이 있는데 이것이 무슨 소리인가."

"창문을 열고 앉으니 기와를 입힌 담이 앞에 있습니다."

한암은 한 생각도 일으키지않고 여여하게 드러난 실상을 대답했고, 그러자 경허는 여러 청중을 불러 말했다.

"중원(한암)의 공부가 개심(開心)을 넘어섰다."

스님은 해인사로 경허 선사와 함께 갔다가 천성산 내원사 조실로 추대됐다. 그러나 34세에 수행자들을 흩트리고 스님은 홀로 평북 우두암으로 가 보임했다. 보임하는 동안 부엌에서 불을 지피다가 또 오도의 경지를 확인하고는 게송으로 남겼다. 이때 스님은 찾아온 동산에게 사교를 가르쳤다.

스님은 다시 남행하면서 장안사, 건봉사 등을 거쳐 1923년부터 1925년까지 봉은사 조실로 있다가 50세에 "차라리 천고에 자취를 감추는 학이 될지언정 삼춘(三春)에 말 잘하는 앵무새가 되지 않겠다."라는 말을 남기고 오대산으로 들어와 버렸다.

보문은 한암의 행장을 한없이 존경하는 마음으로 얘기했다. 혜암은 한암의 행장을 듣는 것만으로도 신심이 났다. 진부에서 상원가까지의 산길은 지루하지 않았다. 등에 땀이 돋을 만하면 차가운 응달의 산길이 나타나 땀을 식혀주곤 했다.

두 사람은 월정사를 지나쳤다. 허기가 졌지만 조금이라도 빨리 한암을 친견하고 싶어서였다. 보문은 천진한 가운데 독한 결기 같은 구석이 있어 성정이 혜암과 비슷한 데도 있었다. 혜암은 보문의 얘기를 듣는 동안 마음이 통하는 스님이구나 하고 새삼스럽게 느꼈다.

개울가 버들강아지 솜털이 오후의 햇살을 받아 빛났다. 보송보송한 솜털이 혜암의 눈을 맑혀 주었다. 찬 개울물이 흐르는 땅에 뿌리를 박고 있는 나무지만 여린 눈은 우주를 향해 깨어나고 있었다. 결코 나약한 생명이 아니었다. 자신에게 주어진 몫만큼 오대산의 봄을 부르는 전령이었다. 모름지기 수행자도 버들강아지가 봄을 부르듯 세상의 행복을 눈앞에 펼쳐주는 존재가 돼야 한다고 혜암은 생각했다. 〈계속〉

공부하다 죽어라

조계종 제10대 종정 혜암 대종사의 선기가 살아 있는 수행 도량 원당암에서 '성불'의 길을 닦아 보십시오. 재가자 선수행의 중심도량 원당암은 영가단에 만년위패를 모심으로써 생사가 둘 아닌 도리 속에서 열반적정을 이루는 수승한 원력의 도량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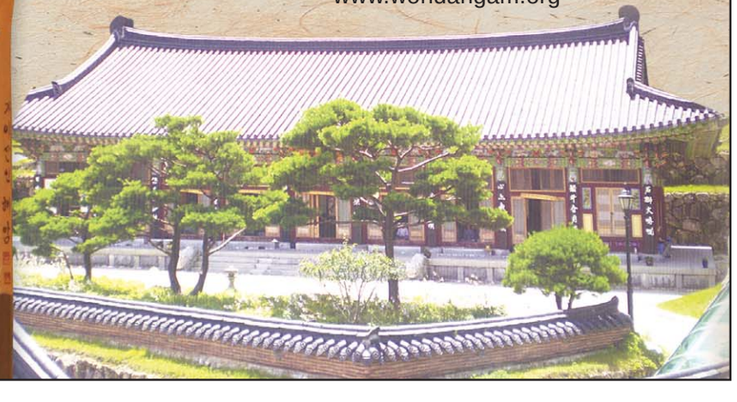
대도를 배우려면 불을 비벼 내듯하여 연기가 나더라도 쉬지를 말지어다.
불꽃이 나타나는 그때가 되어야만 비로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네.
– 혜암대종사 법어

정 진 안 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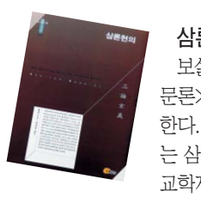
- 철 야 용 맹 정 진 매월 1, 3주 토요일 오후 7시 ~ 새벽 3시
- 7일 철야 용맹정진 여름 : 음력 7월 1일 ~ 8일
  겨울 : 음력 12월 1일 ~ 8일
- 동안거결제 음력 10월 15일 ~ 1월 15일
- 산 철 결 제 음력 2월 1일 ~ 3월 29일
- 하안거결제 음력 4월 15일 ~ 7월 15일
- 산 철 결 제 음력 8월 1일 ~ 9월 30일
- 만년위패봉안대불사 합동천도재
  매년 설날, 중양절 (음력 9월 9일), 백중, 추석, 매월 음력 15일 (아미타재일)



해인사 원당암 | 경남 합천군 가야면 치인리 10번지
전화 055)932-7308 / 팩스 055)931-7515
www.wondangam.org



불서광장



삼론현의|길장 지음|박상수 역|소명출판 펴냄|2만2000원

보살 칭호를 얻은 불교학자 용수가 저술한 <중론>과 <십이문론> 그의 제자 제바가 지은 <백론>을 합쳐 삼론(三論)이라 한다. 이 교의를 기본으로 중국에서 성립된 학파가 삼론종 또는 삼론학이다. <삼론현의>는 이 저술을 중국의 수 당 시대 불교학자인 길장(549~623)이 저술한 책이다. 불교의 안과 밖의 잘못된 견해를 파쳑해 나가려는 신중한 학자들의 날카로운 이성이 돋보인다.



연기론-인식의 혁명|신용국 지음|하늘북 펴냄|1만2000원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 연기론의 가장 근원적인 발견이다. 존재하는 모든 것의 상대성과 존재 자체에 대한 연기적 사유는 불교적 존재론에 머물지 않는다. 연기법이 불교의 핵심 정신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불교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무관한 것도 아니다. 종교적 교의를 초월한 진리란 말이다. 때문에 불교 밖에서 사용하고 인식하는 논리에 따라 연기법을 고찰하는 것에 큰 의미를 둘 수밖에 없다.



불교철학의 역사|칼루파하나 지음|김종욱 옮김|운주사 펴냄|2만5000원

2600년의 긴 역사 속에서 불교는 어떻게 변용되어 왔는가? 불교와 비불교의 기준은 무엇인가? 불교철학의 근본적 질문이다. 런던대학과 스리랑카 대학을 거쳐 하와이 대학에서 철학교수로 재직 하고 있는 저자는 초기불교의 원전에 입각해 붓다의 가르침을 해명하고 그 전통의 연속성을 추적한다. 그리하여 부처님 본연의 가르침을 계승하거나 혹은 그에서 벗어난 후대 전통들의 정체를 밝혀내고 있다.



핵심 아함경|곽철환 역주|정우서적 펴냄|5000원

<아함경>은 부처님의 원음이라고 말한다. 부처님이 직접 겪고 가르치고 당부한 내용들이기 때문이다. 그런 만큼 불교의 정신이 싱싱하게 살아 있는 경전이기도하다. 다양한 비유를 통한 깨우침과 정각의 골격인 기본 교리들을 바탕으로 한 가르침들이 매우 현실감 있게 묘사된 <아함경>의 이야기들은 한편한편이 그대로 하나의 경전이기도 하다. 인간적인 부처님과 시대를 함께 했던 제자들의 지혜가 구구절절 녹아있다.



나를 등불로 삼아라|원황 지음|소운 스님 옮김|미래인 펴냄|1만원

중국 명대의 학자이자 관료인 요범(了凡) 원황이 쓴 <요법사훈>은 동양의 '시크릿' 과도 같은 개운서(開運書)에 속한다. 선과 악을 가리고 허물을 고치고 선행을 함으로써 운명을 바꾸는 법을 자신의 경험과 불교의 인과법칙을 바탕으로 설명한 것이다. 책의 내용은 '입명지학' '개과지법' '적선지방' '겸덕지료'로 구성돼 있다. 스스로 운명을 창조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심(下心)'이라고 강조한다.



'동다송'의 새로운 연구|송해경 지음|지영사 펴냄|1만8000원

초의 스님의 <동다송>은 한국차문화사의 영원한 고전으로 평가되고 있다. 중국의 차고전인 <다경>에 결코 뒤지지 않는 명저임은 여러 학자들이 밝히고 있다. '동다송'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는 불교적 다선삼매와 유고적 중정사상에서 이루어진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지은이는 관점을 도가적 신선사상으로 옮겨 '동다송'을 바라보고 있다. 초의 스님의 생애와 사상을 고찰하고 '동다송'의 내용분석, 독창성 등을 조명했다.

현대불교신문사 홈페이지 '현불닷컴'으로 오세요 www.hyunbul.com

강원의 '기본교과서' 산문 밖으로 나오다

원순 스님 '치문' 쉽고 간결한 해설서 펴내



전통강원(승가대학)의 학인들이 처음 배우는 교과서 '치문경훈(緇門警訓)'. 줄여서 '치문'이라고도 한다. 치는 머리를 깎고 먹물 옷을 입은 검소한 수행자를 뜻하고 문은 올곧은 수행을 통해 부처가 되는 문을 의미한다. 경훈은 치문을 도와주는 스승들의 가르침이다.

각종 경전을 번역해 대중들에게 공부의 길을 넓혀 주고 있는 원순 스님이 '스님들이 가야 할 길'을 부제로 한 치문 해설서를 냈다. 강원 밖으로 치문의 길을 넓힌 것이다. 의외로 치문은 한글 번역본이 많이 나오지 않았었다.

책의 제목에서 이 책의 역할과 위상 그리고 중요성이 짐작된다. 치문경훈의 원래 이름은 '치림보훈(緇林寶訓)'이었다. 북송 때 택현온제 선사가 편찬한 것인데, 재대로 전해지지 못하고 없어 졌다. 원나라 때 지현영중 스님이 그 좋은 글들을 다시 수습하고 더 보태 치문경훈을 모두 9권으로 발간했다. 이어 명나라 때에는 여근 스님이 한 권을 더 보태 10권으로 증보했다.



우리나라에는 고려 말 태고 보우스님이 가지고 들어 왔으며 조선 숙종 때 성총 스님이 난해한 이 책을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상세한 주해를 덧붙여 3권으로 구성된 '치문경훈주'를 발간했다. 다시 1936년 진호 스님이 성총 스님의 '치문경훈주'가 분량이 많다고 생각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로 다시 간추려 총13장을 한 권에 묶은 '정선현토치문'을 펴냈다.

이렇게 오늘에 이르고 있는 치문의 편찬 역사는 이 책이 갖는 중요성을 잘 말해준다. 치문은 강원의 기본 교재로 뿐만 아니라 선수행자들에게도 달달 외워야 할 중요한 가르침으로 인식돼 왔다. 역대 조사들이 수행자들에게 들려주는 따끔하고 따사로운 경계와 지침들이기 때문이다. 원순 스님은 앞으로 '수행은 중생의 복밭' '모두 함께 깨달음을'이란 부제로 두 권을 더 출간하여 치문을 완역할 계획이다.

법공양 펴냄|2만원

임연태 기자 mian1@hanmail.net

정목 스님 '무량수경종요' 해설, 정토신앙 진수보여

원효 스님이 밝힌 정토신앙의 핵심



경남 양산 정토원에서 염불 수행에 매진하며 인터넷을 통해 염불신앙을 전하는데 선구적 역할을 하고 있는 정목 스님이 원효 스님의 <무량수경종요>를 해설했다.

<관무량수경> <아미타경>과 더불어 정토종의 삼부경인 <무량수경>은 아미타 부처님이 위대한 발원으로 극락국토를 건설하고 한없는 자비심으로 어떤 중생이나 믿음과 원력으로 행하면 왕생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다시 말하면, 부처님이 일체 중생을 제도하여 다 함께 희망의 세계로 인도하고자 가르침을 열어 보인 경전이 바로 <무량수경>이다.

<무량수경>은 대승보살의 인과를 설한 가르침의 모범된 말씀이며, 불토의 인과를 설한 진실의 경전으로 꼽힌다. 또 경전의 지향은 정토의 인과로써 근본을 삼고 중생을 섭수하여 왕생하게 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특정한 사람 혹은 특별한 수행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극락정토에 왕생할 수 있다는 확신으로 '신원행(信願行)을 지키면 누구나 왕생할 수 있다는 보편적이고 희망적인 정토신앙의 출발인 <무량수경>. 신라의 걸승 원효 스님이 이 경전의 귀함을 일찍이 간파하고 중요한 대목들을 친절하게 해설한 저술이 <무량수경종요>다.

원효 스님의 <무량수경종요>는 대각국사 의천이 필생의 불사로 추진한 '속장경'에 편입됐던 저술이다. 속장경은 전란으로 소실됐지만 판본이 일본으로 흘러가 그 생명의 불씨를 간직하고 있었다. 마침내 일본의 '신수대장경'에 수록되어 세상에 알려졌던 것이다.

정목 스님은 "부처님과 원효 성사께서 가신 후 많은 세월이 흐른 지금 두 분 성인의 은혜를 잊고 곳곳에서 많은 불자들이 방황하고 있다"며 "무량수경종요를 세상에 드러냄으로써 정토문의 염불수행이 개인과 인류의 역사를 선도할 희망의 종교임을 밝히고자 뜻을 세웠다"고 밝혔다.

자연과 인문 펴냄|2만원

연등축제 백배 즐기고 싶다면?



오감만족 연등축제
조계종행사기획단 엮음
불광출판사 펴냄|1만2000원

다시 연등축제의 계절이 돌아왔다. 사찰마다 전통등과 장엄등을 만드는 손길이 분주하다. 올해 연등축제는 장충체육관과 동국대학교 대운동장 등지에서 열리며 하이라이트인 제등행렬은 예년처럼 동대문운동장에서 조계사까지 펼쳐진다.

연등축제는 이미 서울시의 대표적인 축제고 한국을 대표하는 축제이다. 종교적 성격에 전통과 예술적 성격이 어우러져 외국인들에게도 좋은 관광 상품으로 꼽힌다.

연등축제를 즐기려면 축제의 전모를 알아야 한다. 이 화려하고 생동감 있는 축제가 1000년이 넘는 전통을 가졌다는 것을 아는 순간 보는 자세도 달라진다. 우리 민족의 삶과 문화를 알알이 반영한 축제면서도 인류의 스승 부처님의 생일을 기리는 잔치라는 것을 알면 축제가 더 흥미로워 질 수밖에 없다.

<오감만족 연등축제>는 화려하고 장엄한 화보와 함께 연등축제의 모든 것을 설명해 주는 축제 안내서다. 뿐만 아니라 연등축제의 사회문화적 의미와 종교적 의의를 깊이 있게 해설한 문화 교과서 역할도 손색이 없다.

임연태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세어본 소만 존재한다	월호	운주사
2	부처를 쏴라	현각	김영사
3	인과경	현담	선
4	아름다운 마무리	법정	문학의 숲
5	깊고 깊은 연꽃 가르침	혜국	사유수
6	답답하면 물어라	법륜	정토
7	언젠가 이 세상에 없을 당신을 사랑합니다	월호	마음의 숲
8	광명진언기도법	일타, 김현준	효림
9	법륜 스님의 즉문즉설	법륜	정토
10	지금 여기에서 감사하라	성전	개미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행·복·한·만·다·라·그·리·기·시·리·즈 전 50권
만다라 그리기
_ 서울여자대학교 미술치료교수 정여주 지음

만다라 문양을 창의적으로 색칠하며
마음을 치유하도록 돕는 워크북

만다라는 고대 인도 산스크리트어로 원이다. 만다라 그리기는 문양이 있는 만다라를 선택하여 색칠을 하는 것과 스스로 만다라를 그리는 방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초기에는 문양이 있는 만다라를 선택하는 편이 낫다. 50권으로 구성된 『만다라 그리기 시리즈』는 다양한 도구를 이용해 만다라 문양을 창의적으로 색칠하며 마음을 치유하도록 돕는 워크북이다. 각 권마다 20개의 만다라 밑그림이 수록되어 밑그림을 따라 색칠 할 수 있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각자 자유롭게 그릴 수 있도록 원형의 빈 공간을 준비하였다.

대상별 세트 구성 [유아/아동/청소년/성인/노인편-각 10권]
식물 동물 곤충 바다 계절 우주와 자연 1 우주와 자연 2 전통과 예술 1 전통과 예술 2 색종이 오리기

Mandala



● 각 권 3,500원
● 대상별 세트가 35,000원(전 10권)
● 전 대상 세트가 175,000원(전 50권)

▶▶▶ 전50권 출간 기념 인터넷 서점 이벤트 진행 중

[만다라 그리기의 기대효과]

● 인지정서발달 색감각, 형태감각, 미적 감각이 증가한다.
● 집중력 강화 집중력이 증가하며 마음의 중심을 발견한다.
● 학습능력 증진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관찰력이 증가한다.
● 스트레스 완화 감정조절능력이 증가하고 수용적이고 너그러워진다.
● 노화·치매예방 소근육 운동력과 손과 눈의 협응력을 높이고 내적 균형과 에너지의 통합을 이룬다.

만다라 그리기의 적용영역
*명상과 영성체험 *창의력 개발 *교육 및 범교과 학습영역 *자기성장 및 인성 계발
*미술치료 *상담과 심리치료 *재활치료 *스트레스 및 위기극복 프로그램

부처님 오신 날 기념 만다라 그리기 특별법회
일 시 2009년 4월 18일 오후 4~6시
장 소 조계사 대웅전
특별법문 참마음선원 원장 법인 스님
대 상 조계사 청년회 및 조계사 신행단체, 조계사 불교학교
주 최 조계사 청년회
협 찬 (주)학지사
●● 입상자 및 행사 참여자 선물 증정

(주) 학지사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352-29 마인드월드빌딩 5층
T. 02-330-5114 F. 02-324-2345 http://www.hakjisa.co.kr

부처님오신날 봉축 문화행사 풍성


조계사 청년회는 4월 18일 '제1회 만다라 그리기 법회'를 연다.


최근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282호로 지정된 서울 기원사 독성탱화.


한국불교사진협회 제14회 회원전에 출품된 하호숙 부회장의 '키다리 부처님'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가 주최하는 연꽃문화제 중 그림그리기 대회.

불교문화로 메마른 국민 마음에 연꽃 피운다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거리에 하나 둘 연등이 불을 밝히고 있다. 장기불황으로 시름 깊은 국민의 어두운 마음에 등불을 켜기 위해서다. 각급 봉축위원회와 사찰들은 어려운 때일수록 시민과 고통을 함께 하고 자비를 실천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를 준비중이다. '나누는 기쁨 함께 하는 세상'이란 봉축표어에 걸맞게 다양한 자비나눔행사와 함께 음악과 춤, 그림, 사진 등 다채로운 볼 거리와 들을 거리로 시민들의 심성을 밝게 해주는 문화행사들이 어느 해 보다 풍성하다. 봄나들이를 겸해 불교문화의 세계로 들어가 보자.

#주민과 함께하는 산사음악회와 축제

○…서울 기원사는 부처님오신날 봉축기념 및 기원사 독성 및 산신탱화 서울시 유형문화재 지정 '경축 문화 한마당'을 연다. 4월 30일 기념음악회(장미화, 오느름국악관현악단등 출연)를 시작으로, 꽃꽂이 전시(4월 30일~5월 3일), 천연염색 종이접기 소망등 만들기 등 체험행사(4월 30일~5월 3일), 영화 '워낭소리' 상영회(5월 2일 오후 7시) 등을 진행한다. (02)918-0034

○…경기북부사암연합회는 4월 18일 오후 6~9시 소요산 자재암 야외 특설무대에서 '제5회 경기북부사암 음악예술제'를 연다. 자재암에 얽힌 원효대사의 생애와 사상을 음악극과 오페라 '아미타불'로 재해석. (031)859-8108

○…운주사와 화순군, 운주문화축제추진위가 주최하는 제14회 운주축제는 5월 1일 개막식과 함께 면민 노래자랑 등 전야제로 시작돼 2일에는 봉축법요식과 산사음악회, 탑돌이 등 다양한 행사로 진행된 뒤, 3일에는 사생대회 등 젊은 층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회향된다. (061)374-0660

○…서산 서광사는 4월 18일 오후 7시 서산시민과 함께하는 제2회 봄맞이 산사음악회를 개최한다. 강수정 전 KBS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되는 음악회에는 노래하는 수행자로 유명한 서광사 주지 도신 스님을 비롯해 가수 휘성, 카라, 햇빛촌, 야단법석 등이 출연한다. (041)664-1962

○…'좋은벗 풍경소리'는 '붓다콘서트'를 4월 15일 오후 7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내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개최한다. 찬불가와 풍경소리 이종만 씨가 지휘하는 뉴트리팝스 오케스트라의 연주도 곁들어진다. (02)723-9836

○…BBS 불교방송은 4월 18일 오후 2시 3층 대법당에서 '붓다의 노래' 2주년 특집 공개방송을 진행한다. 권수형 시인과의 만남과 가야금 거문고 프로젝트 연주팀 현-스토리 연주, 노래하는 시인 범능 스님, 젊은 찬불가 가수 앨리스블루 강혜윤의 연주가 펼쳐진다. (02)705-5263

○…대구봉축위는 4월 19일 어린이회관 꾀꼬리극장에서 찬불가 경연대회를, 25일 중앙로와 반월당에서 창작등 및 청소년 댄스 경연대회를 개최한다. (053)623-6388

○…대전불교사암연합회는 4월 25일 서대전광장에서 사생대회와 연등 만들기, 댄스경연대회를, 28일 평송청소년수련관에서 합창단경연대회를 연다. (042)526-1080

○…전북봉축위는 4월 22일 전북교육문화회관에서 전북연합합창제를, 예천사암연합회는 4월 26일 체육공원 야외공연장에서 봉축음악회를, 논산지장정사는 4월 18일 효문화제 및 게이트볼대회를 연다. 예산 수덕사는 5월 2일 수덕사 경내에서 사생대회를, 수덕미술관에서 고려불화 재현 전시회를 갖는다. 양평 용문사는 '제2회 용문산 산나물축제' 기간인 5월 2일 산사음악회를 연다.

#선서화 · 사진 · 비디오 · 꽃꽂이 등 전시

○…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은 4월 8~22일 총무원내 나무갤러리에서 무형문화재 불화장인 석정스님 선서화전을 연다. (02)2011-1960

○…인천 범패박물관은 4월 15일~11월 29일 '한윤기 범패그림전'을 연다. 전시회에서는 범패와 작법무 공연을 한국화로 표현한 한윤기 작가의 그림 30여 점이 전시된다. 범패박물관에서는 6월 6일 오후 3시 인천 현충탑 광장에서 현충재도 봉행한다. (032)884-8904

○…한국불교사진협회는 4월 13~15일 예총회관갤러리 전시를 시작으로, 조계사(16~20일), 도선사(21~24일), 봉은사(25일~5월 2일), 대구문화예술회관(5월 18~24일)에서 제14회 회원전을 연다. (010)6821-1000

○…서울 조계사는 4월 30일~5월 2일 대웅전 주변에 불교 꽃꽂이 전시회를 연다. 또 청년회는 4월 18일 오후 4~6시 대웅전에서 '제1회 만다라 그리기 특별법회'를 연다. 법인 스님 지도아래 진행하며 일반인도 동참 가능. (02)732-2183

○…청주청원불교연합회는 4월 27~30일 불교미술 및 사진전시회를, 26일 휘호대회 및 노래자랑 대회를 연다. 서울 봉은사는 4월 24일 코엑스 동편 광장에서 전통등 전시회를 갖는다. 서울 도선사는 4월 19일 경내에서 어린이 실기 미술대회를 연다.

#어린이 · 청소년 글 · 그림 경연대회 다양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는 각 지구 및 지부별로 '제25회 연꽃문화제'를 열고,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그림 · 글짓기 대회를 연다. 부산지구(4월 27일 구덕운동장), 경남지구(25일 창원올림픽공원), 울산지구(5월 2일 울산 정토사), 광주지구(5월 10일 상무대 무각사), 밀양지부(5월 24일 밀양 용궁사)에서 각각 문화제를 펼친다.

○…파라미타청소년협회 서울지부는 5월 2일 서울 봉은사에서 제2회 프리허그(free hug)이벤트 및 제1회 금연캠페인을 연다. 또 전북지부는 5월 23일 김제 금산사에서 '제13회 청소년 모악축제'를 개최한다. 대전지부는 자연과 함께 하는 '제9회 문화체험대회'를 4월 25일 서대전 광장에서 연다. 충북지부는 4월 26일 청주 용화사에서 '제9회 백일장 및 휘호 그리기 대회'를, 인천지부는 4월 26일 목판인쇄체험, 부처님그리기 대회 등을 연다. 경남지부도 해인사에서 4월 25일 사생대회를 연다.

○…여주 목아박물관은 5월 5일 '제15회 전국어린이 부처님 그림그리기 대회'를 개최한다. 만 5세 이상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크레파스화, 수채화 부문으로 나눠 진행된다. (031)885-9952

○…수원 용주사는 4월 19일 효행교육원에서 제1회 2교구 어린이 찬불가 율동제를 갖는다. (031)226-3488 평창 월정사는 5월 23일 오대산 전국 디지털 사진공모전을 연다. (033)332-6665

김성우 기자 buddhapia5@hanmail.net

봉 불기 2553년 부처님 오신날 축
수재화고무신코 만 행 화

특 무 명
• 가격 : 12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진회색

사부대중 선 물

지압슬리퍼
• 가격 : 60,000원
• 규격 : 230-280mm (10mm단위)
• 색상 : 진회색,검정

지압 · 동깔창
쪼극/게사
실 리 콘
동 99%
가격 20,000원
• 사이즈 : 230-280

조각무명
• 가격 : 12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자연색

건강샌들
• 가격 : 90,000원
• 규격 : 230-280mm (10mm단위)
• 색상 : 진회색,검정

지압동 깔창

사계절단화
• 가격 : 8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회색,검정

3-1밴드
• 가격 : 90,000원
• 규격 : 215-285mm
• 색상 : 검정,회색

망사단화
• 가격 : 8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회색,검정

3-1끈
• 가격 : 90,000원
• 규격 : 215-285mm
• 색상 : 검정,회색

NAVER 통합검색 만행화 검색
인터넷쇼핑몰 만행화를 검색해 보세요

■ 문의 및 주문전화 : 02)733-5715, 011-9000-5715
■ 입금계좌 : 농협 063-12-250427(구자민) 합장

◆ 본사, 전시장 : 서울 종로구 공평동 143번지 402호 (종각역 2번 출구 100m거리)

미래를 열어가는 불(火)의 불멸조(不滅鳥)


의장등록번호 제 2008-0052952호
크기 : 높이 22cm×폭 26cm

지금 이 시대는 과거도 지나고 현재도 지나고 미래의 시대입니다. 자신이 느끼지 않으면 절대로 믿지 못하고 몸으로 느껴야 믿는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 불멸조(不滅鳥)는 가정, 사업장, 자동차 등 육해공(陸海空)을 움직이며 다니는 모든 곳에 두시면 갑자기 일어나는 사고와 재해(災害)를 예방하고 요즘 많이 떠다니는 영혼들의 액운(厄運),액살(縊殺),잡귀(雜鬼) 등의 조화 부림으로부터 해방될 뿐 아니라 이로 인하여 가정에는 행복(幸福)과 건강(健康)과 부부금슬(夫婦琴瑟)이 좋아지고 자녀(子女)들의 앞길에 걸림돌이 없어지며 사업장에는 사업번창(社業繁昌)이 자동차나 움직이는 곳에는 안전과 사고예방을 하는 힘(力)과 원력(原力)으로 지켜주는 미래(지금)의 꼭 필요한 불멸조(不滅鳥)입니다.

불멸조(不滅鳥)는 태양(太陽)속에 사는 삼족오(三足烏)의 원력(原力)과 삼신일체사상(三神一體思想)인 천(天),지(地),인(人)의 원력(原力)이 함께하여 위에는 세 방위의 날카로운 칼날(刀刃)이 액운액살(厄運 縊殺)을 일시로 소멸(消滅)함으로써 복(福)이 저절로 따라오는 기운(氣運)이 있으며 앞길을 뻥뻥 뚫어주고 열어줌으로써 아주 영험(靈驗)한 길조(吉鳥)입니다.

아래에는 순수함의 원력(原力)과 함께 최고의 행운(幸運)을 열어주는 길상(吉祥)으로 알려진 천연 백수정(石英,Quartz:신의 얼음)을 안착하였습니다.
순금으로 하나하나 수작업으로 정성을 다해서 개금하였으며 순금의 생체활성파장(生體活成波長)으로 활력(活力)을 불어넣어 주는 최고의 호신불(護身佛)입니다.
기도 축원 불공을 마치고 계속해서 1년 동안 무료 인등 축원발원으로 밝은 앞날을 계획하시고 소원 성취 하십시오.(보시금 70만원)

※ 호신불이 가져오는 현상들

모시고 난 후 어지럽거나 구토증세, 피부이상, 기운저하, 혈압변동 등 여러가지 현상들은 액운과 액살이 빠져 나가고 있다는 증거이므로 인내로 믿으시면 일정 시일이 지난 후 정상으로 돌아오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문의전화 031)898-5666 / 010-8674-5351
우체국 100941-02-294031 (엄홍수)



불결한 것을 미관이 수려한 규격품으로

■ 미관이 아름답습니다.
■ 청소하기가 간편합니다.
■ 바람이 불어도 꺼지지 않습니다.
■ 양초판매가 증가합니다.
■ 보시용으로 적합합니다.

크 기	가 로	세 로	높 이	재 질
50개꽂이	90cm	60cm	150cm	스테인레스
100개꽂이	150cm	90cm	150cm	폴리카보네이트
대초기준	※ 위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주문제작 가능			

사찰시설물 제작 전문업체
세 영 금 속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 1가 120-4
TEL 02)2676-0160 / H · P 011-269-3356
E-mail : byoon47@yahoo.co.kr



함영의 **밥맛 나는 세상**

23 밥은 행복

'춘몽' 의 맛, 도다리쑥국의 기억

'도다리쑥국' 에 대한 궁금증은 남해에 도착도 하기 전에 시작됐다. 일단 그 제목에서부터 도다리와 쑥의 만남으로 이뤄진 국이라는 것쯤은 쉽게 유추할 수 있었다.



'춘몽의 국' 도다리 쑥국.

도다리와 쑥의 궁합이 좋아 이름하여 '도다리쑥국' 이라는 음식이 생겼을 테고, 도다리의 비린내를 없애기 위해 쑥을 넣었을 것이라는 것도 대충은 알 수 있는 사실이다. 하지만 그 이상을 상상하는데 시간을 쏟을 만큼 도다리쑥국에 대한 관심은 오래 가지 않았다. 생선류의 음식이라야 기껏 고등어구이나 참치김치찌개, 어쩌다 한번 씩 먹는 아구찜 정도가 전부인 내게 무엇보다 '도다리' 라는 낯선 물고기에 많은 관심을 둘 여지는 없었던 것이다. 다만 서울을 출발할 때부터 시작된 일행들의 도다리쑥국 타령에 잠시잠깐 호기심이 발동됐을 뿐이다.

남해로 가는 여행팀에 끼게 된 것은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오언니 때문이다. 이른바 '마당발' 로 통하는 언니는 모 그룹 총수인 회장할아버지의 초대로 그 그룹 연수원 창단식에 참석하게 됐는데, 그 행사가 회장님의 고향인 진주에서 열렸다. 평소 미식가로 소문난 회장할아버지는 회사 일과 나들이를 겸해 가족과 다름없는 언니에게 남해여행을 제안했고, 필자는 언니의 이십년 지기 후배인 명숙언니와 덩달아 초대된 것이다.

따사로운 봄 햇살에 취해 비몽사몽하는 가운데 눈을 떠보니 남쪽의 기운이 물씬 느껴졌다. 여장부터 풀기위해 숙소를 찾아가는 길에 펼쳐진 남해바다의 전경은 그야말로 '춘몽' 이다. 파도의 미동도 느껴지지 않는 고요한 바다 가운에 점점이 떠있는 섬들의 풍광에 도취돼 일부러 길을 헤맸는지도 모르겠다. 우리는 오던 길을 돌고 돌아 저녁나절이 돼서야 숙소에 도착했다. 그런데 먼 길을 동참해준 손님들을 위해 회장할아버지의 마음은 바빠 여장을 채 풀기도 전에 일행 모두를 창단식에 초대했고, 서둘러 오라는 전갈을 보내왔다.

회장할아버지의 고향집 뜰에서 치뤄진 창단식에는 수십 명의 손님들이 서울에서 내려와 북새통을 이뤘다. 한쪽에서는 요리사들이 음식을 차려내느라 분주하고, 잠시 후 하얀 테이블 위로 가지각색의 음식이 펼쳐졌다. 무엇보다 내 눈을 사로잡은 것은 백합찜. 방아잎과 절묘하게 어우러진 그 맛의 담백함이 오묘하고도 새로워 체면치레도 잊고 부지런히 젓가락질이다. 여행이 끝난 후 나중에 들은 풍월로는, 백합과 방아잎을 다져 밥 위에 쪄내는 백합요리는 제사상에만 올리던 진주의 귀한 음식이란다. 제사상을 물린 후에도 집안의 최고 어른만 먹을 수 있었다고 하니, '후진' 내 입맛도 때로는 맛의 진미를 알아보는 모양이다.

도다리쑥국 타령이 다시 시작된 것은 창단식이 끝나갈 무렵이다. 회장할아버지는 비장의 무기인 냥 요리사들에게 도다리쑥국을 내오도록 주문했다. 이윽고 내 앞에도 한 그릇이 놓여졌다. 음주가무로 분위기는 무르익을 대로 익고, 이런저런 산해진미로 배를 채웠으니 그 무엇인들 맛있으랴. 심드렁히 국 대접만 바라보다 그저 봄밤의 추위나 녹여보려 한술 뜨는데, 과히 춘몽의 달밤에 딱 들어맞는 '춘몽의 국' 이다.

옆에 한 사모님은 한 수저 한 수저를 뜰 때마다 "음~"하는 감탄사를 연발하고, 예의치례를 벗어나 맛의 깊은 음미에서 절로 흘러나오는 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봇물 터지듯 한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 날의 도다리쑥국을 위해 요리사들의 헌신의 공로가 있었다. 창단식이 있기 열흘 전부터 진주에 내려와 장안에 소문난 도다리쑥국 집은 죄다 찾아다니며 그 맛을 연구했다는 후문이다. 그 옛날, 회장할아버지의 기억 속에 각인된 고향음식, 도다리쑥국은 그날 밤 그대로 재현돼 손님들의 입맛을 감동시켰다.

점심식사 때 테이블 위에 남겨진 생수병 하나까지도 챙겨 나와 살뜰함의 극치를 보여주었던 회장할아버지의 야심작, 도다리쑥국은 숙소로 돌아오는 내내 은은한 쑥향을 머금고 피어올라 남해의 밤바다와 함께 춘몽의 기억으로 남았다.

자유기고가, blog.naver.com/owisdom

행복한 삶을 위한, 선과 禪 심신건강 心身健康

29 태어남,죽음

박지숙 박사 한·양방 의료센터 salm 마인드힐링연구소

생일은 멋진 자신으로 변신하는 날이다

#나이를 한 살 더 먹는다는 것

한 인간이 탄생하는 날, 태어나는 주인공 혼자 울면서 나오지만 다른 사람들은 모두 기뻐하며 축하하게 되고, 한사람이 임종을 맞이할 때면 나를 제외한 모든 이들은 운다고 한다.

그러다보니 생일은 내가 태어난 날인 동시에 한 살 한 살 더들어가며 임종의 시간으로 다가가는 우울한 날이 될 수 있다. 어린시절에야 생일이 반갑고 즐겁고 하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달갑지만 않은 이유가 바로 한해 한해 나이를 더 먹게 되고, 늙어간다는 생각 때문일 것이다. 시간 속에서는 모든 것이 늙어간다. 갓 태어난 아기는 이미 늙어가기 시작한 것이다. 태어난지 일주일 됐다는 것은, 일주일 늙었다는 말과 같다. 죽음으로 가는 7일간의 과정을 마친 것이며, 지금도 죽음을 향해 다가가는 중이다.

그래서 <증일아함경(增一阿含經)>에서는 태어남, 늙음, 죽음, 근심, 슬픔 등 괴로움의 근본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으로, "죽음을 면하고자 한다면 일체행(一切行)이 무상(無常)하다는 것, 일체행이 고(苦)인 것, 일체법(一切法)이 무아(無我)인 것, 멸진(滅盡)하여 열반(涅槃)인 자리인 네 가지 근본진리를 사유하라"고 이르고 있다.

#나의 내면의 키는 얼만큼 성장했는가

시간 속에 존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나이를 먹는다. 시간 속으로 들어오는 순간 이미 그것은 늙어간다. 이 육체가 영원히 젊고 아름다운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나의 중심, 존재의 본성은 항상 새롭고 더욱 젊어 질 수 있다. 나의 중심 존재의 본성이 항상 젊고 아름답게 빛나면 나의 육체, 외모는 당연히 함께 빛날 수밖에 없다. 생선을 싼 포장지에서는 비린내가 나고, 꽃을 싼 포장지에서는 향내가 날 수 밖에 없는 원리다.

생일은 늙어가고 죽음으로 한 발짝 다가선 날이기도 하다는 것을 명확하게 직시하기도 해야 하지만, 다시 한 번 명확하게 내가 성장하고 하루하루 거듭나고 있다는 것을 직시하기도 해야만 하는 날이다. 내 자신이 묘목이었다면 한 해동안 좀 더 성숙하고 성장한 나무로 변신한 나에게 더욱 큰 나무로 뿌리를 뻗어 나갈 수 있는 적합한 공간 내지는 나의 화분을 찾아야만 하는 날인 것이다.

우리는 흔히 어린 시절 나의 키가 얼마만큼 자랐는지 벽에다 하루하루 줄을 긋곤 해보았다. 그래서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는 나의 키를 보며 흡족해하던 것을 누구나 경험해보았을 것이다. 바로 생일은 나의 내면의 키를 재보는 날이다. 과연 나의 역량이 얼만큼 자랐으며, 나의 내면세계가 얼마만큼 채워졌는지 체크해봐야 한다.

#부모와 나의 위대한 네트워크

그리고 생일에 있어 사실 가장 중요한 생각 중 하나는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나와 부모의 인연에 대한 것이다. 내게 더없이 만족스러운 부모건,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부모건 간에 나를 잉태해 이 세상에 빛을 보게 해준 것 자체만으로도 그 지중한 인연과 인과의 연결고리는 참으로 가슴 벅차게 감사한 일이다. 때론 힘들고 고통스런 현생의 이 삶이 버겁게 느껴져 세상에 태어났음을 원망할 정도로 괴로울 수 있으나 어찌됐건 나에게 어떤 역할과 소명이 주어진 것이 아닌가.

이리도 위대한 관계의 네트워크를 제공했다는 정밀한 우주의 원리에 다시 한 번 감탄하게 된다.

(02)576 -7575



능인향당 이완로 처사의 침향 이야기 25



침향 염주는 고승들이 비상약으로 사용

침향이 귀하다보니 공예품 또한 가침이 많이 만들어지는데 가장 대표적인 나무가 Exocecaria agallocha이다. 불상이나 염주 등 거의 모든 제품은 이 나무로 제작하는데 침향을 파는 이 조차도 이 나무를 AAR로 믿고 있는 사람이 있을 정도이다. 이 나무는 무겁고 단단하다. 목질은 황갈색을 띠며 표피에 검회색의 점들이 있다. 나무의 맛은 맵고 태웠을 때의 냄새는 침향과 유사한 냄새를 낸다. 그래서 현재까지도 인도와 중국에서는 이 나무를 침향 대용으로 집에서 태우는 경우가 있는데 이 나무를 태웠을 때 인체에 유해한 독성이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다.

특히 이 나무로는 주로 염주를 만드는데 베트남의 시중에서 팔고 있는 침향염주는 거의 이 나무로 만들어 진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진품침향의 염주는 표면에 침향나무의 수관부분인 메(숨구멍)가 나타나는 반면, 이 나무는 그나마 침향의 수지처럼 검게 보이게 하기위해 타르성분의 기름을 강제 주입하거나 코팅을 하므로 메 자체를 메워버려 아주 새까맣거나 윤이 나는 경우가 많다. 또한 타르성분이 아닌 착색염료로 염주를 만든 경우에는 물에 담가보면 염료가 풀려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염주는 일단 의심 해봐야 한다.

물론 기도용으로 신심에 의해 지니는 염주인데 무슨 관계인가 하시겠지만 이렇게 만들어진 염주는 인체에 착용했을 시에 피부트러블을 유발하는 등의 많은 해악이 보고되기 때문이다.

침향염주는 침향으로 만들어야한다. 그러나 염주로 가공할 만큼의 양은 나오기가 어렵고 비싸기에 대용으로 침향의 기를 이용하기 위해 침향목에 수지를 먹인 침향염주를 만들어서 사용한다.

지금 베트남 중부 산악지역에서는 침향의 대량재배가 이뤄지고 있다. 그럼에도 침향나무로 염주를 가공하지 못하는 것은 순수한 침향의 수지가 아니라면 침향목에 수지를 넣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관광용품으로 팔 염주에 진품 침향에서 채취한 비싼 수지를 먹일 이유가 그들에게는 없다. 따라서 베트남에서 염주를 구입한다면 가품이 대부분인 염주보다는 차라리 재배된 침향목으로 만들어진 흰색 침향염주를 구입하라고 권하는 바이다.

독자분 중에는 내가 가서 직접 구하면 아주 좋은 최고품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건 아주 어려운 이야기이다. 물론 1~6등급까지의 염주는 예전에 고승들이 지니고 다니면서 비상약으로 썼다는 이야기에서도 알 수 있듯 즉시 약으로 쓰일 만큼의 좋은 효력이 있는 염주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렇기에 구할 수만 있다면 좋겠지만 베트남 시중에는 그러한 염주는 나와 있지 않다. 설마 하시겠지만 거기에는 세 가지의 큰 이유가 있다. (02)3663-6777



정성근 거사의 천년초 이야기 3

엄청난 양의 섬유질이 변비 개선

민간요법의 대가들에게서 앞으로 몇 년 만 지나면 새로 태어나는 아이들이 체질질환에 모두 고통 받게 될 것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지금의 산모가 될 나이 여성들이 한창 자라날 시기에는 유기농이니 잘 먹고 잘 사는 게 무엇인지 인지하지 못했으며, 인공조미료와 색소가 풍부히 들어간 음식에 대한 어떠한 위험도 상상하지 못했다.

독자 중에 본인이 결혼을 앞두거나 자녀의 계획이 있거나 가족 중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이렇게 자문해 보길 바란다. 혹시 젊은 여성으로서 저혈압 진단을 받아본 적이 있는가? 위는 소화를 잘 시키는가? 그리고 배변은 하루에 한 번 꼭꼭 거르지 않고 시원하게 보고 있는가? 손과 발의 신체발부는 차지 않은가? 생리통이 있지는 않은가? 몸의 열이 상반신 위로 오르는 것을 느끼지 않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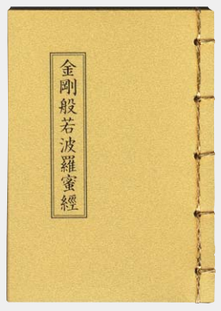
만약 이러한 자문에 "맞아 이건 내 이야기야" 한다면 자녀를 갖기에는 매우 안 좋은 몸의 상태 즉, 조상들이 말씀하신 기준으론 좋지 못한 밭이라고 할 수 있다.

미래 산모들이 될 여학생들은 사실 중 · 고등학교를 거치면서 오전 식사를 거르고 식사대용으로 군것질을 선택하게 된다. 그리고 운동부족과 영양 균형을 잃어버린 섭생으로 숙변과 변비를 동반하게 된다. 아울러 위는 서서히 그 기능이 약화되고 사회 진출할 즈음에는 위의 질문들인 증상을 갖게 되는 예가 많다. 젊은 여성들 가운데는 "변비는 달고 사는데 무엇을 먹어도 먹을 때뿐이고 웬만해서는 개선되는 것을 믿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노력을 멈춰서는 안 될 문제이고 위의 기능을 정상으로 만들고 변비를 없애지 않으면 태어날 자녀에게 시작부터 힘든 짐을 지워 평생을 살게 하게 되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다.

필자에게는 올해 대학을 막 진학한 처제가 있는데 워낙 건강하고, 끼니도 안 거르고 잘 하지만 변비를 느꼈다. 천년초 책을 집필하고 선물 받았던 천년초를 처제가 먹고는 어떤 걸 먹어도 개선되지 않았는데 신기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물론 한 가지 병에 백가지 약이라고, 약 하나로 백병을 고칠 수 없지만 맞는 것을 먹으면 그 병을 쉽게 고칠 수 있다. 하지만 천년초와 변비의 비밀은 천년초가 담고 있는 섬유질의 엄청난 양과 천년초가 산삼 · 인삼과 같이 불리는 모든 기능을 정상화 하는 능력으로 인한 현상이라고 생각된다.

(02)780-0098

불경 금책, 금병풍, 달마액자, 족자



금강 불교예술원에서 세계최초로 99.9%의 금을 나노화 하여 조성된 초소형 경전인 불경금책을 제작보급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복장용으로 장엄하오며 단체 주문시 발원문, 가족명단을 인쇄하여 드립니다. 또한 영가천도, 불사, 소장 및 휴대용으로 가능하며 기타 용도로 사용합니다. 순금경전을 휴대하는 것만으로도 부처님의 공덕과 불심으로 가피를 입을 수 있으며 호신용으로도 최고입니다. 큰스님 법어, 법구경도 크기별로 주문제작 합니다.

실물크기 (소) 3.5 × 5cm
(중) 5 × 7cm

금강경 천수경 반야심경
지장보살본원경요품
관세음보살보문품
묘법연화경 요품

복장의식 상량식 불사 소장용 영가천도

(불사인연 공덕을 맺으시며 세세생생 선근의 인연공덕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사용하시던 흑단목

氣가 발산되는 신비의 흑단목염주, 포대화상향로



흑단목108염주, 단주
흑단무늬목 / 흑단무늬목천주
크기 : 8mm×10mm×12mm 55,000원
10mm×10mm×12mm 65,000원
12mm×10mm×12mm 85,000원
흑단무늬목염주는 가격이 저렴하여 보시용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흑단무늬목 포대화상향로
(대) 26×16×16cm ~~135,000원~~
→ 할인가 125,000원
예술조각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없는 사람과 나눌 수 있는 미덕과 복받을 마음을 이루어 주며 입에서 향이 뿜어져 나와 예불시에도 사용합니다.

부처님께서 즐겨 사용시던 흑단목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나무중 유일하게 氣가 발산되고 최고로 단단하며 자연 문향이 은은하여 아름다우며 동남아 국가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나무중 최고의 명품인 흑단목 입니다.

◈ 문의전화 02-722-1850 농협 : 1143-12-049474 송명화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열침의 효능 금강약돌 온열복대



온열뜸기 의료기인증, 의료용전자기발생기
전기용품 안정인증, LIG 배상보험 가입
전자파 장애실험필.
전자파 환경인증
실용실안출원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 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불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산되어 작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발이차신분 ◆오십견, 고관절, 당뇨, 전립선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쑥뜸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쑥뜸(최고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 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 됩니다. **차거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170-12-056037 정애영 /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합니다.

불자생활정보 | 전면광고 | 21

▷ 문의 : TEL 02)2004-8214, 732-1522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empal.com
▷ 가격 : 1Box (4.6×4.6) 4만원, 1Box (9.2×4.6) 8만원 ▷ 마감 : 매주 월~수요일(입금을 하셔야 광고 게재가 가능합니다)
▷ 계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주)현대불교신문사

역학·빙의퇴마
개인지도,직접상담
1.역학:사주,궁합,택일,성명학
2.최면,전생요법,귀신들린병 퇴마
3.일반과정,속성과정(출장지도가)
4.빙의,전생,우울,공포증,상담
011-772-4606
031)842-8023
의정부 비룡정사 제행스님

대한불교 대승선교 조계종
※위종단은 비구니(여승)종단 입니다
- 비구니 종단 등록
- 사찰 등록
- 비구니스님이 되고저 원하시는분

연락처 010-2606-5121

전통사찰 등록
문 화 재 등록
법 인 등록
"비법인 설립"
(서류대행)
성산개발
011-9476-9001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전통불교 문화예술대학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태평소
사찰행사·예수재전문
영산재 천도재 49재 점안식
011-9317-6686 (부산)
금정사 대명 합장

역학개인지도
한문과 용신격국 몰라도 물상으로 철학 배우면 바로 상담할 수 있음
짧은 시일내에 실제감정위주로 신수와 영가탈 배워 천도재 지낼 수 있도록 강의
(보경사 주지스님 직강)
051)333-3258
011-591-5277

염불,불공해드립니다
영남 전통 범음범패 소리로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재, 천도재, 각종 사찰행사
016-238-6215
선 연 화

화두방생의 (1박2일기적)
2009년 4월 15일 부터 선착순 매일 접수
호텔합숙,선식,바루공양,축원비2만원
전철온양행 하차-도고온천시내버스 로얄호텔앞
농협 465-02-403194 (이중남), 선납접수
온천-두뇌요가-방생천도재를 동참
단독 천도재는 토요일, 평일 천도재는 축원비 동참으로
041)541-0533 도고온천 맑은샘

보 살 선 방
- 1인1실 : 방1, 주방, 거실, 욕실 / 방1, 주방, 욕실
- 부부실 : 방2, 주방, 거실, 욕실

절에서 수양하며 기도하고 불교공부하면서 노년을 보내실분 (일부시주금 내시고 종신재)
불광사 · 불광대학
053)656-6766

염불,불공해드립니다
영남 전통 범음범패 소리로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재, 천도재, 각종 사찰행사
016-238-6215
선 연 화

소원성취기도
대학입시, 사업성공, 스트레스 우울증,변비,각종 집안 우환,아들딸 액운소멸
※가정방문기도와 상담도 합니다※
봉사활동 및 표교활동 하실 분 노후생활 회향을 잘 하실 분 지장경 테이프를 드립니다. 상담환영
010-7797-4355/016-787-3977
꿈바위 불교교육원
010-6789-5008

출가(여女) 수행자 구함
일년 공부 후 사찰을 책임 운영 할 수 있는 성실한 여(女)출가를 원하는 수행자 구함
▷부산근교
010-2599-6020

전통불교 범음범패 전수원
기초반,중급반,고급반,전문반 (전문의산소리,사물다루는법, 불교 전통무용, 예수재,천도재)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실전위주로 여법하게 행사할수 있도록 지도해 드립니다
051)555-0969
011-849-0961

빙의,49재,태중영가
알콜중독,우울증,자녀문제
묘터장애,사업부진,장기수양,기도
*SBS 등 TV 다수출현
부처골 지장선원
www.jijangsw.com
054)383-8553
011-9585-4908

대한불교도서관건립 불사
불법승 삼보님께 귀의하옵고, 불자님들의 가내에 부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기원하면서,佛書의 典當 대한불교도서관 건립에 뜻있는 불자님들의 선근인연을 기다립니다 헌책도 대 환영합니다
대한불교도서관추진위원회
010-2002-6332

우주大광명 천기(氣)도법
- 병원치료도 잘 안되고 몸이 아파 고생하시는분
- 가정불화, 질병, 우환 등 하는일이 잘 안되는분
- 조상천도가 잘 안되거나 귀신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빙의, 영적장애, 정신질환, 유전성질병, 불임여성
- 알콜중독, 우울증, 두통, 불치병, 수술 전후관리

※특별한 우주氣 치유로 건강을 찾아드립니다
031)321-9555 일광사
011-586-6091

신비의 게르마늄 팩
(노벨상 2회 수상)
탁월한 피부 미백, 매끈하고 보드라운 피부 잔주름, 기미, 칙칙한 피부 노화방지 100mg 2만
오사카대학공학박사(다까마스세이지)인정
(주)리코포오래이숀
농협 187-02-274348 이양희
주문 010-2414-4984

소중한 인연
단시일에 불사및 신도를 확보할수 있고 능력이 있는 비구승입니다
사찰을 맡겨주실 인연을 기다립니다
TEL 010-4500-8234

법당보살 모십니다
(경험자)
사무원 모십니다
▷대구 (개원사)
053)981-0995
016-400-0664

30, 40, 50대 비구니스님 구합니다
▷문의내용은 전화상담
노비구니스님도 연락하십시오
010-9219-7695

되는 이는 물에빠졌다 나와도 이 주머니에는 잉어가, 저주머니에는 붕어가.. 들어있는데 될때는 뭘해도 되고, 안될때는 뭘해도 안돼... 사주를 보아 원인과 때를 알고 적성을 찾으면 길이 보여...
영축산 토방에서 무불 합장
011-854-8107
(예약상담)

기도 수행정진 하면서 귀농을 하고자 하는 수행자를 모집합니다. 종무소 근무 할 불심이 강한 여 직원(PC가능자) 구함
숙식 제공,출퇴근가능
▷경북 군위면
054)383-0407
010-2750-4394

조계종 고찰에 산자수려 하고 조용한 정진도량에 내집처럼할 신심있고 후원 살림을 맞아볼 40~50대의 공양주구함
그리고 출가할 보살님도 환영함
▷경북 내원암 지장보궁
054)653-1180
010-6353-1180

공양주 보살님 모 십 니 다
▷ 북한산성
02)387-3216
011-9350-3216

비구 부전스님 모십니다
▷창원시내
011-879-2544

부전스님 모십니다
(45세 미만)
▷마산
016-428-6665

공양주 보살님 모 십 니 다
(대구 호암사)
011-503-5167
053)986-0500
053)983-2157

모십니다
- 비구니 기도스님
- 공양주 보살

(경기도)
010-4015-9494

공양주 보살님 모 십 니 다
(경험자 우대)
▷부천
011-9707-3490

秘 法 무 료 강 의
초종파! 귀의 삼보하옵고 비구,비구니들이여 광고보고 찾아가보면 벌 것 아니다
● 교재 : A4용지 인쇄분 - 각1시간강의(체험1시간), 본 강의 들으시고 훌륭한 선지식 되소서
1.전생요법, 빙의치유법 체면학, 참으로쉽다
2.신병에 침 놓는 곳 삼혼칠백의 작용법 건강(뼈주기,관상학,기공학
3.통술학,불력전생격국법. 심식법,약손안드는법 7일 도인비결법(직관법)
강의시간 : 매월 셋째주 (월요일 10시 - 17시까지) 장소 : 마산 무학산해 법행사 內
※(침) 특수혈 활용비법 (철학박사, 한의학박사, 설산당특별강의)
사총혈,사회혈,괄회혈,요혈,경험혈,육부하합혈,팔맥조화혈,오수혈을 쉽게 외울 수 있다.
*** 인연있는 승려들이여 이강의를 꼭 들으소서!! ***
전화 055)221-3358/010-9027-3117 의암 다보 -두손모음-

동양구운 마늘환
- 강한 면역력 증가
- 수족 냉증에 탁원한 효과
- 스테미너,만성피로 해결

080-365-3654 (동양물산)
www.gk24.co.kr

한국불교대학 신입생모집
대구큰절, 경산도량, 칠곡도량, 구미도량 3월 동시모집
▶ 저렴한 학비, 실속 있는 불교대학! 조계종 인가 신도전문교육기관!
- 화요일 오전반, 목요일 오전반, 목요일 저녁반 / 주1회 공부
- 학력 · 연령 제한없이 누구든 입학가능!
- 會主 우학스님(불교TV 및 불교라디오 법문) 직강!
- 입학하시는 분들께 "기도의 힘" 책과, 가방을 선물로 드립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한국불교대학"을 치세요.
※ 입학문의 ☎ 053)474-8228
행자 (예비스님) 모집 ☎ 010-2488-8228
<대구도심사찰 최초! 납골당 운영>

생활역학강의 : 전문교육처 초급 중급 연구(격국)
- 초급 3개월 중급 3개월 연구 3개월 : 고자강 이석영 고단원 이병렬 선생의 정통학문
- 주간반 · 야간반(월요일 7시부터 10시 까지) 정규반
- 특강 사주통변실전반 : 수시접수
  역학은 배웠으나 통변이 어려우신 분들의 특강반 / 핵심적인 용신법을 바로 알아낼 수 있는 비법전수 / 한 눈에 오행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전수
- 작명학 연구반 : 1월초 개강
  본명사주의 격국법 조후법 통관법 병약법 억부법 / 오행균형법 부족된 원형이정의 수리법 자원보충법 / 음령법 호성법의 체계적인 이론과 사상체질법 등 정통작명 비법을 전수합니다.
  http://kr.blog.yahoo.com/han103051

단원역리학회 지현역리학연구원 동대문구
전화 02)2243-9598, 018-470-63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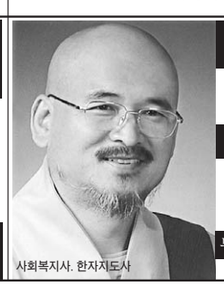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소서
011-850-0176

유 명 표 구 사
불자가 운영하는 유명표구사에서는 불자님은 물론 스님의 작품을 삼보전에 공양 올리듯 정성껏 표구해 드립니다.
대표장인 이 종 부 합장
▷전국 택배가능◁
문의 ☎ 02)374-9886
서울 은평구 응암3동 응암5거리 (지하철 6호선 새절역 1번출구)
BBS 퀴즈대장경 신행상담 코너 - 달마도 표구 협찬(8년)

풍수지리 전문가 과정 6개월 완성
형기 이기 패철 보는법 명당 잡는 법. 4/16(목)19시 개강
원장 전용원 박사 직강 정원 10명.
◆전용원 : 중문학박사로 청오 지창룡박사의 제자. 1990년부터 월간역학을 발행해오고 있으며 대학에서 중국문학을 강의하고 있음
◆인터넷 동영상강의 : 주역 사주 관상 풍수 육효 수상 사주 전과정 완성까지 45만원 부터. www.kbs.cc
관인 월간역학교육원 전화 1688-1137
서울 동대문운동장역 4번출구 경동교회 뒤

28숙기도 (대방등 대집경)
- 어떻한 소망도 28숙 기도로 다 이루어집니다
- 위치 : 백선사 절 (지하철 1호선 부천역 하차)

☎ 032)664-0048 / 011-741-0867


사회복지사. 한자지도사

진각스님 명리 철학교실
아기 이름을 예쁘게 작명
문의 051) 867-8438
진각 심리상담 아카데미
"鬱"막힐 울, 답답할 울, 성낼 울, 걱정할 울, 원망할 울.
우울이란 마음이며, 마음을 다스리는 행복한 마음을, 상담이나 최면을 통해서 찾아봅니다.
부산시청 뒤 거제리청과시장에서 양정쪽 150m 삼화탕 앞 송광정사

사주운세 10초 내 맞추면
수강신청하세요. 여자에 한함
명리학(사주첩경) 이석영 통달. 수월정사
011-498-5067 / 02)826-5067
031)774-5067 (주말)
[통화관계로 방문 사절] 농협 064-02-379867 김진동

도량 운영을 믿고 맡겨주실분과 도량을 성실하게 운영하실 청정 비구비구니 인연 기다립니다
노스님과 노보살님들을 돕고 건강도 챙겨드립니다
물론 당신도 돕겠습니다
아름다운인연 나누는 기쁨 **수월관음회** 010-2446-2626

백초귀장술 전수생모집
찾아 온 시간만으로 왜왔는지, 상대방 마음을 알 수 있는 래정비법 공개!
지금처럼 힘든 시기에 절에 찾아오는 신도들은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오는 것입니다.

현재에 당면한 일, 매매가 될지 안 될지,
금전이 구해지겠는지, 어려운지,
소송에 이기겠는가 지겠는가,
시험에 붙겠는지 떨어지겠는가,
취업이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사업이 잘 되겠는가 그만 둬야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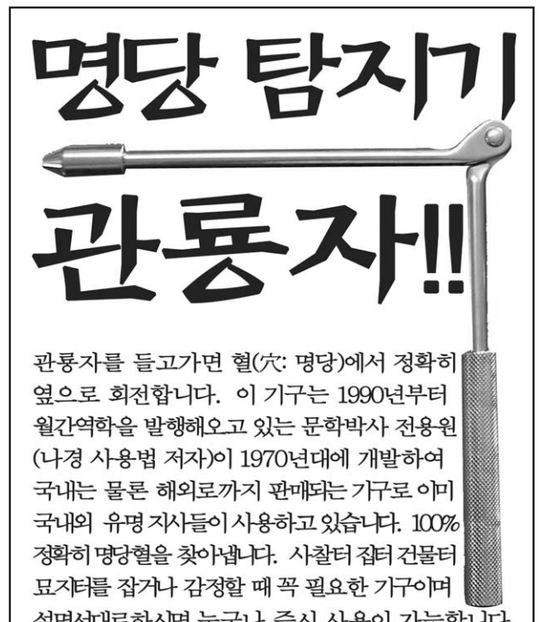
현재 일어날 상황의 길흉을 정확하게 알 수 있고, 명쾌한 해결점을 답변할 수 있어야 포교가 원활합니다.
그리고 매사가 꼬이고, 불행한 일이 왜 일어나는지, 어느 조상이 탈이 나서 방해하는 것인지, 어느 조상천도재를 지내줘야 하는지 등을 한눈에 짚어낼 수 있는 비법은 백초귀장술로만 알아낼 수 있습니다.

수강등록시 교재무료제공 | 저자 백초스님 직강



1:1 강의
지방에 계신분들을 위한
1일(8시간) 속성반 인기 교육중
(필히 예약가능)
백초율력학당 02)3667-4446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4가 148-1 영등포역앞

명당 탐지기 관룡자!!



관룡자를 들고가면 혈(穴: 명당)에서 정확히 옆으로 회전합니다. 이 기구는 1990년부터 월간역학을 발행해오고 있는 문학박사 전용원 (나경 사용법 저자)이 1970년대에 개발하여 국내는 물론 해외로까지 판매되는 기구로 이미 국내외 유명 지사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100% 정확히 명당혈을 찾아냅니다. 사찰터 잡터 건물터 묘지터를 잡거나 감정할 때 꼭 필요한 기구이며 설명서대로하시면 누구나 즉시 사용이 가능합니다.
* 관룡자는 88만원이지만 지금 구입하시는 분께는 66만원으로 할인+ 케이스(2만원)+수맥 탐지봉(1만5천원)+월간역학 1년 정기구독(10만5천6백원) 등 푸짐한 상품을 드립니다.
* 구입방법: 우리은행 064-301374-13-001 한국역학협회로 66만원 입금하신 후 전화 주시면 즉시 안전하게 택배 또는등기로 보내드립니다.
서울 중구 광희동 2가 303-15호 한국역학협회
전화: 1688-1137패철 보는법(책)도 있습니다(정가 2만5천원 2만2천원으로 할인+월간역학(8천8백원)증정
저렴 신속 사주 관상 풍수 동영상 강의 www.kbs.cc



사군자 떡
나눔과 자비의 정신으로 정진하겠습니다
불단용, 제사용, 법회용, 개인 행사용
모든 떡을 정성을 다해 만들겠습니다
모든 떡 일체 문의 : 사군자 떡
경기 의정부시 제일시장 다동 2호
031)843-3372 / 017-302-3372 일심행 합장

드디어 우리 활인천역자의 친견 임상 실기用 활용서 CD가 名品으로 최종 완결 되어 절찬리 판매 교환 中 입니다

"특히, 매일 매 시간별로 왜 왔는가? 어떤 정황인가? 어떤 수법이 필요한가? 일이 되는가, 안되는가? 장차 좋은가, 나쁜가?는 물론, 작사귀 · 병귀 · 부정빌미 · 산소탈침범여부와 그 해소 방법 및 각종 수법효과 유무 까지 미리알고 먼저 말할 수 있게 한 것은 육임학의 고등차원의 백미로서, 「적중도」와「효과성」을 동시에 보장시킨 이처럼의 상세한 전문가용 형이상법 책과 CD프로그램은 본「효사 것」밖에 없다는 것을 밝혀드립니다."

- 효사 활인천역집 Ⅰ·Ⅱ·Ⅲ 에 이어 탄생된 이 시대 최고의 우리 活人天役者 用 CD프로그램 "완결판" 입니다.

효사활인천역집 CD완결판
정가 450만원 · 교환 70만원
효사육임산책(09 신간) /육임1년신수비결(09 증보판)/효사육임사주감정법(활용편)/육임대계전서(09 휴대용개정판)/도사에게물어봐(09 보정판)/출산길일길시택일비법(09 개정판)/성명학/월영도/효사숙사주/부적보감/동의보감/육임풍수/육임길흉성부단정법/육임래정비법(09 개정판 좌정 · 휴대용) 등 14종이 종합 장착되어 있고, 위 각 분개(分個) CD프로그램으로도 판매하며, 위 각 활용서, 위 각 CD와, 학습총서「효사육임강론」上 · 下(09 7판본 완결판)을 권해드립니다.
- 「육임래정비법」시리즈 (육임래정비법 1권 / 6권 - 육임래정비법 혁신판 12권 · 육임래정비법혁신판수정보완본 12권 · 육임대계전서 60권 · 효사육임복변집 60권)에 이은 "최종판" 입니다.

효 사 육 임 산 책
정가 250만원 · 교환 90만원 · 부록 · 부연CD · 1800쪽(분할)
맞춤 권수선택 : 60갑자 60일치 1권 •60갑자 각 순별6권 •60갑자 매일 60권 中
맞춤 크기선택 : A5휴대용 •A4 좌정용 •A3 노안용 中
『지난 2000년도 이래 꾸준히 진화시켜온 저 고복자 효사의 위 각 육임활용서 · 학습서 · CD프로그램 들을 2009년 1월 현재 모두 개정 · 개편 · 증보 · 합산 · 교열 · 교정하여 「최종판」과「완결판」으로 재간행하였음을 전국 현인 · 기사 · 이인 제위께 알려 드립니다』

한 국 육 임 학 회 총재 고복자 효사
대표전화 051)908-8683 담당 진민경 www.taotemple.net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기본 규격 – 50.000원
  규격 가로 7cm – 70.000원
  규격 가로 10cm – 100.000원
- 계좌번호 : (주)현대불교신문사
  국민은행 222-25-0005-381
  농 협 053-01-269088
- 문의전화 : 02)732-1522
- 원고접수 : iom@hanmail.net
  FAX 02)737-0696

※ 접수마감 : 매주 수요일 오후. 다음주 금요일 게재

사 찰 안 내

- 사찰,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 은행 · 일반융자 좋은 조건으로 알선해 드립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암자, 기도원, 연수원, 명당터 확보함

사 찰 안 내

- 위치 : 강릉지역
- 법당 : 25평(목조)
- 요사 : 60평
- 부지 : 270평
- 가액 : 4억

- 위치 : 부산
- 법당 : 20평
- 요사 : 30평
- 부지 : 120평
- 가액 : 4억

- 위치 : 부산
- 법당 : 50평
- 요사 : 100평
- 부지 : 135평
- 가액 : 12억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사찰 및 토굴안내

대 사찰부지 (금광동굴 6기)
- 부지 총 평수 : 8만 6천평
- 위치 : 지리산 남쪽 끝자락 단성근처 집현산 금장사
- 가용면적 4만여평 평지, 약초재배 단지조성
- 금맥광산 및 황하철광산 6기
- 산세 및 주변 풍광 최고, 계곡 및 저수지(3만평)
- 버스진입 도로 접
- 평당 1만원

부산 범일동 법당
- 건물 27평(개인등기 필)
- 대지 : 100평(시유지)
- 법당 13평, 요사채 3칸
- 공양간 및 주방(최신시설)
- 뒷산 공원, 마당 석탑조성
- 전망 좋음
- 양도가 7천 5백

사찰전문 부산연산공인중개소 직011)560-8522 051)863-6622
※부산 시내 및 암자, 토굴 사찰부지 소액 및 고액 다량확보

사 찰 안 내

- 위치 : 강원도 영월
- 부지 : 1200평
- 건물 5동, 심야보일러
- 가액 : 1억7천만원

033)372-6494
010-4197-9195

사찰 및 암자터 안내

- 위치 : 충남 공주시 정안면 차령산 계곡 상류
- 답 : 1700평
- 가액 : 평당 5만5천원

010-4130-0606
(주인직접)

포교당 안내

- 위치 : 대구시 달서구 성서 신도시
- 평수 : 중심지 시장옆 2층 60평
- 보증금 2천만원 월80만원, 시설비 협의 가능
  모든시설 완비 현재 운영중

018-506-4059

사 찰 안 내

- 위치 : 울산
- 대지 96평, 건물 200평
- 도심 현대식 4층 건물
- 가액 : 10억
  (은행 3억 융자 7억 인수 가능)

011-860-1228

포교당 안내

- 위치 : 경남 김해시 부원동
- 평수 60평, 시설 일체 완비
- 가액 : 1천만원에 월 35만원
  (시설비 1천만원)

010-2618-7676

토 굴 안 내

- 위치 : 경기도 동두천시 소요산 전철역 2~3분거리
- 평수 : 대지 350평, 건물 60평, 방6 주차 여러대 완비. 텃밭 있음
- 보증금 5천만원, 월100만원

070-8142-2069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천 중동역 3분 버스정류장 앞
- 평수 : 70평
- 법당1, 공양간, 방 3칸
- 전체도시가스, 전기승압 즉시법회가능
- 보증금 2천만원, 월120만원
- 최고시설. 꼭필요한분만연락바람

010-7112-1823
032)612-0108

토 굴 안 내

- 위치 : 경기 양평
- 대지 : 205평, 건물 56평
  (1층 33평, 2층 23평)
- 찜질방 有, 종교시설
- 신축 황토 목조 기와지붕, 뒤산계곡접, 단독토굴, 동남향
- 비구니스님수행 도량으로도 적합
- 가액 : 4억 3천만원

031)775-2334

포교당 안내

- 위치 : 마산 중리 대단지 아파트 밀집 지역
- 천수관음 4자 외 탱화 5점
- 5층건물 중 4층 38평 시설완비. 즉시법회가능
- 보증금 1,000만원. 월30만원 시설비 답사 후 절충
- 소임관계로 급 안내

011-853-0051

포교당 안내

- 위치 : 원주시 소초면 교학리
- 임법당 13평, 집기 시설 일체, 심야전기, 탑
  ※부처님은 모셔져 있지 않음
- 가액 : 상담후 결정

033)731-5105
010-9470-5105

사 찰 안 내
(포 교 당)

- 위치 : 광명시
- 평수 : 35평(시설일체완비)
- 가액 : 2천만원에 월 50만원
  ※전국 사찰 부지등 양도 양수 하실분 전화 상담하여 드립니다

02)6674-3535
010-3154-3535
한국불사

부산대사찰급안내

20년된 벚꽃나무 50종있습니다
- 기와법당1동, 기와요사3동 명부전1동,산신각1동,종각1 화장실2동,창고 2동,석불, 약사여래불 15층, 용왕당
- 지하수, 산수도 사용 절내 주차시설 15대기능 심야보일러 사용
- 대지 780평, 가액 11억5천만원

011-563-1545

사찰(급)안내

- 위치 : 충북 영동 시내
- 대지 57평, 법당18평(독립채), 요사20평(심야보일러)
- 시내 중심가 큰 길변
- 가액 : 2억 (절충가. 1억4천5백)
- 스님 사정상(유학) 급 양도

010-7325-1259

토 굴 안 내

- 위치 : 밀양시 상남면 남산리
- 대지 : 49평
- 방2, 마루, 부엌, 목욕탕, 걸망풀고 쉴 수 있는 곳
- 가액 : 2천 5백만원

010-2047-8376
010-9247-2488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남 여수 돌산
- 대지 : 250평
- 대웅전(목조)25평
- 산신각, 요사채 각1동
- 가액 : 2억5천만원

011-9765-5302

도심빌딩속포교원

- 위치 : 경남 창원
- 평수 : 72평
- 모든시설완벽
- 가액 : 1억 8천만원

010-7188-7723

태백산 산좋고 물좋은 대사찰터안내

- 위치 : 강원도 영월군 하동면 내리 계곡 유원지 앞
- 연꽃 속에 봉황이 알을 품고 있는 형국이며 남향 좌우백호가 뚜렷하고 양쪽 계곡에 물이 흐르고 전기, 수도, 전화, 도로, 수백톤 자연돌과 조경이 잘 돼있음
- 관리지역 : 대지 200평, 건물 40평
- 전 4,410평, 총 4,610평
- 가액 : 7억5천(이민관계로 급안내)

018-223-2101 주인직접

신도시 부근 사찰

- 위치 : 경기 북부 시내중심가에서 도보로 15분거리 노송 우거진 풍치수려한 절
- 평수 : 680평(반영구적 사용가능한 실사용 평수 1000평 이상)
- 건물 : 대웅전20평, 요사채2동 (약100평,30평)창고2동, 시설좋음
- 교통편 : 매우 양호. 절에서 도보 30분거리전철역 개통예정 잠실과 강북에서차로 30분거리
- 장점 : 시내중심가이면서도 깊은 사찰같음. 인구유동성이 많아 포교와 수행에 최적지
- 가액 : 인근 그린벨트 주택가 평당 500만원선이나 상담후 절충양도하고자함

011-393-0013
011-710-7294

사 찰 안 내
도심포교원(급안내)

- 위치 : 대전시내
- 평수 : 89평(시설일체완비)
- 보증금 4천만원 월30만원 시설시 상담후 결정

010-2284-0737

포교당 안내

- 위치 : 평택 시내
- 6층건물의 4, 6층 (각 70평, 총 140평)
- 집기일체, 시설완벽
- 가액 : 보증금 3,000만원에 월 150만원(시설비 절충가능)

010-7460-1250

포교당(급)안내

- 위치 : 마산 산호시장 농협 앞
- 2층. 30평. 법당1,방2,주방
- 보증금 1000만원, 월40만원 시설비 1000만원
- 즉시법회가능

010-4001-8476
055)243-3758

포교당 안내

- 위치 : 대구시 동구 (지하철역 2분거리)
- 한옥주택(총50평)
- 방2, 주방, 욕실, 삼존불
- 즉시법회가능
- 보증금 500만원 사글세 300만원 시설비 답사 후 결정

010-2717-8088

토굴및불자수련원지안내

- 위치 : 강원도 인제
- 토지 : 3000평, 건물주택 70평 통나무집 10평, 차고 20평 창고 10평
- 외형 : ①반월지(명당터로써 참선수행의 최적입니다) ②교통편리하며 입구까지 아스콘 포장완료 ③토지분할가능
- 가액 : 7억 3천만원

011-9466-2296

사찰암자안내

- 전북 장수 장안산 덕산계곡 상류 해발 800m 위치
- 사찰이나 암자 최적지 (최고 명당터)
- 전체면적 523평 목조 건물 24평 1동 목조부속건물 20평 1동
- 가액 : 3억

011-644-2563

포교당(급)안내

- 위치 : 충북 청주 시내
- 1층 단독주택 33평
- 큰방 1(법당) 외 큰방 2, 거실, 주방, 화장실
- 삼존불, 각단탱화 모든시설완벽, 현재 운영중
- 소임관계로 급 양도 스님이나 법사보살님께 최적 동네가 조용하고 주차 편리함
- 전세 2200만원, 시설비 1500만원(절충가능)

010-4923-4927

토굴암자안내

- 위치 : 여주군 금사면 전북리
- 대지 298평
- 건물 50평. 1층, 2층(별장임법당)
- 산신각 옆 사계절 물 흐름 토굴 앞 남한강 보임 텃밭, 마당 잔디밭
- 가액 : 2억 9천만원
- 큰방 4, 대형거실, 욕실, 화장실 2, 상수도 지하수 겸용

010-4736-3567

사 찰 안 내

- 위치 : 김천시내 10분거리
- 법당 1,2층 약 45평 요사채 1,2층 약 50평(현대식) 단청필 총 175평
- 가액 : 2억 2천만원
- 시설깨끗하고 좋음

010-6298-2588

사 찰 안 내

- 위치 : 천안시 목천 IC에서 10분거리
- 면적 : 총500평(대지+부지)
- 목조건물, 대웅전, 산신각, 요사채
- 가액 : 5억

011-9505-9808

포교당(급)안내

- 위치 : 천안시 성정동 쌍용대로변 4층 건물 중 3층 전체
- 평수 : 70평(법당 30평, 방 2)
- 즉시 법회 가능
- 보증금 : 1천만원, 월 88만원 시설비 2000만원(절충가능)

010-4767-4067

포교당 안내

- 위치 : 경남 양산시 북부동
- 법당(삼존불 외 호신불), 방2, 공양간 – 30평
- 보증금 500만원. 월 35만원 시설비 1200만원

055)364-3525
010-4531-3525

포교당(급)안내

- 위치 : 대구 태평로 (지하철1분거리)
- 평수 : 약 30평
- 모든시설완비, 즉시법회가능
- 보증금 200만원, 월 20만원 시설비 상담 후 절충
- 스님 공부관계로 급 양도

010-5075-1141

포교당 안내

- 위치 : 경남김해시 삼방동
- 평수. 53평(2층) 위치 양호함
- 법당.삼존불 소불200불 등삼백
- 보증금 500만 월 40만 합 이천만원

010-9395-9397
055)337-9397

도심부근 개인암자안내

- 위치 : 강원도 춘천시 소양로 (강원도청 부근)
- 대지 : 85평, 법당 10평 요사 20평(방2, 샤워실) 법당 뒤 야산
- 아미타 삼존불, 즉시법회가능
- 보증금 800만원, 월25만원 시설비 없음
- 관리 잘해 주실분, 몸만오실분 꼭하실분만연락바람

011-9116-5113

토굴(터)안내

- 위치 : 경북 봉화군 소천면 분천
- 이전관계로 양도함. 등기 337평 전 163평, 임야 175평
- 한옥토굴 27평 방 2개 산신각 1동(단청) 요사채 현대주방1칸+방2칸 부엌1칸 창고10평 실내화장실2칸+1칸
- 조경수 및 심야 대형온수기 주차장+창고,마을상수도 사용함
- 답사 후 절충

010-8868-9407
054)673-6496

포교당안내

- 위치 : 경기도 부천시 역전에서 도보로 10분 시장 5분거리. 상가 3층 중 3층
- 약 30평, 방3개, 화장실겸욕실, 옥상사용 즉시법회가능
- 보증금 500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답사 후 절충

010-3630-3579

사 찰 안 내

- 위치 : 마산시 내서읍
- 대지 : 등기필 104평, 기타 사용지 있음
- 건물 : 법당 (단청), 요사채, 스님친견실 3동, 주차 20대 가능
- 가액 : 1억 8천만원 (융자 4천만원)

019-550-9725
055)232-7151

포교당 안내

- 위치 : 2호선 낙성대입구 (도보 3분)
- 3층 약 40평, 법당, 방 2개, 주방, 다용도실
- 보증금 1천만원, 월85만원 시설비 2천5백만원(절충가능) 몸만 오시면 즉시법회가능

02)887-2138
010-7104-4849

사찰암자터안내

- 위치 : 경북 성주군 선남면 관화리 선남면 소재지에서 3분거리 대구시 20분거리. 총 568평
- 대지 약 200평, 건물 1동 나머지 답, 가건물 2동
- 관리지역, 계곡, 저수지접 노송, 풍수 수려함
- 가액 : 1억 7천만원(주인직접)

017-804-1234
053)627-1234

포교당 안내

- 위치 : 서울 서대문구 3호선 도로변 3층건물중 3층
- 평수 : 법당겸 주방 약 15평, 옥탑방1
- 가액: 보증금800만원 / 월33만원 시설비 삼존불 등 600만원
- 유동인구많음, 역학 보살님도 가능

02)723-3577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남 공주
- 앞에는 계곡, 뒤에는 산, 도로접
- 대지 : 200여평 실사용평수 : 300평 건평 100여평
- 가액 : 2억 7천
- 집기일체포함. 몸만 들어오면됨

010-9468-4235

포교원 안내

- 위치 : 대구 북구 칠곡
- 평수 : 3층건물 2층, 3층 70평
- 구조 : 법당, 공양간, 오존불, 방2개 모든시설 갖추어져 있음
- 보증금, 시설비 합 4,000만원

010-6633-8301

산세수려하고 청정계곡에 위치한 천해의 명당

- 영동고속도로 새말 IC 5분거리
- 실버타운 요양원 납골당 설립 최적지
- 대지 600평, 관리지역 2400평 국유지 1만평, 사찰부지 3000평사용
- 법당 30평, 요사4동 150평
- 방13개, 수세실 욕실, 화장실6개, 심야전기보일러
- 가액 : 19억

031)345-5597
011-771-5597

사 찰 안 내

- 위치 : 위치 : 서울
- 부지 : 150평
- 법당 : 35평
- 요사 : 20평
- 가액 : 5억5천급매

- 위치 : 강원도
- 대지 : 400평
- 법당 : 20평
- 요사 : 60평
- 가액 : 1억1천급매

전국 사찰 암자 포교당 부전스님 공양주 소개합니다
광진불사 02)723-4082

평생토굴분양

자격 참선수행에 득력한자로서 마음깻 공부하다 죽을 각오가 정리 되신분
- 분양가 : 3천만원(1인 1실 방 93개 선착순)
- 대상 : 비구, 비구니, 거사님, 보살님, 종단불문
- 위치 : 서울시 정릉 4동 북한산입구 남향 명당혈 버스종점 5분거리
- 혜택 : 숙식, 난방, 수도, 공과금 모두 지원해드림(공부만 하면됨)
- 자가용 소지자는 절대분양못함

02)914-4235

사 찰 안 내

- 위치 : 밀양 IC에서 10분거리 도로포장, 주차 10대 가능
- 특징 : 법당10평 요사채14평 총235평 산신각 및 용왕당 약사불등 경치좋고 양지바른곳
- 가액 : 1억 8천만원

010-6782-2916 (주인직거래 원함)

포교당(급)안내

대중 소임 사는 관계로 포교당 운영하실분을 찾습니다
- 경남 김해시 어방동 인제대 부근
- 평수 : 50평
- 주변 : 대형아파트 다수. 경남일대. 포교 최적지 주변 유동인구 최다
- 법당, 방 2, 주방, 종무소, 내부화장실, 전체난방 에어컨설치
- 몸만 오셔도 법회 가능 / 모든 시설 일체(완비)
- 개인 종교법인 등록
- 보증금 2천만원 / 월 50만원. 시설비 1500만원

010-6739-6426

포교당 안내

- 위치 : 경기도 시흥시대야동 보건소길 (부천방향으로) 대야 초등학교 근처
- 평수 : 13평 정도. 삼존불, 소불 50불(인등)
- 보증금 500만원, 월15만원, 시설비 1300만원

※혼자하실 여스님 환영(주택가 도로 끼고 있음)
- 역학 하실분도 관계없음. 아담하고 법당1, 방 1, 뒷마당 조금
- 저렴한 월세이기에 부담없습니다
- 저는 넓혀서 가기때문에 내놓게 되었습니다

※ 꼭 하실 분 전화요망 ※

010-7322-8593

사 찰 안 내

- 법당 32평, 산신각 3평, 요사채 2채
- 단청이 예쁘게 꾸며져 있음 2006년에 창건한 신축건물
- 절도량 수려, 주차장완비 도로포장 됨, 30대주차가능
- 가액 : 5억 3천만원

011-9133-5822

토 굴 안 내

- 위치 : 하동 악양, 지리산자락
- 부지 : 680평
- 가옥 : 신축황토기와집
- 특징 : 마을 외곽 경치 좋음
- 가액 : 2억2천만원

010-4782-2112

포교당 안내

- 위치 : 부산시 사하구 다대동
- 평수 : 24평, 삼존불
- 보증금 500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1000만원(절충가능)

010-8504-6591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시 사하구 개정 2동
- 대지 : 63평, 건물 3층 96평
- 내부 최고시설, 옥외 약사여래불 조성
- 가액 : 7억 7천만원(절충가능)

011-850-2189

사 찰(터)안내

- 위치 : 경북 청도
- 평수 : 산 1500평
- 가액 : 평당 30만원

절터, 토굴, 기도처로써 명당 터입니다
- 옛날 전설이 있고 도인도사 할아버지가 몇 천년전에도 공부를 하셨던 자리로써 입구에 약수터가 있고 청정도량으로써 원래는 본인이 토굴을 여러 동 지어 지인 들과 함께 수행하던것이 자금에 차질이 생겨 이렇게 좋은 인연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 본인 역시 독실한 불자로써 수행하시는 분께 매매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기도해봅니다

010-5501-3150

다향 속에서 자연 관조했으니…


<동다송> 특강에 나선 조계종 총무부장 원학 스님.

초의 선사 안개를 먹고 사는 사람이란 뜻의 '찬하자'라 불러
다산 정약용 · 추사 김정희 등 유학자와 교류 통찰력 키워

원학 스님 '동다송' 특강

강 사 : 원학 스님 (조계종 총무부장)
일 시 : 2009년 3월 30일, 4월 6일
장 소 :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주 제 : '동다송(東茶頌)'

초의 선사(1786~1866)는 근세 민족사에서 선리(禪理)와 경학(經學)에 밝은 수행자로 인간다운 면모를 지닌 선지식이다.

〈동다송(東茶頌)〉은 초의 선사가 정조 대왕의 딸인 숙선 옹주(宿善翁主)와 결혼한 홍현주(洪顯周)의 요청으로 쓴 송구로 어느 끽명다인(喫茗茶人)들의 시문보다 뛰어난 다송(茶頌)이다. 차에 식견이 높았던 초의 선사는 자신의 저술인 〈다신전(茶神傳)〉을 바탕으로 한국에서 자생중인 소엽종자인 작설차(雀舌茶) 동다(東茶)에 관한 찬송을 붙였다. 7언절구 17송으로 총 500여 자 자구(字句)로 쓰인 〈동다송〉은 간결한 문체로 자신의 차 생활에서 우러난 진솔한 체험을 담고 있다.

바쁜 종무원들에게 〈동다송〉의 차 한 잔하는 삶의 여유와 지혜를 선사하고자 조계종 총무부장 원학 스님은 3월 30일~ 4월 13일 중앙종무기관 종무원을 대상으로 〈동다송〉을 강의했다. 평소 동양화를 그리는 등 남다른 예술적 감각을 소유한 원학 스님의 선기(禪機) 가득한 강의를 들어보자.

3차에 걸쳐 진행 중인 스님의 강의를 2회로 나눠 게재한다.

#인간적인 삶=자연의 삶

돈 되는 이야기나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하면 좋을 텐데 200년 전 이야기로 고리타분한 시간을 보내야 할 것 같아 강의를 처음에는 주저했습니다. 하지만 200년 전 이야기가 삶 속에서 당장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삶에 여유를 주는 배움의 시간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인간적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인간적이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따뜻한 마음 정(情)이 있다는 말이죠. 또한 정을 가진 사람은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초의 선사 이야기를 배우는 이 자리는 바로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을 배우는 자리입니다. 부처님의 사상은 자심(慈心)과 비심(悲心), 곧 정(情)입니다.

〈동다송(東茶頌)〉 내용을 분석하고 이론화하거나 배우고 익히며 깊이 논하지는 않겠습니다. 지나가는 바람소리 같이, 부담 없이 듣는 염불 같이, 자연을 가장 아끼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고시를 감상하며 가벼운 마음으로 접근하고자 합니다.

#자연인 초의 선사의 시어로 본 진향

졸졸 흐르는 시냇물 속 떠내려가는 구름을 밟고 창문은 소나무위 둥근달을 머금었네(履雜潤底雲 窓含上松月).

졸졸 흐르는 물 속 정경을 관조하는 자세와 창문이 소나무 위의 달을 머금었다는 표현에는 삼라만상을 살아있는 생명체로 존중하는 초의의 자연애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렇게 초의의 시어를 가까이 접하다 보면 수행자로서 평상시 자연에 대한 직관력과 관찰력이 뛰어난 안목을 바탕으로 한 시정이 느껴집니다.

시공을 초월해 뜨고 지고를 반복하는 달과 구름의 조경을 어느 한 순간 포착해 이렇게 묘사한 것은 초의의 시각과 직관력, 관찰력이 아니면 누가 하겠습니까? 초의의 직관력은 일상 속에서 저절로 무르익어가는 삶의 향기 같은 다도(茶道)생활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중앙종무기관 종 무 원 들 이 원학 스님 〈동다송〉 강좌를 듣고 있다.

초의는 스스로를 '부지런히 만행을 닦고 번뇌를 쉬어 없앤다'는 사문(沙門), '안개를 먹고 사는 사람'이라는 뜻의 찬하자(餐霞子)라 불렀습니다. 항시 자연과 더불어 생활하면서 자연의 정취를 다도 속에 누렸던 초의는 화려한 명예, 부귀, 권력의 윤색함과는 거리가 먼 탈속한 삶,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에 가장 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초의의 삶을 통해서 배울 것은 지식이나 학문이 아닙니다. 일상에서 접하는 자연입니다. 우리가 평소 이런 이야기에 귀기울이지 않는다면 자연을 사랑할 수 없고 정이 있을 수 없습니다.

〈법구경〉에 '사랑하는 사람을 갖지 마라, 사랑하는 사람은 못 만나서 괴롭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애정은 상대적이라 애정을 가진 자는 반드시 질투를 낳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자연에 애정을 가진 사람은 질투하지 않습니다. 내가 필요하면 언제든 가져다 쓸 수 있는 것이 자연이기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 사람들은 자연을 사랑해 본 일이 없습니다. 인공향수를 뿌리고 성형을 합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돈 들여 가꾸려 말고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자연스럽게 예뻐지고 자연스럽게 향이 납니다. 초의의 생애와 〈동다송〉을 통해 차에 대한 덕목을 헤아려 보세요. 바쁜 생활 속에서 벗어나 탈속한 삶의 자세를 배우고 다도의 향기를 생활의 다반사로 자리매김 시켜보세요. 여러분들의 삶이 업그레이드 됩니다.

#선리(禪理)와 경학에 밝은 수행자 초의

근세 민족사에서 초의는 선리(禪理)와 경학(經學)에 밝은 수행자일 뿐 아니라 인간중심의 보편적인 삶을 살았던 너무나 인간다운 면모를 지닌 선사입니다.

초의는 15세에 남평 운흥사로 출가했습니다. 벽봉민성(碧峰敏性) 스님을 은사로 모시고 이후 해남 대흥사 완호(玩虎) 스님에게 구족계와 법맥을 이어 받아 초의라는 법호를 쓰며 출가수행자의 기본 관문을 닦았습니다. 그가 초의라는 이름에 충실할 수 있었던 것은 24세 되던 해 강진으로 유배 온 다산 정약용(1762~1836)을 만나서 시문과 유학에 눈뜨면서부터입니다. 초의는 다산을 만나 인생과 자연에 대한 이해와 사랑이 깊어졌습니다.

해남은 지리적으로 변방에 속했습니다. 지리적 한계 속에서 식견자를 만나기는 쉽지 않은 일이지요. 또 배불(排佛)시대에 유학자들과 교류한 것은 초의에겐 행운이었습니다.

1815년, 초의가 30세 되던 해에는 동년배로서 평생을 도반으로 정담을 나누고 살았던 추사 김정희(1786~1856)와 김명희, 김상희 형제를 비롯해 다산의 아들인 학연, 학유 형제를 가까이 사귀면서 인간관계의 폭을 넓혔습니다. 여기에 자하, 홍석주, 신위 등 문사들과의 교류를 더하면서 다양한 분야에 대한 이해와 통찰력을 갖게 됐습니다.

초의는 포교 전략사이기도 했습니다. 초의는 승려와 유생들의 교류가 어려웠던 시절, 시문을 통해 배불숭유자들과 교류하면서 선문(禪門)에 대한 불신을 무너뜨렸습니다.

승려의 신분이라 유배자의 적소 출입이 자유롭던 초의는 추사 등과 친분을 쉽게 쌓을 수 있었습니다. 제주도에 유배된 추사 김정희에게는 정성들여 만든 작설차를 제자 소치(小痴)를 통해 보내기도 했습니다. 적거지를 찾아가 외로운 추사와 함께 서화, 다도, 경문, 선경(禪境)을 토론하며 25년의 나이차를 극복한 진정한 도반이 됐습니다.

#초의의 삶

초의는 명사들과의 교류로 세상에 자신의 이름이 알려지자 1824년 대흥사 동쪽 골짜기에 초암을 마련해 일지암(一枝菴)을 짓고는 잠시 떠났다가 다시 찾았습니다. 초의가 71세 되던 해(1856년) 추사가 과천에서 생을 마치자 완당금공(阮堂金公) 제문을 지어 보냈습니다. 이후 초의는 1866년(고종3) 세수 81세 법랍 65세로 대흥사에서 열반할 때까지 일지암에서 만년을 보냈습니다.

'안개는 옛 인연을 잊어버리기 어려워라/ 물병 발우그릇 살림살이 집이래야 서까래 몇 개 걸쳤네/연못을 만들어 허공 달이 잠겨 오게 하고/ 간대를 이어서 백운샘물 끌어 왔다네'

초의의 삶은 이렇게 소박했습니다. 자신을 안개에 비유해 안개가 청산을 찾아와 산허리를 쓰다듬고 슬며시 사라지는 듯해도 청산이 있는 한 안개는 반드시 찾아오듯이 자신도 일지암을 지어놓고 떠났다가 다시 오게 됨을 청산과 안개에 비유했습니다.

일지암의 살림살이는 물병, 발우그릇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초의는 연못을 만들어 물을 채우고 밤이면 허공의 달이 못 속에 잠겨 있도록 해 정취를 즐겼습니다.

게다가 그 달이 언제나 못 속에 잠겨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해 높은 곳 백운의 샘물을 간대로 끌어와 못 물이 마르지 않도록 했다는 것은 거래가 분명한 자연의 빈객을 맞이하고자 노력한 초의의 안목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초의의 삶은 요즘 출가자의 삶과 너무 다릅니다. 요즘 출가자들은 어떻습니까? 화려하면서도 출가자의 본분에 벗어난 삶을 사는 것은 호되게 비판받아야 합니다. 출가는 인연을 끊는 것입니다. 애욕의 인연을 끊는 것입니다. 반면에 초의와 같이 자연의 정경을 즐기며 동화돼 사는 것은 끊기도 어렵지만, 자연과의 인연은 끊어서는 안 됩니다.

달은 사람, 빗물, 지위를 가리지 않고 누구든 안아줍니다. 언제든지 내 가슴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은 가슴에 무엇을 담고 삽니까? 무엇을 담고자 합니까? 마음대로 팍팍 쓸 수 있는 돈이요? 돈은 나를 절대 넉넉하고 행복하게 해주지 않습니다. 유명기업의 회장 아들도 이혼을 하는 세상입니다. 남부럽지 않게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뭐가 아쉽고 부족해서 이혼하겠습니까? 1000생의 인연으로 만난 부부라는데 왜 그럴까요? 이것은 자연에 대한 마음, 정, 애경심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달이 일지암 앞 연못에 담겨있 듯 여러분의 가슴에도 달을 담을 수 있습니다. 삶의 공간을 자연과 접하며 살고자 하는 사람은 수많은 재산을 모으지 않아도 행복합니다. 초의 선사를 보며 진정한 행복을 되짚어봅시다. 〈계속〉

정리=이상언 기자 un82@buddhapia.com
사진=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불자정보 727호 |
TEL 02) 2004-8213(直) 732-1522
FAX 02) 737-0696

포교당 안내
● 위치 : 청량리역 2분거리
● 5층건물중 5층 전체사용 80평중 마당 30평, 법당 30평 방2,거실1,욕실2개,부엌1,다락1
● 삼존불,지장단,1자원불 500여불
● 보증금 1천만원 월 80만원 시설비 5800만원(절충가능)
● 즉시법회가능
010-2069-0824

포교원(급)안내
● 위치 : 천안시 쌍용1동 대로변 전철역 5분거리
● 평수 : 40평
● 상가 : 4층건물중 2층전체
● 구조 : 방3개 법당 시설완비 즉시법회
● 보증금 500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1500만원(절충가능)
010-2259-6787

포교당 안내
● 위치 : 양산시 북부동
● 평수 : 86평(법당 46평) 방 3칸, 공양간
● 삼존불 (아미타불,관세음,대세지보살)
● 전세3500만원 월세 50만원 시설비 및 비품대는
● 상의 후 결정
010-8011-7444

포교원(급)안내
● 위치 : 군포, 안양지역
● 평수 : 76평. 방4개 공양간, 샤워실, 회장실별도 (스님만 쓸 수 있는 곳)
● 즉시 법회 가능
● 보증금 2000만원 월130만원 시설비 상담 후 결정
011-685-6740

사 찰 안 내
● 위치 : 강원도 강릉
● 부지 500평 임법당 30평
● 요사 40평, 산신각
● 좌청룡 우백호 뚜렷한 포란형(남향)
● 가액 : 2억5천만원
011-452-8374

토 굴 안 내
● 위치 : 청양 칠갑산 인근
● 건물 : 약20평 황토목조구옥 (현대식리모델링)
● 대지 : 사용승락 필
● 가액 : 절충(임대가능)
010-3166-4560

포교당 안내
● 위치 : 전남 광양시 광영동 명진사
● 특징 : 약 50평, 삼존불 외 모든 시설 갖춰져 있음 몸만 오시면 즉시법회가능
● 보증금 500만원,월 35만원 시설비 500만원
● 꼭 하실분 연락바람
010-3163-5014

사찰(급)안내
● 위치 : 부산 수영구 광안 해수욕장 5분거리
● 3층 건물 중 2층 법당 60평 방2, 화장실2, 주방
● 삼존불,산신,후불,신중,칠성,소불 200불
● 전세 1억 3천만원(사글세 가능) 시설비 없음, 주인 직접
● 스님 서울 이동 관계로
010-3019-2236

임법당 안내
● 위치 :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갈월리
● 평수 : 대지 300평
● 법당 25평, 방5, 욕실, 주방,
● 아미타삼존불,법당공양실물품일체
● 시설비 없음, 조용한 기도처
● 전세금 3천만원.즉시법회가능
010-2204-8375

암자(토굴)안내
● 위치 : 전남 벌교읍
● 대지 120평
● 기와집, 수세식 화장실
● 시설완비
● 가액 : 2천5백만원
010-3541-2314

포교원 안내
● 위치 : 강남구 역삼동
● 실평수 : 16평
● 방1, 삼존불, 탱화, 기타
● 보증금 1,000만원 월75만원 시설비1500만원
010-8795-2832

포교당 안내
● 위치 : 대구 북구 구암동
● 법당(건물)60평
● 약사도량, 즉시법회가능
● 약쑥, 뜸방, 벌침교실 (불보살님께 인수 후 당분간 스님 관리지도함)
053)326-0806
010-6592-0808

포교당(급)안내
● 위치 : 경북 영천시 녹전동
● 2층(법당10평, 방5평) 1층 주택 (심야전기, 쌍3개, 욕실)
● 가액 : 7,000만원 (꼭 하실분만 연락바람)
010-5319-9003
010-6517-1291

포교원 안내
● 위치:대구광역시 서구 평리5동 3층건물 중 2층
● 약 45평.삼존불, 욕실, 화장실, 주방, 종무실 겸 방2칸
● 보증금 1천만원 / 월60만원 모든시설 완비(시설A급) 시설비 2300만원
010-2208-4899
053)552-6487

부자가 되는 명당
● 땅 : 관리지역 약 1만평 토목공사 완료
● 건물 : 신축 원룸 60평식 2동 20평 토굴 1동
● 가액 : 15억 중 5억 대출가능
● 용도 : 팬션,기도원,연수원, 전원주택 불사 가능 투자 가치 100%
010-8992-6787

포교당 안내
● 위치 : 경기도 부천시 역전에서 도보로 10분 시장 5분거리. 상가 3층 중 3층
● 약 30평,방3개, 화장실겸욕실, 옥상사용 즉시법회가능
● 법당, 삼존불, 후불, 신중, 산신탱화 등 집기 일체
● 보증금 500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1500만원
010-3630-3579

포교당(급)안내
● 인천시 계양구(지하철역 3분거리)
● 4층 건물 중 4층 40평
● 삼존불, 신중, 산신, 용신탱화, 각종 호신불 모든시설 갖춰져있음 즉시 법회 가능
● 보증금 500만원, 월50만원 시설비 답사 후 결정
032)546-5117

임법당 안내
● 위치 : 강원도 주문진읍 중심가
● 1층 단독주택 약40평
● 법당아미타 삼존불, 후불탱화, 신중탱화 칠성 산신 용왕탱, 지장보살 후불108불,큰방2개, 화장실2개,거실,주방,10여개 주차공간, 불사관계로 양도함
● 보증금 500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2,000만원(절충가능)
033)661-2915
011-402-1669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의령군 궁류면 소재
● 총평수 : 1700평중 허가면적 550평
● 건물 : 임법당, 요사채,산신포함 약 100평
※현재 공시중인 사찰로써 갑자기 스님의 건강악화로 인하여 급하게 양도하오니 꼭 하실분만 연락주세요
● 현재 총공사비 약 4억 5천만원 소요
● 가액 : 2억(방문 후 가격절충가능)
● 암자 및 조그마한 사찰과 교환가능합니다
055)572-0405
011-9850-8208

포교당 안내
● 위치 : 대구 북구 칠곡 신도시 아파트 밀집지역
● 실평수 : 60평, 3층 내 법당30평 기타 30평
● 침구치료, 왕쑥뜸방, 벌침교실, 기치료실 주불, 약사불, 지장불, 신중, 칠성, 산신, 관음, 지장소불 108불 조성(최고의 시설)
● 보증금 500만원, 월세 60만원 시설비 5,000만원
● 천도재 및 법회 외 월 고정수입 500만원
● 양명줄이 있는 스님이나 불보살 불자분에 한하여 인수한 분에게 치료하는 법을 전수해 줍니다
010-6592-0808

울퉁보살 불퉁거사 〈42〉

구성 : 김흥인



외아들을 죽인 여자

〈백유경(百喩經)〉



옛날 어떤 부인이 처음으로 아들을 낳고 다시 아들을 낳고자 다른 부인에게 물었다. "누가 나로 하여금 다시 아들을 두게 하겠는가." 어떤 노파가 말했다. "내가 능히 아들을 얻게 해 줄 터이니 하늘에 제사하라." 부인은 물었다. "그 제사에는 어떤 물건을 써야 합니까." 노파는 말했다. "너의 아들을 죽여 그 피로 하늘에 제사하면 반드시 많은 아들을 얻을 것이다." 부인은 그 노파의 말에 따라 아들을 죽이려 했다. 옆에 있던 지혜로운 사람이 그것을 보고 꾸짖었다. "아직 낳지 않은 아이니 얻지 못할 수도 있는데, 그를 위해 현재의 아들을 죽이려 하는구나." 어리석은 사람들도 그와 같아서 아직 나지 않은 즐거움을 위해 스스로 불구덩이에 몸을 던지고 갖가지로 몸을 해치면서 천상에 나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옛 판화의 세계

단을 세워 기우제를 지내다
입단기우(立壇祈雨)



고판화박물관소장 〈석씨원류응화사적(釋氏源流應化事跡)〉 중 입단기우(立壇祈雨) 편. 불암사판 1672년 간행. 반곽(半郭) 27.2×18.0cm

석씨원류에 등장하는 이 삽화는 중국 밀교의 개조인 금강지 선사가 기우제를 지내는 장면으로 칠구지보살상을 개안하자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을 판각한 작품이다. 금강지(金剛智 671~741)는 인도 출신으로, 10세 때 나란타사의 적정지(寂靜智)를 따라 출가해, 성명론(聲明論) 법칭론(法稱論)을 배운 후 20세에 비구계를 받았다. 6년 동안 다시 대승률(大乘律)과 소승률, 공종(空宗)의 〈반야등론(般若燈論)〉 〈백론(百論)〉 〈십이문론(十二門論)〉을 공부하고, 가비라성(迦毘羅城) 승현(勝賢)에게서 유식학(唯識學)을 공부했다. 그 뒤 남인도의 용지(龍智)에게 가서 7년 동안 밀교(密敎)의 깊은 이치를 공부했으며, 마뢰야국 보타락가산에 올라 관음의 신령스러운 말씀을 받아 중국에서 가르침을 펼 것을 결심했다. 개원 8년(720)에 당나라 낙양에 들어가 대자은사(大慈恩寺)에서 밀교를 크게 펼쳤다. 제자인 불공(不空). 일행(一行)과 함께 개원 11년부터 〈금강정유가중략출염송경〉〈금강봉루각일체유가유기경〉 등을 번역하고, 다시 황제의 칙명에 의해 기우(祈雨)를 행하고 공주의 병을 낫게 했다. 낙양의 광복사(廣福寺)에서 71세를 일기로 열반에 들었다. 본문을 살펴보면 "황제는 금강지에게 조서를 내려 단을 결성하여 비가 내리기를 빌도록 요청했다. 불공구와 보살법에 의거해 그가 주석한 곳에 단을 세웠으며, 몸소 칠구지보살의 상을 세워 기일을 건립해 광명을 열게 하고 날을 정해서 비가 오게 기원했다. 황제는 일행선사를 시켜 살펴보게 했는데 7일이 되자 불꽃같은 기운이 충충하고 하늘에는 뜬구름이 없었다. 오후가 되어 보살상의 눈썹과 눈을 열게 하니 그 즉시 서북풍이 일어나 기왓장이 날아가고 나무뿌리가 뽑히면서 무너지는 구름에서 비가 쏟아져 내렸다. 이에 멀고 가까운 곳에서 모두 놀라고 이상하게 여겼는데 단을 결성했던 땅에는 구멍이 뚫어지고 홍수가 도랑에 쏟아져 들어왔다. 경성의 선비 선인들이 모두 금강지가 한 마리의 용을 잡아 집을 뚫고 날아가는 것을 보았다. 그곳을 구경하는 사람이 하루에도 천만 명에 달했다. 이때부터 그는 널리 밀장을 부양해 만다라를 건립했는데 법에 근거해 지어 이루니 모두 신령한 서상이 감응됐다." 금강지의 밀장이 일행과 불공, 혜초에게 전수됐으며, 신라에도 전해져 한국 밀교의 기틀이 됐다. **선학 스님(명주사 고판화박물관장)**

詩가 있는 도량

■ 안국사에서 뽕차를 먹다

비 오고 눈 오고 안개 낀 지리산 백무동 계곡에 사는 신선들은 외입 가고 없었다 동안거에서 풀려난 고담사 주인은 함양 가시고 당신 없이도 오는 손님 다 뜻하시라고 차방 아랫목에 불 지펴둔 안국사 주인은 부산 가시고 눈 쌓여 아이들 슬러시같이 녹은 대웅전 마당 아래 차를 세우고 차방에 들어 뽕차를 먹었다. 차 맛이 안개 맛이다 차방의 찻상을 마주하고 우리는 무릎 걸음으로 찻상머리 비집고 앉은 지리산을 보았다 안개가 지리산을 낳고 있었다. 나는 거기서 그만 죽고 싶었다

–석여공/〈잘 되었다〉에서

사찰 종합 보험 전문

사찰내외의 다양한 위험(화재 풍수해 도난 등)에 대한 대비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상담해 드립니다

상해 질병의료비 보험 상담
자동차 보험 운전자 보험 상담
은퇴 후 노후 설계 상담

종합자산관리사 (IFP) 이진우 합장 011-766-1001

사패산 의정부 극락사
최소 비용으로 천도재를 봉행하여 드립니다



극락사는 중생의 고통을 자비로 섭수하시는 부처님의 교화도량입니다.
부처님의 혜명을 이어 중생의 고통을 함께하고자 최소의 비용(관욕비)로 봉행하오니 사부대중은 두루 동참하시어 조상님의 극락왕생과 소원성취 발원하시기 바랍니다.

□ 불교식 임종, 입관, 발인, 하관
□ 49재, 백일재 기도, 영가 천도재, 기제사 외
□ 수능기도, 생일기도, 안택기도 접수 봉행 중
□ 중생들의 삶에 대한 고민상담 (매주 금, 토 오전 10시-3시까지)
□ 4월 방생 안내 (간월암)
4월 25일 토요일 오전 8시 출발
많은 동참 바랍니다.

사패산 의정부 극락사
(의정부 예술의 전당 맞은편 동양빌딩 6,7층)
전화 : 031)836-0477 / 010-4111-7523



대행 스님

당신을 이끌어가는 진실한 당신을 믿으세요

(지난 호에 이어서)

질문자1(남): 이곳 광주까지 왕림하셔서 저희 불자들에게 감로법을 설해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항시 스님께서 지도해주시는 '믿고 맡겨 놓고 관하면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말씀대로 따라서 합니다마는, 저희는 이 거친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시시때때로 중생심이 발동하는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마다 다시 돌려놓고 돌려놓고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러한 중생심이 일어날 때마다 돌려놓고 관을 하고 참선을 하고, 또 생활의 모든 것이 관 아님이 없고 참선 아님이 없다, 이러한 가르침대로 하고는 있습니다만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이것은 내가 보고 들었으니까 벌써 내가 관을 한 것이고 그러니 아, 이 일은 잘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그것이 저희들의 자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바쁜 세상에 생활인으로서 생활의 선법을 어떻게 해 나가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을지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큰스님: 여러분 한 몸뚱이 자체가 꽃 한 송이라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꽃잎이 얼마나 많습니까? 꽃잎이 한데 붙어 있으면서 많죠? 한 몸뚱이에 헤아릴 수 없는 의식들이 있고 생명들이 있고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로 규합해서, 즉 말하자면 '주인공 자체다' 이렇게, 자기 뿌리를 그렇게 생각하세요. 큰 일이 벌어졌든 작은 일이 벌어졌든 종교를 믿지 않든 믿든, 모든 것은 바로 자기가 이 세상에 났으니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되려고 믿는 것도 아니고 죽으려고 믿는 것도 아니고 못되려고 믿는 것도 아닙니다. 단, 이 세상에 자기를 형성해 가지고 나왔으니까 믿는 겁니다.

믿으면서 모든 거는 '네가 형성시키고 네가 이끌어 가니까 너만이 해결할 수 있다.' 하고 맡겨놓고 진짜로 믿는다면 우왕좌왕은 하지 않습니다. 안달복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지 못하니까 '주인공! 당신만이 할 수 있어.' 이렇게 해 놓고는 또 못 믿으니까 줬던 거를 도로 뺏는 거와 같아요. '이 서류를, 너 이런 거 이런 거를 다 좀 해결해라.' 이러고 믿고 줬다면 해결하게 내버려 둬야 될 텐데 그 서류를 도로 뺏는 격이란 말입니다. 못 믿으니까! 뺏었다가 줬다가 뺏었다 줬다 이러니까 일이 제대로 될 게 뭡니까?

그러니 진짜로 믿는 데서 여러분의 가정에 후환이 없고 애고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모든 업식이 무너지고 인과응보가 무너지고 영계성이 무너지고 세균성이 무너지고, 생사윤회에 끄달리지 않을 것이며 그렇게 되는 까닭에 편안함이 오는 겁니다. 그래야 삶의 보람을 얻고 삶의 자유를 얻고 이렇게 해 나갈 수 있는 것이지 만날 주인공 이름만 믿고 간다면 그건 안 됩니다. 주인공의 이름은 "얘, 아무개야! 물 한 컵만 다오." 이렇게 "컵에 물 한 컵만 다오." 하기 위해서 이름이 붙은 거지 실질적으로 목이 말라서 물 떠 가지고 오는 데는 이름이 하등 상관이 없단 말입니다. 안 그래요? 이해가 안 갑니까?

그러니 진실로 믿고 맡겨야 합니다. 나 따로 있고 주인공 이름 따로 있고, 해 달라는 놈 따로 있고 해 주는 놈 따로 있다면 그건 아니죠. 과거 살던 자기더러 현재 자기가 '이놈아, 네가 살면서 다 저지르고, 영혼의 뿌리 네놈이 있기 때문에 바로 정자 난자를 비롯해서 나를 형성시킨 것 아니냐. 네놈이 형성시켜서 네놈이 끌고 다니는데 네놈이 해결해야지 누가 해결해?' 하고 진짜로 맡겼을 때…, 따로따로 있으면 안 되죠. 과거에도 자기가 살았고 현재에도 자기가 살고 또 미래의 오늘도 자기가 살 겁니다. 자기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모습만 바뀌질 뿐이죠.

질문자1(남): 큰스님 말씀대로 앞으로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자2(남): 큰스님을 이렇게 가까이서 뵙게 됨을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광주지원 청년회원입니다. 큰스님 게송을 선법가로 만든 '빈손'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올 때도 빈손 갈 때도 빈손, 올 때도 빈발 갈 때도 빈발'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오고 가는 중에 현재의 삶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저는 뭐 하러 나왔을까요?

큰스님: 두 가지로 요약해서 표현을 해 보죠. 여기 걸어오실 때 한 발 떼어 놓으면 한 발은 없어지고 한 발 떼어 놓을 때 또 한 발 없어지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한 발은 무(無)에서 한 발은 유(有)에서, 이렇게 항상 떼어 놓고 가니까 내가 뗀 사이가 없죠. 그러면 또 전력이 말입니다, 이 태양계로부터 전력을 끌어 쓰는데 우리가 그릇을 해 놨기 때문에 우리가 태양열을 받아서 전력으로 쓸 수 있죠? 장치를 해 놨기 때문에. 그렇죠?

질문자2(남): 예.

큰스님: 우리가 마음으로써 주장자를 완벽하게 세워 놓지 않는다면 태양열을 받아쓰려고 장치를 해 놓지 않은 것과 같아요. 그런데 그 태양열이 들어올 때는 들어온다는 말도 없고 들어온 게 보이지도 않고 그렇지만, 태양열은 들어와서 전력으로 흘러서 전력으로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빈발 빈손, 무심 속에 무의 세계, 정신세계가 있기 때문에 유의 세계, 물질세계가 나온 것입니다. 검은 지평선도 역시 지수화풍의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폭발해서 우주를 탄생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에너지를 보지 못하죠. 전력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은 눈 깜짝할 사이니까 볼 수가 없죠. 우리가 가설을 해서 불을 켜고 끄는 것만 알았지 전력이 들어오고 나가는 거 못 보지요? 못 보는 건 못 보는 건데 진짜로 빈손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하고 빈발이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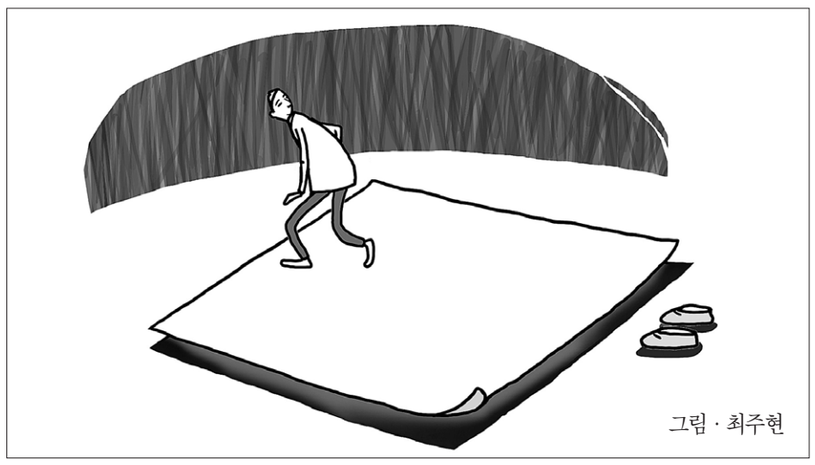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우주 대천세계를 한 발로 디뎠습니다. 여러분이 딛고 있는 이 발이 부처님 발 아님이 없기 때문에 한 발입니다. 부처님 손 아님이 없기 때문에 한 손이고요. 그 광대무변하고 묘한 도리는 여러분이 마음공부를 하셔야 아시게 될 겁니다. 그것은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전력으로써 말을 했는데 우리가 불 들어오고 나가는 거는 알 수 있지만 전력이 들어오고 나가는 거는 못 보는 거와 같아요. 그러니까 '빈손이다, 빈발이다' 하는 것을 '없다' 이렇게 단정을 짓지 마시고 여러분이 빈발 빈손이 있기 때문에 현실에 보이는 손, 보이는 발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열심히 공부하세요. 그러면 알게 되겠죠.

질문자2(남): 알겠습니다. 계속 정진하겠습니다.

질문자3(남): 스님, 이렇게 많은 대중의 마음에 불을 밝혀 주시니 뭐라고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스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한마음선원에 다니기 전에는 다른 절에 다녔었습니다. 다른 절에 다닐 때는 보통 불단에 삼 배를 하면서 나 잘되게 해 달라는, 또 오직 우리 가족 잘되게 해 달라는 욕심에 기복적인 그런 신앙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마음선원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 와서 주인공 공부를 하다 보니 모든 것이 제 마음속에 있으며 모든 것이 제 마음속에서 벌어지고 나오는 것을 조금은 느끼고 있습니다. 계속 주인공 공부를 하다 보니까 스스로 제 마음이 맑아짐을 느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스님께서 너무나 자세하게 답을 해 주셨고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의정이나 의문이 나는 것이 없었으나, 공부하는 도중 약간의 의문이 생겨서 한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문 아닌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차원에 따라 다른지요?

큰스님: 차원에 따라 다르죠. 큰 그릇의 물이 있고 작은 그릇의 물이 있으니까.

질문자3(남): 두번째 질문 하겠습니다. 제가 공부하면서 언제나 놓는다 놓는다 하면서도 큰 것이 왔을 때는 마음 중심에서 감정의 정립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계속 마음을 움직이며 놔야 하는지요?

큰스님: 마음을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생각할 필요도 없죠. 그냥 자동적으로, 보이고 들리면 움죽거려지는 거니까요. 그런 거니까 그대로 그놈이 하는 겁니다. 그놈이 하는 거니까 그놈이 작용을 하게 되겠죠. 하여튼 아까도 '빈손 빈발' 했지만 예를 들어서 전화로다가 "아무개가 지금 그냥 토하고 또 피가 멎지를 않습니다." 하고 연락이 왔을 때 여러분이 진짜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알았어!" 이렇게 해도 벌써 빈손 빈발을 왔다 갔다 한 거죠. 하하하…. (대중 박수)

질문자3(남):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본성 자리는 본래부터 청정하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다시 마음을 닦아야 하는지요?

큰스님: 그것이 닦아야 한다는 언어도 사실은 우매한 거죠. 닦아야 한다고 했는데 닦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이 모두 살고 또 죽고, 뒤집어졌다 바로 됐다 이렇게 하는데 뒤집어지고 바로 되는 것도 없어요. 우리가 그대로 생동력 있게 살아나가고 있고 일분일초도 쉬지 않고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닦는다 하는 거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용도에 따라서 닥쳐오는 대로 재료로 삼고 공부하시라는 겁니다. 닦는다고 해도 닦을 게 있어야 닦죠. 본래 닦을 것도 없고 먼지 앉을 것도 없고 옮겨 놓을 것도 없고 옮겨 놓지 않을 것도 없어요. 단 하나, 자기 마음으로 먼지를 붙여 놓고 떼려고 애를 쓰고, 구멍을 뚫어 놓고 메우려고 애를 쓰고, 마음으로 지어 놓고 마음으로 그렇게 받는 거죠.

그러니 마음으로 지은 것이 거죽으로 항상 나오게끔 돼 있거든요. 사람이 물질적으로 만든 컴퓨터는 모두 입력을 해서 쓰지만 우리 살아나가는 거는 자동적으로 입력이 돼요. 그래 오신통이 바로 컴퓨터다, 이렇게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니죠. 자동적인 컴퓨터! 이것이 자동적으로 입력되니까요. 행하고 말하고 살아나가는 그대로 그냥 입력이 돼요. 자동적으로 말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동적인 오신통이라는 그 자체가, 즉 자동적인 컴퓨터가 바로 여러분 각자 앞에 있는 거죠. 그래서 현실로 또 나오는 거거든요. 하여튼 지금 닦는다 안 닦는다 거기에 신경을 쓰지 마시고요, '그냥 여여하게 그대로 살아나가는 게 그대로 그놈이 하는 거구나. 보고 듣고 들이고 내고 하는 것이 전부 그 한 놈이 하는 거로구나.' 하고 믿고 생각을 잘하세요. 꿈을 잘못 꾸어서 '아이구! 이거 큰일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아, 꿈을 잘못 꾸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도 '어, 이거는 꿈을 꾸게 하는 것도 너니까 꿈을 잘 꾸어서 지금 현실에 잘되게 하는 것도 너다.' 이러고 쓱 돌려놓으란 말입니다. 그게 닦는 거예요.

☞26면으로 계속

범음범패 학인모집

전통사찰 안정사 범음범패 영산재 보존회에서는 범패의 계승과 보존을 위해 뜻이 있는 출가 수행승려와 재가불자님께 수강생을 모집 하고자 알립니다

◈ 자 격 :
1. 삭발염의한 출가승려
2. 불교와의 특별히 인연이 있는 분 (재가불자)

◈ 교육기간 : 1년과정 (초급반 : 6개월과정)

◈ 교육내용 : 불교 각단 예불 및 천도재의식

1. 각종 전문 재의식	4. 사다라니바라
2. 사물 다루는법	5. 오공양작법
3. 천수바라	6. 요잡

▫ 불교의식무용반 : 연화무, 해원무, 학춤
▫ 연구반 : 안정사범음범패

◈ 수 강 일 : 매주 화요일 개강
오전 10시 ~ 오후 17시까지

◈ 준 비 물 : 필기도구, 녹음기

◈ 수 강 료 : 월 10만원

◈ 교육장소 : 전통사찰 안정사 교육원(강원) 승헌스님
(경남 통영시 광도면 안정리 1888번지)

◈ 문의전화 : 055)649-6711, 010-8533-6775
팩스 055)649-6712

전통사찰 안정사 범음범패 영산재 보존회

나의 체질을 알고 계시나요?

나의 체질을 알아야 맞는음식.맞는과일.맞는차를 알고 먹어야 내 몸에 균형을 이루어서 큰병을 만들지 않고 사는 동안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내가 잘 모르고 먹는 음식이 내 몸을 병들게 만든다면 체질을 알고 먹는게 아주 중요하지요?

40년간 얼굴생김새.목소리 체형.살갗을 만져보고 연구노력하여 스스로 터득하여 얻어낸좋은분을 만나서 체질을 알고 병을 고쳐보세요.체질을 알아야 맞는 처방으로 병도 고치고 건강을 찾을 수 있어요! 연구 · 노력하여 터득한분을 만나보면 인생이 바꾸어지는 행운이열립니다.지금바로 전화주세요!

무료로 체질을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수행하시는 스님들께는 특혜를 드립니다

연락처 011-9373-3778

설법 연수생 모집

교육내용
1. 대인불안 공포증의 원인분석과 대안
2. 단전호흡 & 발성훈련의 실기훈련
3. 설법의 개념과 부처님의 5종 설법
4. 설법자료 및 훈련자료에 의한 연수
5. 음성언어와 몸짓언어의 실기훈련
6. 표현상의 수사 및 논리상의 수사
7. 경우에 따라서 '최면(催眠)'도 지도함

회원모집 & 특징
◆ 본인이 원하는 시간을 선택할 수 있음
◆ 맞춤식 개인지도 (2시간 기준, 8과정)
◆ 동영상 비디오 촬영 - 모니터링

지도교수 又佛 김철회 박사 직접지도
◆ 한국설법연수원 원장
◆ 한국인성개발원 회장
◆ 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법인 이사장
◆ 대한최면심리학회 부회장 / 대통령 표창(교육 부분)
◆ 美 로드랜드 의과대학에서 최면전문가 자격증취득 / 최면지도사
◆ 대한웅변 중앙회 회장 역임

◆ 문의 및 신청 ◆
TEL 02)747-1567
H·P 011-248-1567
E-mail : kch3296@hanmail.net

한국설법연수원
서울 종로구 종로 3가 20(영흥 B/D 4층)
〈지하철 1, 3, 5호선 종로 3가역 2번출구〉

역학 효타비결 전수생 모집

아직도 5년 10년씩 역학을 공부하십니까?
1달만 공부하면 최고의 전문가가 될 수 있는 효타비결을 전수합니다. 진정한 프로가 되고 싶으면 지금 시작하세요.

● 기간 : 1개월 완성
● 문의 : 효타암 051)524-9406

"이름 대사전"

● 대법원 선정 인명용 한자 중에서 선별.
● 작명,개명,상호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성씨별로 2천-3천개의 이름들을 수록하였음.

- 정가 5만원 -

효타암 주지 원공 합장
◆ 농협 121076-56-092613 손선미
장소 : 부산시 금정구 금사동 34-4

buddhanews.com

자기 근본을 진짜로 믿는다면 안달복달하지 않습니다

☞25면에서 계속

질문자3(남): 잘 알겠습니다. 스님, 이왕 이렇게 먼 거리에서 광주에 오셨으니 스님께서 주고 가실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주고 가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중 박수)

질문자4(초등학생 · 남): 큰스님, 저는 평소에 우주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주 잡지나 만화 같은 것을 자주 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텔레비전을 보니 혜성과 목성이 언젠가는 부딪친다던데 그게 저는 걱정이 돼요. 부모님께 여쭤 보니 목성과 혜성의 마음조차 내 마음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뜻을 잘 몰라서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큰스님: 질문 잘했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네 마음에 있다. 네 마음에 달렸다.' 했죠? 그랬는데 사실 이 부처님 법이란 아주 묘하고 광대해서…, 이것은 부처님 법이라고 하기 이전에 모든 진리가 그러해! 그러니 '혜성이 목성하고 부딪치면 어쩔까?' 하는 너의 마음이 그렇게 광대무변한 묘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딪치지 마라.' 한다면, 네가 한 찰나에 혜성이 되면 둘이 아니어서 그 혜성이 네 마음을 알기 때문에 부딪치지 않아요. 그 혜성이 부딪치려고 할 때 네 마음이 혜성이 돼 버리면 혜성이 부딪치지 않아요. 혜성이 잘못돼서 이 지구를 건드린다 하더라도, 즉 말하자면 공부하는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면 돼요. 혜성 마음과 내 마음이 둘이 아니게끔 내가 혜성이 되면 돼요. 그러면 그 혜성 물질을 멀리 끌고 가게 돼 있으니까요. 하하하…. (대중 박수) 진실로 믿어요. 절대로 거짓은 안 해요.

질문자5(여): 스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스님께 질문 올릴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동안에 수행해 온 과정을 스님께 말씀드리고 꼭 여쭈고 싶은 질문을 한 가지 올리겠습니다.

옛날에는 『금강경』을 읽고 『천수경』을 읽고 또 법문을 들으면서 생활을 하고 불자로서 보시와 자비를 실천해 가면서 살아간다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생활을 하다가 어떤 자극이 오면 용수철처럼 튀어나오는 내 마음이 참나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근데 이 한마음 공부를 한 뒤부터는 '너와 내가 둘이 아닌데….' 하고 하나하나 굴리면서 놓아 가면서 생활을 해 간답니다. 경을 통한 그런 공부를 할 때는, 지금 생각하면 그래요, 스님. 논에서 벼를 가져다가 한 알 한 알 쌀을 만들어서 씻어서 밥솥에 넣고는 불을 켜지도 않고 배부르기만을 기다렸던 것이 내 삶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마음공부를 하면서부터는 밥을 해서 식탁에 올려놓고 수저로 떠먹고 있어요, 스님. 너무나 스님께서 자세히 잘 가르쳐 주셔서요.

큰스님: 아주 표현 잘했소. (대중 박수)

질문자5(여): 밥을 한 수저씩 한 수저씩 떠먹으니 배부르고 배고프고가 어디가 있겠어요. 내가 원하면, 떠먹으면 배부를 건 자동이잖아요, 스님.

큰스님: 아, 참 좋구먼! (대중 웃음, 박수)

질문자5(여):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하고 그동안에 경 공부를 하고 또 저를 지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여러 스승님들께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회향 올리고 한마음 한뜻으로 정진해 갈 것을 정말 약속드리며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큰스님: 그래서요, '경을 보되 보지 말고, 네가 경을 보지 말고 또 경은 너를 보지 않도록 해라.' 한 것입니다. 그건 왜냐하면 경을 보는 놈도 그놈이요 안 보는 놈도 그놈이에요. 그러니 잘했든 못

보고 듣고 들이고 내는 것이

했든 경을 꿰 가지고 굴리든 말았든 그놈이 다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한다면 '경을 무수히 보되 보지 않고 진실을 봤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저 내가 용도에 따라서 어떠한 문제가 닥친다 하더라도 겁 안 내고, 우리가 배고프면 밥 떠먹듯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방편과 진리로써 지금 여러분을 이끌어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인연은 만나기도 참 힘들다고 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이때를 놓치지 마시고 공부 열심히들 하세요. 못났든 잘났든 돈이 없든 있든 그것을 다 떠나서 말입니다. 죽을 먹는다 하더라도 '죽 먹이는 놈도 너니까 쌀밥 주는 놈도 너다.' 하고 그렇게 되돌려 놓을 수만 있다면 바로 죽이 쌀밥으로 화해서 쌀밥으로 들어오게 된다 이 소립니다.

질문자5(여): 스님, 제가 질문 한 가지 드릴게요. 스님 법문을 직접 듣고 테이프로도 듣고 공부를 하면서, 또 한마음요전을 읽어 가면서 늘 그것을 참구하고 또 참구하면서 보는데 스님께서는 늘 '안에서 구해서, 자기 안에서 구해서 마음을 밝혀 나가고 깨쳐 나가라.' 하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생활해 가면서 어떻게 살아야만이 마음을 밝히고 안으로 잘 구할 수 있는가? 아까 스님께서 다 말씀해 주셨지마는 저와 여기 모여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큰스님: 만날 한 말이 그 말이지, 뭐. 하지만 진짜로, 여러분이 아주 진짜로 믿고 절감을 해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그걸 내가 이렇게 말로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아주 급박할 때, 물에 빠져 다 죽어갈 때에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하는 심정, 그 정도가 돼야 '아이고, 너만이 할 수 있다.' 하고 아주 그냥 절박하게 하죠.

미국에 있는 사람도 그렇고 일본에 있는 사람도 그렇고요, 나한테 전화를 할 때는 아주 절박하게 합니다. "알았어. 절박하게 관해 봐!" 그러면 그 이튿날이고 그 다음 날이고 전화가 또 뚜르르 옵니다. "아이구, 전화하고 나니까 그냥 멎었어요. 스님, 참 감사합니다." 이럽니다. 그러면 "응, 네 전깃줄과 내 전깃줄이 둘이 아니게 돼서, 둘이 아닌 까닭에 불이 들어왔을 뿐이지, 내 전깃줄이 제일이고 네 전깃줄은 아니고 이런 게 아니라 네 마음의 전깃줄하고 내 마음의 전깃줄하고 같이 합쳐 놨으니까 불이 들어온 거다. 그러니까 네가 낫게 했다 내가 낫게 했다 하는 것도 없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역시 진정으로 믿어야죠. 자기 뿌리를 자기가 안 믿으면 누굴 믿을 겁니까? 이름을 믿을 겁니까, 형상을 믿을 겁니까? 또 스님네들의 고깃덩어리를 믿을 겁니까, 네? 어떻게, 어떻게 할 겁니까? 당신을 이끌어 가는 진실한 당신을 믿어야죠.

그러니 부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경이나 각처의 스님네들이 이끌어 주는 그것은 역시 길잡이밖에 안 되는 겁니다. 나부터도 길잡이밖에 안 되는데 방편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스님네들이 방편을 안으로 두게끔 썼으면 좋겠는데 바깥으로 기도하고 빌게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가톨릭교고 기독교고 전부 그래요. 하여튼 모두 바깥으로 기도하게 하고 바깥으로 믿게 하거든요. 주처는 자기가 있기 때문에 있는 건데 말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진짜 자기부터 알아야 일체를 다 알 수 있다고 가르치셨는데 모두 타의에서 구하고 있고 바깥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어느 종교를 막론해 놓고 세계적으로 봐도 다 그래요. 알라신교니 티베트 불교니 기독교니 가톨릭교니 그런 사람들 다 만나 봤고, 또 어떻게 하나 기웃거려 봤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의 가르침에 엇나가는 격이 많거든요. 부처님이 가르치신 그 뜻을 아예 뒤바꿔 놓고 가르치는 거와 똑같죠.

그러니 우리가 경 한 번을 본다 하더라도 경을 달달달달 외워서 그 이름을 알고 말을 아는 게 아니라 그 진실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두 진실한 자기, 못났든 잘났든, 정말 왜소하고 못나서 애쓰는 그러한 사람도 역시 자기 원소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원소 그 자체 불성은 변하지도 않는 거고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아주 영원한 겁니다. 그러니 그 영원한 자체의 불성은 사람이 못났든 잘났든 잘 배웠든 못 배웠든 그거를 떠난 자립니다. 그러니 실망하시지 말고 뒤로 물러서지도 마시고 공부 열심히들 하세요. 이 자리에서 당장 급하신 분들이나 여기 처음 나오신 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내면으로 믿고, 당장 '주인공 뿌리야, 너만이 알고 있어. 너만이 해결할 수 있어.' 하고 거길 믿고 진정코 진실한 마음으로 해 보세요, 안되나 되나!

질문자5(여): 스님, 감사합니다.

큰스님: 되기 위해서만 하는 거는 아닙니다만 그것이 바로 방편이자 바로 부처님께서 불난 집에서 애들을 구하기 위해 '사탕 줄 테니 나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장난감 줄 테니 나오너라.' 이럭한 거와 똑같은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믿으십시오. 그런 부처님의 가르치심이 아니었더라면 여러분과 내가 이렇게 있지도 않을 겁니다. 이런 말을 할 줄도 모를 거고요. 그러니까 감사한 줄 아시고요, 하여튼 생활 속에서 하나하나 진실히 해 보십시오. 다가오는 그 괴로움을, 애고를, 번뇌를

전부 그 한자리에서 하는 것임을 알아야

번뇌라고 생각지 마시고 공부할 수 있는 재료라고 생각하시고요. 그 재료가 있기 때문에 내가 공부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진실하게 가지시고 한번 열심히들 해 보십시오.

질문자5(여): 한 가지 더 질문 드릴게요. 스님, 천도재를 지낼 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천일기도를 드리는 천도재일이 있어서 거기에 같이 동참해서 천일 천도재를 지냈었고 또 백일 천도재가 있어서 또 거기 동참해서 천도재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도 부족한지라 대덕 스님을 모시고 또 천도재를 지냈었거든요. 천도재란 이렇게 자꾸자꾸 여러 번 지내야만이 조상 천도가 다 되고 내 마음 안에 있는 그 모든 중생이 다 천도가 되는지요.

큰스님: 여러 번을 지내야 된다, 안 지내야 된다, 이런 말은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 세상 떡을 하나 집어 먹은 분들이 천도재를 할 때는, 즉 그 영혼이 들어와서 그 스님의 마음을 볼 때에 '아! 이 세상은 모두 떡 하나에 속하는 거로구나.' 하고 떡 하나에 다 있는 거를 알게 되지만, 즉 스님의 마음을 꿰뚫어보기 때문에 그 스님의 마음 속에 와서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스님네들이 상 하나를 차려 놓으면 얼마를 들여서 상을 차렸다 하는 거를 스님은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스님네가 잘 알죠. 그러면 영혼이 들어와서 스님네가 상 차려 놓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 알게 되죠. 이 세상이 떡 하나에 속한다는 거는 모르고요.

그러니까 떡 하나를 집어삼키고 바다를 삼키고 토할 수 있는 그런 스님네라면 보지 않아도 되고 차리지 않아도 되고 여러 번 안 해도 되지만 그런 스님네가 아니라면 여러 번 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하기에 달린 거예요. 여러분이 공부를 잘했으면 스님네가 어떻든 그냥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거니까요. 부처님 마음과 조상의 마음과 내 마음이 모두가 둘이 아닌 까닭입니다. 그러니까 한 솥의 팥죽이 끓는 거나 똑같은 얘기죠. 끓는 방울이 많다 하더라도 한 솥에 있으니까요. (대중 박수)

질문자6(남): '마음을 믿는다' 하셨는데, 스님 지금 들고 계신 것이 마이크지요?

큰스님: 예.

질문자6(남): 믿습니까?

큰스님: 허허! 믿든 안 믿든 들고 있는 놈이 누굽니까?

질문자6(남): 네. 스님 앞의 꽃은 붉습니다.

큰스님: 붉은 거든 푸른 거든 그놈이, 서 있는 놈이 붉다 희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서 있는 놈의 말을 누가 하게 했는지 그것만 아시면 됩니다.

질문자6(남): 노래를 한 자리 불러 드릴까요?

큰스님: 아, 부르시든지 그거는 자유죠.

질문자6(남): 하하하…. 그러면 이제 두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마음을 관한다고 했는데 눈이 몇 개입니까?

큰스님: 눈이 없으니까 걱정이죠.

질문자6(남): 저는 있다 해도 삼십 방망이, 없다 해도 삼십 방망이를 내리겠는데요. 역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큰스님: 그건 말장난에 지나지 않으니까 그런 건 다, 삼십 방망이 삼십 방망이 하는 거는 다 말장난이에요.

질문자6(남): 육십 방망이도 말장난이겠구먼요.

큰스님: 육십 방망이도 말장난이고요, 백 방망이도 말장난이고요. 그러니까 그냥 말을 하게 하는 놈이 그놈이요, 지금 서 있게 하는 놈이 그놈이요, 바로 쳐다보게 하는 놈이 그놈이요, 듣게 하는 놈이 그놈이요, 모두가 한 놈인데 그렇게 많은 놈이 됐다가 적게 되고 적은 놈이 됐다가 없어지고 하는 불가사의한 그런 놈이 돼 보십시오.

질문자6(남): 예. 스님, 눈을 깜빡 한번 해 보십시오.

큰스님: 그러면 뭐 아랫눈썹 윗눈썹 깜빡, 아주 깜짝새요.

질문자6(남): 네, 감사합니다.

큰스님: 허허허! 너무나 깜짝새가 돼서요, 아주 '무(無)!' 해 버렸죠. 허허허…. 언어도 붙지 않는 자리이기 때문이죠.

※위 법문은 1994년 4월 24일 국내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토종약초 향토이야기


달마스님

KBS, MBC, SBS 방송출연 토종약초 30년간 연구 식약청 약초약품 허가. 팔도명산 바위틈에서 자생하는 각종 야생약초 만병초, 칠선초, 당귀, 용담, 천상무, 오가피 그 외 100가지 보유

*비만, 다이어트, 뱃살제거(한달에 2.3 KG 빠짐) - 칠선초 ₩88,000
*아토피-지리산 비단풀, 만병초, 상황버섯, 100% 확실 ₩87,000
*골다공증, 뼈부러진데 - 토종약초 ₩85,000
*허리 아픈데 - 토종약초 ₩86,000
*당뇨(합병증), 간경화, 위장병, 고혈압 - 토종약초 (특수비방) ₩88,000
*만성변비- 토종약초 별 방법해도 안되시는 분 ₩80,000
*코골이, 비염 - 토종약초 특수비방 ₩85,000
*어린아이, 학생, 성장발육 - 만병초, 녹용, 차가버섯 38가지 ₩150,000
*각 종 암 - 지리산 비단풀, 만병초, 상황버섯 100가지 토종약초
*여자가 얼굴이 예뻐질 때 기미, 주근깨, 화장독 제거 - 영능향 삼매자(희귀약초) ₩88,000
*초등, 중등, 고등학생들 보약 - 키가 쑥쑥 자람. 공부 잘할 체력유지 ₩88,000

그 외 필요한 건강무료상담. 성불하십시오

TEL : 051)866-1138, 010-6413-1388
농협 813083-52-062061 정광채
네이버 검색 부산 천황사 방송보기 클릭

한방(韓方)치료로

간질(환) 백반증(백납) 건선

한솔한의원
031)555-7780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847번지 타워클리닉 3F

"대한한의사 협의 의료광고 심의필"
"제 090226-중-482"

전통범음범패(바라,나비작법)과정 수강생모집

경북교구 종무원 범음,범패 교육원에서 2009년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한국불교의 전통의식 범음,범패,작법(바라춤,나비춤)등에 관심있는 스님 및 불자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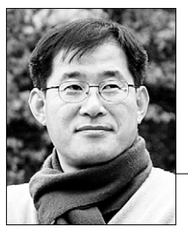
1. 교육기간 및 과정(1년)
가. 기초과정(2개월)
◆ 송주 : 도량석, 종송 등
◆ 예경 : 향수해례, 사성례, 칠정례, 오분향례, 각단예불
◆ 권공 : 삼보통청, 상단 · 중단권공, 각단불공, 요령, 목탁
나. 전문과정(4개월)
◆ 시련,대령,관욕,옹호게(신중작법104위),지장청,시왕도청 전시식, 관음의식, 상용영반, 화엄시식, 구병시식,봉송편
다. 고급과정(6개월)
◆ 바라춤 : 천수바라,사다라니바라,화의제바라
◆ 나비춤 : 오공양,유원송,요잡작법
◆ 사 물 : 태징,북,광쇠,호적(태평소),전통의식타법
◆ 특 강 : 괘불이운,종사이운,종사영반,점안의식,시달림(다비),예수재의식 등
라. 강주 : 김법운스님, 이현진스님
2. 입학식 및 개강일시
◆ 입 학 식 : 2009년 3월 5일 오전 11시
◆ 개 강 : 2009년 3월 5일 오후 1시
◆ 수업시간 : 매주 목요일 오후 1시 ~ 5시
3. 입학자격 : 종단과 승 · 속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
4. 수 강 료 : 교육비 10만원(교재비별도)
5. 강의장소 : 경북교구 종무원 설법전
6.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본종무원에서 교부)
7. 접 수 처 : 한국불교 태고종 경북교구 종무원 (경북 경산시 와촌면 동강 2리 265)
8. 접수기간 : 상시모집
9. 문 의 처 : 053)857-4339, 팩스 053)857-0206

한국불교 태고종 경북교구 종무원 범음,범패 교육원

산세 수려하고 청정계곡에 위치한
천혜의 명당

- 실버타운 요양원 납골당 설립 최적지
- 대지 600평, 관리지역 2,400평, 국유지 10,000평 하천부지 3,000평 사용
- 법당 30평, 요사채 4동 150평
- 방 13개, 수세식 욕실 화장실 6개 심야전기 보일러
- 영동고속도로 세말 IC에서 5분거리 (서울에서 1시간 30분)
- 가액 : 17억

문의 033)345-5597 011-771-5597



불자 세상보기

유 정 길

평화재단 기획위원

우주로 쏘아올린 백만톤의 식량

4월 5일, 북한의 로켓 발사로 국제사회에는 큰 파장이 일고 있다. 미사일이냐, 인공위성이냐로부터 시작된 논란은 '미사일주권론'까지 언급되고 있다. 일본은 태평양전쟁 전야와 같은 분위기로 러시아와 중국의 반대속에 유엔안보리에서 대북제재 결의를 추진 중이다.

발사 당일, 북한은 운반로켓 '은하2호'를 통해 쏘아올린 위성 '광명성 2호'가 성공적으로 지구의 타원궤도를 돌고 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내·외신 다수는 발사체가 궤도 진입속도를 내지 못해 추락했다는 설을 더 신뢰하고 있다.

북한의 로켓발사는 주민들이 기아선상에서 굶어죽는 가운데, 국가로서의 제 기능을 하지 못해 온 북한내부에 권력재편성과 국민적 통제력을 재정비하려는 내부효과가 우선 목적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것은 과거와 달라진 이명박 정부 정책으로 남북한의 정치 군사적 긴장에 대응하기 위해 북한내부를 관리해야한다는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고, 더욱이 9일 열린 제12기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재추대와 내각이 새롭게 구성되는 정치일정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이번 위성발사를 '경제발전에 필수적인 실용위성'이라고 보도했다. 자체기술개발로 인공위성 발사체를 보유한 나라는 세계에서 10여개국 뿐이다. 이번 로켓발사로 북한은 세계적인 첨단기술보유국가의 이미지를 갖게 됐다. 북한은 향후 그 기술을 해외에 판매하려는 경제적 효과까지 기대하고 있었다고 보여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과거 300만명 이상이 굶어 죽었다. 작년에는 다시 '좋은벗들'이나 'WFP'가 북한의 긴급한 식량위기상황의 해결을 위해 국제적 지원을 호소했었다. 물론 가을 풍년으로 인해 예상되는 어려움이 부분적으로는 해소됐지만, 비참한 상황은 올해도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보도에 의하면, 이번 로켓발사에 약 3억달러가 소요됐다. 이는 작년 여름기준으로 국제시장에서 100만톤 이상의 쌀을 구입할 수 있고 이 정도 양이면 북한주민이 격고 있는 식량난을 1년간 해결할 수 있는 분량이다. 그동안 남북 화해와 평화를 위해 노력해온 단체들로서는 수백만명이 굶어죽는 상황에서 체제를 우선시한 북한정부의 정책을 이해할 수 없다. 과연 '인민의 국가'를 만들려는 북한이 '인민의 죽음'을 아랑곳하지 않는 이 역설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단 말인가. 정권의 논리로 보면 이해할 수 없기만 한 것은 아니지만 어떠한 정부라도 국민의 목숨, 사람의 목숨이 우선해야 한다는 것은 시대를 넘어 자명한 사실이다.

이러한 북한의 행위는 결국 동아시아국가들 내부의 보수화를 강화시키고 군비경쟁을 가속화시켜 남한과 일본의 군비증강을 도모하게 만들 것이다.

정말 심각히 걱정되는 것은 북한의 정부가 강성대국이라는 정권안보를 그 기준으로 두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는 사이에 북한주민들의 대량아사는 올해도 계속될 것이다. 또한 북한의 로켓발사에 대해 일본과 한국은 과도한 안보불안을 조성하고 있는 점도 문제다. 일본은 로켓을 요격하겠다는 군사적 행동까지 취하려고 했고 이를 통해 군비증강을 꾀하고 있다. 한국은 '미사일주권'을 비롯해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전면참여나 미사일방어(MD)체제참여와 같은 군사적 해결을 도모하려고 해 우려스럽다.

전세계는 점차 긴장완화, 군비감축으로 가고 있는데 중국, 남한, 북한, 일본 등 유독 동북아국가들만이 군비증강 경쟁에 더욱 깊이 빠져 들고 있다는 점이 화해와 평화를 위해 활동하는 사람들의 큰 걱정거리가 아닐 수 없다.

본 칼럼은 본지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社說

외국인 스님도 한국불교의 미래

현재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외국인 스님은 300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학생 신분으로 혹은 수행을 목적으로 입국한 스님들이다. 그러다 보니 수행처에서 정진에 매진하거나 학교에서 학업에 몰두하는 스님들에 대한 종단적 관리가 소홀했었다. 모두는 아니지만 대부분이 조계종에 소속되거나 연관을 갖고 있다. 때문에 종단 차원의 관리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

이 같은 실정 속에 조계종이 처음으로 외국인 스님들을 위한 연수를 가졌다. 추산되는 국내 체류 외국인 스님의 1할 가량에 해당되는 29명이 참가했다. 참가 인원은 적어도 그들의 국적은 미국 러시아 몽골 등 15개국이나 된다. 한국에 와 있는 외국 스님들의 국적이 다양하다는 것은 그만큼 한국불교의 세계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다양한 나라에서 온 스님들이 고유한 전통 속에 이어져 온 한국불교의 수행 가풍을 배운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종교와 문화적 측면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국가 경쟁력의 측면에서도 상당한 의미를 갖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현재로서는 외국인 스님들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미약한 실정이다.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교재와 지도사의 부족은 하루 속히 극복해야 할 과제다. 동남아 지역이나 티베트 몽골 지역 등에서 온 스님들의 경우 미주나 유럽의 스님들에 비해 '색안경'을 끼고 보는 시선을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불자들의 '대승적 시각'도 요구된다. 외국인 스님들은 한국불교의 또 다른 미래란 점을 잊지 말자.

템플스테이, 이제 관리가 중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템플스테이는 '가장 잊지 못할' 경험이다. 템플스테이는 그만큼 여행 상품으로서의 경쟁력도 대단하다. 그러나 상품은 아니다. 템플스테이의 딜레마는 순수한 수행프로그램과 여행 상품으로의 인식에 있다.

그것은 지나치게 상품화에 초점을 맞추고 템플스테이의 장점을 홍보한 이유에서 기인한다. 이는 또 템플스테이 활성화를 위한 재원 마련을 국가 지원에 의존하려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감내해야 할 일이기도 하다.

템플스테이는 국내외적으로 매우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기업 연수의 측면에서 높은 효용성을 보였고 개인의 삶을 반조하고 새로운 생활 에너지를 충전해 주는 힘도 검증됐다. 외국의 기업인이나 외교관들도 체험 후에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웠고 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도 인정받았다.

이제 템플스테이는 한국불교의 세계화 브랜드로 자리 잡았다. 때맞추어 조계사 인근에 템플스테이통합정보센터가 문을 열게 된다. 이를 계기로 템플스테이는 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정보센터를 통해 템플스테이에 대한 체계적인 홍보와 프로그램 개발 및 교류의 인프라가 확고하게 구축될 것이다. 또 관련 인력을 양산하고 일부분의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될 계획이어서 적지 않은 기대가 있다.

템플스테이통합정보관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이제까지 쌓아 온 가치의 발현 여부가 달려있는 만큼 보다 체계적이고 획기적인 운영을 당부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김송호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온라인광고 애드부다피아 http://ad.buddhapia.com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산지사 : (051)632-0064
경남동부지사 : (055)353-1196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충청지사 : (043)732-5560
전북지사 : (063)910-5199
대구지사 : (053)768-8008
경남서부지사 : (055)355-7472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영주지국 : (054)634-3429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사부대중 테마칼럼

4월의 테마-감사합니다

'주선일미'… 내 몸이 반야용선

달리는 것과 걷는 차이가 너무도 다르다는 것을 알았다. 마라톤을 시작하고부터다. 컴퓨터에서 글을 쓰다보면 모니터를 응시하는 시간이 길 수밖에 없다. 연구 주제를 머리에 담고 화두 풀듯 하다보면 육체를 버려두는 경우가 허다하다. 고장 난 몸이 삐걱거리기 시작하자 마지못해 달리기에 나섰다. 그러자 달리기라는 또 다른 세계가 펼쳐지고 그 곳 사람들과 인연 맺었다.

그들은 뜀박질을 신앙처럼 받든다. 한국불자마라톤 회원들이다. 그들 앞에서 '건강을 위해'라고 말했지만 어색한 메아리가 됐다. 마라토너 불자들은 건강과 불사를 연결시키려는 마음이 강했다. 장삼에 가사를 두른 승지 스님이 커다란 번호표를 달고는 빠른 속도로 달려 나간다. 이색적인 풍경을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손을 흔드신다. 자연스런 포교이다. 혜문 스님은 101km를 뛰는 울트라 마라톤에 참가했다. 부산 태종대에서 임진각까지 537km를 종단한 회원도 있다. 풀코스(42.195km) 100회 완주를 목표로 뛰는 분도 있다.

살 수 있도록 해주는 땅과 공기의 고마움을 잊고 있듯이 우리의 몸도 그러한지 돌아보자. <반야심경>에는 몸을 주제로 무-안이비설신의가 있다. 연결해보자. 색이라는 육체가 공을 만나 반야로 거듭나는 공식을 보여준다. 이 때 몸은 피안에 이르게 하는 반야용선이 된다. 육체에 대한 대승적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과거 육체가 하던 일들을 기계가 대신하면서 현대인의 몸은 운동 부족에 허덕인다. 움직이지 않는 시간이 너무나 길어졌다. 더 나아가 인간의 생각까지 기기들이 대신한다. 첨단 문명을 거부하지 않더라도 건강한 몸을 유지해야 한다. 운동과 인연 맺어야 한는 이유이다. 그리하여 건강한 몸을 보살정신에 적용해보자. 번뇌 덩어리를 미워할 것이 아니라 반야용선의 육신을 고마워하고 사랑해야 한다.

선지식들이 전식득지(轉識得智)라는 말씀을 하셨다. 심신의 번뇌 요인들을 오히려 지혜로 바꾸라는 것이다. 본능을 따르면 번뇌 덩어리 육신이지만, 부처님을 따른다면 관음보살의 법체인 것이다. 하루에도 수십 번 자신의 몸에 감사해도 된다. 총무원장이셨던 법장스님은 열반하기 전 한국불자마라톤 불자들을 위해 주선일미(走禪一味)의 휘호를 하사하고 뜀박질도 수행임을 강조했다. 마라톤 불자들의 자긍심이 매우 커보였다. 나도 서브쓰리(sub-3)니 즐런(즐겁게 뛰자)이니 하는 용어들을 새롭게 배워야 했다. 뜀이 힘든 만큼 클럽 법우들의 우의도 끈끈했다. 초보자들을 위한 배려가 오히려 부담스러울 정도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생각이 풀코스와 인연 맺었다. 군살 대신 정강이에 근육이 붙기 시작했다. 달리는 일이 즐거워졌고, 부처님 사업을 할 수 있는 기량을 더욱 높였다. 클럽 법우들이 고맙고, 내 몸에 감사함을 느낀다. 또 다른 불자에게 자신의 몸이 반야용선임을 알려주고 싶다.

한국불자마라톤 동호회
cafe.daum.net/hsjung1959



최동순
불교문화연구원 연구교수

빙의(귀신병)으로 고통받는 많은 중생… 그 고통을 함께합니다



빙의치유
- 영을 직접불러 누구인지? 무슨 원한인지? 천도

전생체험
- 원통한 인간의 인과 응보와 원인을 찾아 업장을 소멸하고 사업자, 상업자에게 사업성취를… 원인모를 악질증상 등을 좋은 운으로 돌릴수 있습니다.

치유가능한 증상들
- 빙의(귀신병)퇴마, 우울증, 대인공포, 불면증, 게임중독, 성적향상 등등… 원인모를 불치병… 하는 일마다 안풀리는 분은 사주를 바꾸세요. 산소수맥

빙의, 퇴마, 전생, 최면치료 (최면 시술사 과정 모집)

최면 수련을 통해 노력만 하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교육기간 : 본인이 원할 때까지 ◇교육비용 : 200만원 ◇최단기 집중교육도 가능
◇스님이나 포교사님 현오스님만의 특별교육도 가능 (본인이 원할 때 추가비용 별도)

"2009년 3월 3일 MBC TV 특종 놀라운 세상「귀신씌인 나무의 실체」편 출연"

서울지부 : 보광사
H·P 016-9511-0840
● 서울교육 : 연중무휴
※ 전국 지사 모집. 지속적인 광고지원 ※

부산본부 :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 1388-8
(부산 지하철 2호선 화명역 2번출구 전자랜드 후문 앞)
☎ 051)342-0666 / 364-5586
H·P 010-5656-3915 / 010-3056-3315
● 부산교육 : 연중무휴

성 봉 사 퇴마사 현오 합장

"자연이 준 최고의 선물"
천/년/초를 아십니까?



천년초는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을 노지에서 자연상태 그대로 자라는 다년초 식물로 혹한의 영하 20℃에서도 살아나는 강인한 생명력을 가진 우리나라에서만 자생하는 토종 선인장입니다.
특히, 어떠한 병충해에도 죽지 않고 농약, 제초제, 화학비료를 일체 사용하지 않는 무공해 자연식품이며 "자연이 인간에게 준 최고의 식물"이라 불릴만큼 어떤 식물과도 비교할수 없는 높은 성분을 함유한 소중한 우리의 자원입니다.

직접 몸으로 느껴 보십시오.

한겨울 영하 20℃의 혹한 속에서도 살아나는 강인한 생명력의 천년초!
천년초의 놀라운 생명에너지를 직접 체험해 보십시오.

*천년사랑에 사용하는 천년초는 유기농 천년초 100%를 사용해 만듭니다.

천년사랑 무료샘플신청 02)780-3989
(천년초 책자와 농축액 2일분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제7회 청주 화장사 가침박달꽃 축제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큰스님 초청 대법회

가침박달나무와 가침박달꽃축제



청주시 상당구 명암동에 있는 대한불교조계종 화장사 대웅보전 뒷산에는 충북도지사 고시 천연유전자원보호림 제32호로 지정된 세계적 희귀수목 가침박달나무가 약 만 여 평에 걸쳐 군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가침박달나무 군락지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전북 임실군 관촌지구 보다 그 규모면에서 약 10배가 넘는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2005년 2월에는 가침박달나무 군락지를 보호하고 가침박달나무의 생태적 · 문화적 위상을 드높이기 위해 '가침보존회'가 발족했으며, 가침보존회는 그동안 화장사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던 이 운동을 시민운동 차원으로 승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장사가 2003년부터 열어온 가침박달꽃 축제를 2005년부터는 가침보존회가 주최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화장사 가침박달나무 군락과 가침꽃 축제는 지역 언론은 물론 중앙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았고, 청주를 대표하는 꽃나무와 축제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가침보존회는 가침박달나무와 가침박달꽃 축제를 청주를 대표하는 생태 문화적 자산으로 만들어 나갈 방침입니다.

행 사 내 용

※ 2009년 제7회 가침박달꽃 축제 총무원장 지관 큰스님 초청 대법회
◇ 일시 : 4월 27일 오전 11시 ◇ 장소 : 화장사 대웅전
◇ 주관 : 가침보존회

※ 초의차문화 충북지부 다도시음회 (오프닝행사)
◇ 일시 : 오전 10시 ◇ 장소 : 화장사 대웅보전 앞마당
◇ 주관 : 초의차문화원, 충북지부 가침다회,

※ 전통사찰음식 시연회
◇ 일시 : 오전 12시 30분 ◇ 장소 : 화장사 대웅전 ◇ 주관 : 선재스님

※ 자선바자회
◇ 일시 : 4월 25일 ~ 5월 2일 ◇ 주관 : 신도회,무진회

※ 무진스님의 사진전시회- (국립청주박물관) 깨침꽃, 연화장 세계
◇ 일시 : 4월 17 ~ 19일 오후 2시까지
◇ 장소 : 국립청주박물관 별관 전시실
◇ 주관 : 가침보존회, 가침다도회

※ 불기 2553년 부처님오신 날 봉축 행사
◇ 일시 : 5월 2일 ◇ 장소 : 화장사 대웅전
[오전 10시 법요식 / 오전 11시 관불의식
오후 3시 정진 기도 / 오후 7시 제등행렬
오후 8시 산사영화제 (화장사 도량내)

※ 가침박달나무 묘종 나눔행사
◇ 일시 : 5월 3일 오전 10시

대한불교조계종 화장사 [문의 : 화장사 043)255-5758]
주최 : 가침보존회, 가침박달꽃축제 준비위원회
후원 : 청주시, 청주불교방송, 현대불교신문사, 초의차문화원, 전통사찰 음식문화 보존회
주관 : 대한불교 조계종 화장사



'동해 독도는 한국 땅'

아름다운 등


칼라(보카시)연등 공단등 오색공단등 영가등 종등



육바라밀 만월등(육바라밀 주름등) 팔각봉축접등 종등

※ 주름등 · 종등 주문 받습니다 (사찰명 인쇄)

전선(케이블) _ 연등승강장치 天上列車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대구 장성사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서울 화계사


외부에 시공된 전선케이블

찬덕연등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원하시는 사찰 규격에 맞추어 직접 제작 · 시공해 드립니다.


마산 금강정토사 LED인등



천안 동심사 영구위패

찬덕연등이 개발한
영구위패
LED 인등
LED 전구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찬덕연등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수양2리 261-6 /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팩스 : 031)794-6288
www.chanduk.com / 취급품목 :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JOY POWER WALKING SHOES®

가볍고 세련된 디자인 - 조이파워 워킹슈즈!



조이워킹슈즈 전속모델 방송인 김 생 민

하루 30분 바른자세로 걷는 것이 바로 보약입니다.

대박세일가 59,800원 300족 한정

100% 국내기술 국내생산 조이워킹기능신발

발은 '인체의 축소판', 제2의 심장' 이라고 불린다. 건강은 발 건강부터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듯 발이 편하면 피곤함도 덜하다. 좋은 신발은 보행시 발아치가 주저앉는 것을 방지하고 피로를 완화시켜 주어야한다.

조이워킹신발은 몸의 균형을 잡아주고 허리를 반듯하게 받쳐주어 발중심 아치와 용천을 지지하도록 제작되어 다리에 힘이 없거나 몸의 균형을 잃어 넘어지는 것을 방지하도록 특수설계되어 있다. 또한 인체의 골격과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는 마사이족의 걸음걸이를 적용하여 바른자세로 걷게 해줄 수 있는 것도 특징이다.

건강신발을 위해 수년간 신발만을 만들어 온 조이워킹은 관절 및 허리에 무리가 갔던 점들을 보완하여 걸으면서 근력 강화까지 할 수 있는 공기 쿠션기능과 특수합성피혁 소재를 슈즈에 접목하였고, 발목보호를 위해서 고급우레탄을 사용하였으며 장시간 걸어도 발목관절과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특수설계되어 있다. 그동안 비싼가격에 망설였던 많은 분들께 건강과 가격을 동시에 만족할 수 있도록 특별할인가 59,800원에 특별보급하고 있다.

오늘부터 당장! 조이파워워킹슈즈로 운동하세요!


착지▸굴림▸전진 3단계 워킹


자세를 바르게! 척추를 바르게!


웰빙안정! 충격흡수 EVA 스펀지 압착성형


3중 강력 충격흡수 기능

● 조이 파워워킹슈즈의 특징
- 누구나 잘 어울리는 세련된 디자인
- 은나노 웰빙 안창
- 깔끔한 향균기능 EVA 스펀지 압착성형
- 착지 굴림 전진 3단계 워킹
- 강력한 운동 효과
- 몸으로 전달되는 충격감소
- 전신 스트레칭 효과
- 마사이족 3단계 보행법 그대로
- 외피 : 특수합성피혁+고급인조가죽
- 발목보호 고급우레탄 사용
- 에어백 들어간 우레탄 밑창

● 이런 분은 꼭 신어보세요!
- 발, 다리, 허리가 불편하신 분
- 허리가 굽으신 분
- 많이 걷거나 오래 서 있는 분
- 척추 · 관절보호, 발목보호, 발꿈치 통증이 있으신 분
- 외근으로 오래 걷는 분
- 따로 시간내서 운동하기 힘든 분
- 출산후 몸매관리

대한민국 걷기열풍!
마사이족 3단계 보행법 그대로

● 우수한 재질과 높은 기술력으로 많은 분들께서 품질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JOY-1 남성용(검정) 250~280㎜


JOY-2 남성용(다크브라운) 250~280㎜


JOY-3 여성용(검정) 230~250㎜


JOY-4 여성용(레드와인) 230~250㎜

1족 59,800원 2족 108,000원

JOY POWER WALKING SHOES®

농협 943-12-426130 조윤성

무료전화 080-386-8686